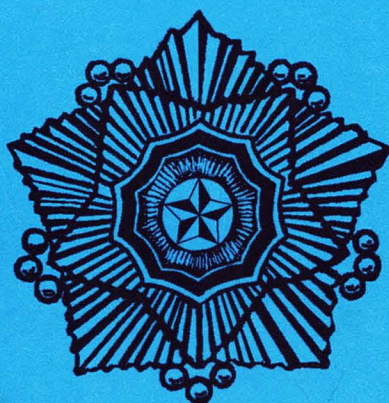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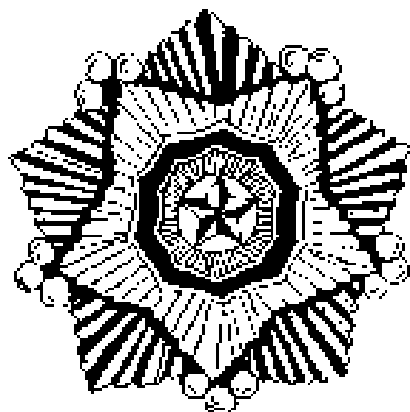
조선문학



3

주체 94 (2005)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4(2005)년 제3호

(루계 제 989 호)

차 례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펼쳐나가는 시대의 전형을 훌륭하게 창조하자	3
한해가 부른다	6
정없이 못살아	6
땅과 농민 (외 1 편)	7
농민의 지게	7
봄, 그것은 나의 사랑입니다	8
두벌농사 흥이로세	8
돌격대의 새벽	9
기다리노라	9
양덕땅에 깃든 전설	10
영생하는 작가	14
몸소 문수봉에 오르신 사연	15
세기의 령장	16
병사와 조국의 하늘	17
전시가요 《샘물터에서》에 대하여	18
범안선경 노래하세	18
범안선경소묘	19
선경중의 선경	20
웃는 달	20
우리의 감사를	21

병사의 좌표	22
산딸기	29
아직 나누지 못한 인사	35
이 땅의 변혁을 두고	37
음식이름에 《약》자를 붙여 부르는 유래	38
어머님을 닮고싶어...	39
3 월 8 일	40
녀성과 꽃	40
3 월은 어머니명절입니다	41
어머니에 대한 단상시	42
마주잡은 어머니들의 손	43
하늘의 별들이 다 아는 처녀	43
주체문학의 대강	44
성격의 매력과 구성의 묘미	44
엄동의 봄우뢰	50
장군님 우리 초소에 찾아오셨네	50
내 고향 북청	51
부영새 우는 밤	51
장수산의 서리꽃	52
박달령 (외 1 편)	52
명산의 가을	52
채 쏘지 못한 총탄	53
장군님 이야기로 우리 세월 빛나네	58
억센 날개	59
첫 씨앗	72
선군시대인간들의 철학적형상	73
천만번 옳았다	76
3.1 의 피는 식지 않았다	76
명림답부	77
오곡에는 어떤 곡식들이 들어가는가	78
장의 《3 형제》	78
붓나무에 비낀 열렬한 조국애	79

격동적인 오늘의 시대정신을 깊이있게 반영하고 인민들에게 열렬한 조국애를 심어주는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공동사설에서-

□사설□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쳐나가는 시대의 전형을 훌륭하게 창조하자

지금 우리 작가들은 새해에 즈음하여 발표한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의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선군문학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 불타는 결의를 안고 문학작품 창작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올해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0돐과 조국해방 60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올해에 맞게 되는 뜻깊은 정치적사변들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불패의 일심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쳐나가는 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될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뜻깊은 이해에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올해를 선군문학의 빛나는 년륜을 새긴 가장 자랑스러운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금으로부터 60년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국해방에 이어 우리 당을 창건하심으로써 조국과 혁명, 민족의 앞길에 빛나는 새 시대를 열어놓으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는데 이바지하는 형상창조에 창작적탐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들을 더욱 품위있고 형상수준이 높게 창작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형상을 모든 문학형태작품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적극 창조하여야 한다.

우리는 특히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 영광떨치고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가 세기를 이어 더욱 세차게 휘날리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 모든 창작적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별히 창작적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는 우리 혁명력사에서 류례없이 간고하고 시련에 찬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겨내면서 위대한 승리를 안아온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을 빛나는 형상으로 폭넓게 보여주는것이다.

선군의 기치밑에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고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실록이 있어 우리

당의 60년력사가 더욱 영광스럽고 우리 조국과 혁명의 전도가 끝없이 양양하다는것을 문학의 모든 형태의 작품에서 다채롭고 풍만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총서 《불멸의 향도》 중의 장편소설창작을 더욱 활력있게 다그치며 수령형상작품의 인간학적품위를 높여주는 단편소설창작에 탐구와 사색을 기울여야 한다.

오늘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한 단편소설들을 사상예술적수준이 높게 창작하는것은 매우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우리는 수령형상작품의 고유한 생리에 맞게 철학적무게가 실린 종자를 독창적으로 탐구하고 위대한 인간의 내면세계가 깊이있게 펼쳐진 품위있는 수령형상단편소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올해를 선군문학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난 혁신의 해로 빛내이기 위해서는 우리 문학의 인간학적품격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최근 우리 당에서는 문학예술작품에서 생활적이며 정서적인 산 인간의 형상을 감동깊이 창조할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시대 인간의 높은 혁명성과 뜨거운 인간성을 심오하게 그려내어 사람의 문화정서교양에 도움을 주자면 작품에서 딱딱한 정치적인 술어나 구호 같은것을 라렬하지 말고 현실에 있는 산 사람의 사상과 감정, 생활을 구체적인 화폭으로 생동하게 그려야 한다.》

문학은 사람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과 생활인식의 힘있는 무기로 될뿐아니라 문화정서교양의 좋은 수단으로 된다. 문학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고상한 생활정서를 안겨주며 그들의 문화성과 인간성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선군시대인간은 가장 아름답고 풍부한 감정과 정서를 체현하고있는 다정다감한 인간이라는데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우리

문학예술이 이러한 인간형상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창조할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쳐주시었다.

문학작품창작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의 선군위업을 가장 혁명적이면서도 정서적이고 낭만적인 인간들에 의하여 전진하고있다는것을 문학형상으로 힘있게 확증하는 여기에 우리 작가들이 탐구와 사색을 기울여야 할 기본과녁이 있다.

우리 작가들은 무엇보다도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펼쳐나가는 시대의 전형적인 인간은 고상한 정서와 낭만을 중요한 품성으로 하고있다는것을 성격형상을 통하여 생활정서적으로 보여주는데 창작적관심을 돌려야 한다.

돌이켜보면 당과 수령의 령도를 따라 총대로 주체위업을 만들어온 시대의 전형들은 고상한 정서와 낭만을 지닌 인간들이었다.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가요를 높이 부르며 원썬들을 무찌른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투쟁과 생활이 하나로 융합된 불굴의 투사들이었고 무비의 락천가들이었다. 가렬치절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군용사들이 불타는 전호가에서 화선악기를 만들어 승리의 개가 높이 미제를 타승할수 있는 것도 그들이 언제나 전투적이며 락천적인 투쟁기풍을 지니고 싸웠기때문이다.

우리 혁명의 승리의 력사는 높은 혁명적원칙성과 함께 풍부한 감정정서를 지닌 락천적인 인간들이 자기수령에게 끝까지 충실하며 혁명승리에 대한 철석같은 신념을 지니고 한몸을 바쳐싸우는 위훈의 창조자, 열렬한 애국자로 될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고상한 정서와 낭만을 지닌 선군시대 인간의 전형적인 성격을 창조함에 있어서 형상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또한 선군위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닌 그들의 정신적바탕을 옹계 그려내는것이다. 신념과 의지는 혁명적정서와 결합될 때 더욱 강한것으로 되며 최후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더욱 확고해진다.

선군위업은 죽음을 각오한 류레없이 간고하고 험난한 투쟁위업이다. 최후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이는 선군의 길에 나설수도 없으며 결사의 정신도 발휘할수 없다. 이러한 신념과 의지는 생활에 대한 립장과 태도에서 표현된다. 자기 생활에 대한 뜨거운 애착과 정서적감흥이 열렬하다는것은 그만큼 선군위업의 필승불패성과 그 양양한 미래를 확신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강계정신》과 장편소설 《열망》을 비롯하여 선군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수많은 작품들의 주인공들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고 언제나 선군위업의 미래에 대한 락관을 지니고 고난도 시련도 이겨내며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는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이었다.

메마른 땅에서 아름다운 꽃이나 알찬 열매를 바랄수 없듯이 정서와 낭만이 없는 사람은 인간의 참된 삶의 기쁨과 행복을 맛볼수 없으며 그들에게서는 신념과 의지도 나올수 없다.

지금 일부 작품들에서 선군시대 인간의 형상을 창조하면서 고상한 정서와 낭만을 성격의 바탕으로 깔아주지 못하고 간고한 시련을 극복하고 일해나가는것으로 일면적인 형상을 보여주거나 정치적인면만을 강조하는데로 기울어지고있는 측면들은 선군시대인간의 창된 면모를 옹계 파악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결함인것이다. 고상한 정서와 낭만이 없는 사람은 살뜰한 인정미와 동지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지닐수 없으며 간고한 시련속에서도 비판과 동요를 모르고 언제나 신심에 넘쳐 락천적으로 살며 투쟁해나갈수 없다.

선군시대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함에 있어서 우리가 형상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는 또한 고상한 정서와 낭만을 참된 애국심의 발현이라는것을 생활적으로 보여주는것이다.

선군투사가 되려면 먼저 애국투사가 되여야 한다. 선군은 애국이며 누구보다도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생결단의 총대를 들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킬수 있으며 강성대국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꽃피나갈수 있다.

애국심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나서자란 고향산촌과 부모처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의 감정에서 싹트고 자라나는것이다. 조국땅 이르는마다에 일떠선 모든 창조물들과 한 포기 풀, 한그루의 나무를 보아도 거기에 담겨있는 당과 수령의 위대한 령도와 고매한 품모를 뜨겁고 감동깊이 느낄줄 아는 다정다감한 사람만이 조국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영웅적위훈을 세울수 있는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가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그토록 사랑하며 즐겨부르는것도 이 노래가 조국의 아름다움과 귀중함을 풍만한 정서속에 깊이있게 형상하고있기때문이다.

우리는 문학형상을 통하여 생활을 창조하고 향유할줄 아는 사람, 웃음과 노래도 있고 눈물과 해학도 있는 사람만이 조국을 사랑해도 열렬히 사랑하며 원썬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슴을 불태울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야 한다.

선군시대의 전형적인 성격을 생활적으로 진실

하게 창조함에 있어서 창작실천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또한 고상한 정서와 랑만을 지닌 사람만이 창조적열정을 가지고 용기백배하여 선군위업에 충실할수 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보여주는것이다.

우리는 모든 문학형상에 노래소리 높은 곳에 혁명의 승리가 있고 정서와 랑만이 넘치는 곳에 열정과 신심, 용기와 기백이 넘친다는 사상감정이 뜨겁게 흐르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락관으로 비판을 이기고 랑만으로 절망을 짓부시며 보다 높은 창조적의욕을 가지고 왕성한 투지와 패기에 넘쳐 선군위업에 충실하도록 적극 고무하여야 한다.

선군시대 인간들의 고상한 정서와 랑만을 형상함에 있어서 시가문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은 특별히 중요하다. 우리 당의 선군령도는 독창적인 음악정치에 의하여 불패의 위력이 더욱 과시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생활적이며 정서적인 노래의 사상에술적기초를 이루는 가사창작에 누구나 다 열정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특히 우리 혁명의 현실적요구로부터 나서는 절실한 문제이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우리에게 대한 정치군사적고립압살과 경제봉쇄와 함께 반동적이고 퇴폐적인 부르조아사상문화의 침투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적들의 반동적사상문화적 침투책동에는 혁명적인 문화정서생활로 맞서는것이 사상문화분야에서의 공격전이고 강경한 대응책이다. 우리의 사상과 감정에 맞는 생활정서적인 노래, 특히 청년들이 즐겨 부를수 있는 랑만이 넘치는 생활적인 노래와 서정적인 노래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 시대를 장식할 때 우리 내부에 그 어떤 이색적이고 반동적인 잡탕문화가 스며들수 없다.

적들과의 첨예한 사상문화적대결전의 전초선에 우리 시가문학이 서있다. 우리 작가들은 높은 시대적사명을 가지고 생활적이며 정서적인 가사창작에 떨쳐나서야 한다.

조선로동당창건 60돐과 조국해방 60돐이 되는 올해를 선군문학창작의 새로운 양양이 이룩된 빛나는 해로 장식하기 위하여서는 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지금 우리 작가들은 당창건 60돐을 맞으며 진행하는 문학축전을 통하여 우리 문학의 전반적사

상에술적수준을 새로운 높이으로 올려세울 만만한 투지와 각오를 가지고 문학작품창작에 탐구와 사색을 심화하고 창작적열정을 끓이고있다.

우리가 벌리는 문학운동은 선군문학의 사상에술적수준을 인류문학에술사상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하기 위한 문학운동이며 세계속에 있는 조선이 세계를 향해 돌진해나가는 일대 변혁의 문학운동이다.

모든 작가들은 높은 창작적의욕과 자각을 안고 당창건60돐을 맞으며 진행하는 전국문학축전에 자신들의 창작계렬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작품을 내놓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문학작품창작은 주관적의욕과 의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창작은 창작적실력과 재능의 열매이다. 재능과 실력이 없이는 아무리 충성심이 높고 열성이 있다 해도 훌륭한 작품을 창작해낼수 없다,

모든 작가들은 창작적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실력전을 벌려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우리는 시대앞에 지닌 작가적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에 위대한 전변을 이룩해나가고있는 오늘의 현실을 뜨거운 공감과 열정을 가지고 깊이 체험하며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을 더 많이 형상함으로써 우리 문학을 명실공히 체험의 문학, 원형의 문학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한다.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혁명적군인문화가 온 사회에 퍼져가게 하여야 한다. 선군시대의 아름다운 정서생활은 인민군대에 의하여 창조되고 온 사회에 일반화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인민군대창작가들의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워 전투적랑만과 풍만한 생활정서가 차넘치는 문학작품을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창작해내야 한다.

새해공동사설을 받아안고 불타는 창작적열정에 넘쳐 붓을 달리고있는 우리 모든 작가들의 기세는 높고 신심에 가득차있다.

모두다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는 공동사설의 구호를 들고 모든 창작적열정과 탐구와 사색을 다 폭발시켜 올해를 선군문학건설에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승리의 해로 빛내여나가자.

〈단시 묶음〉

한해가 부른다

홍철진

춘삼월

아들은 프락뜨로운전수 머느리는 분조장
새벽별을 머리고 나간 이들 찾아
어머니는 량손에 아침밥 들고 별로 나섰소

정초부터 이 걸음 춘삼월로 이어져도
싫지 않은 심부름에 습관이 된 어머니
아, 가을은 벌써
어머니의 량손에서 자라고있었소

탄부의 약속

월계획을 넘쳐끝낸 자랑을 안고
꽃보라에 묻힌 아버지 향해
여섯살난 아들에 꽃목걸이 걸어주자
탄부는 아들덥석 끌어안았네
그리고는 가만히 귀속말로
-다음번엔, 이 꽃목걸이 석탄산에 걸어주자

기관사의 어머니

저 멀리서 기적소리 울려도

누구에게라 없이 자랑하는 기관사의 어머니
-내 아들의 목소리요
나라의 큰 짐을 지고 달리며
온 나라를 소리쳐부르는
아들의 대견한 그 목소리에
어머니는 한생 정이 들었소
작은 가슴도
이제는 하나의 역이 되었소

즐거운 새벽

새벽교대 마치고
퇴근길 오를 때면
새 아침을 여는 너인들의 모습인가
창가에서 하나 둘 불이 켜지네
그러면 발전소총각 마음 즐거워
밤새워 마련한 우리 인사 받으시라!
새해의 설인사도 우린 이렇게 했거니-
온 나라와 구면인
이 멧에 살아 휘-휘
총각이 부는 휘파람소리에
잠깁 새들이 이슬털며 날아나네

〈가사〉

정없이 못살아

김 석

아끼고 위하는 정 불같이 뜨거워
따르고 받드는 정 꽃처럼 붉게 피네
정으로 천만을 움직이는 우리 장군님
사랑과 믿음이 깊어가는 그 정없이 우린 못살아

정으로 시련많은 언덕을 넘어왔고
정으로 락원의 길 웃으며 열어가네

정으로 천만을 움직이는 우리 장군님
사랑과 믿음이 깊어가는 그 정없이 우린 못살아

불같이 뜨거웁고 꽃처럼 아름다운
정으로 일심단결 영원히 빛내가리
정으로 천만을 움직이는 우리 장군님
사랑과 믿음이 깊어가는 그 정없이 우린 못살아

땅과 농민 외 1편

리진철

겨울
흰눈속에 땅이 잠을 잡니다
그 땅우에 오만가지 꿈을 없으며
알알이 종자도 고르느라
흙도 구워내고 두엄도 장만하느라
농민 나는 잠들지 못합니다

봄
땅우에 봄김이 물물 피어오릅니다
겨우내 부푼 거름무지들
벌마다 가득히 뿔어올리는 흰김
그것은 농민의 후더운 체취
언제나 땅을 안고사는 농민의 품에 안겨
땅이 잠을 깨었습니다

여름
땅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쏟아지는 불볕에 등은 화락 젖어도
김을 맨 발고랑에 아지치는 소리 즐겁고
때아닌 비줄기 창가를 두드릴 때면
귀한 자식 잠자리 지키듯 밤을 새는 발머리

땀에 절고 비에 젖은 농민의 잔등에서
땅이 자랍니다

가을
땅우에 알찬 열매 무겁습니다
봄내 여름내 흘린 땀 바친 정
알알이 열매로 빚어 받아들여올린 땅
품들여 키운 자식
장한 일 마치고 내 품에 안기는듯!

성실하고 꾸준하고
미덥고 대견한 땅
그러나 땀에 젖은 손길 끊어지면
어머니의 젖줄기를 떠난
어린 아기와 같아

하기에 농민 나는 한생 내 지켜갈
땅때문에 애쓰고 웃으며
애오라지 모든 정 다 바치거니
아, 땅은 만물을 먹여살린다지만
농민 나는 그 땅의 어머니입니다

농민의 지게

몹시도 힘겨웠던
고난의 그 나날을 추억할 때면
농민 나의 추억속에
어이하여 지게
지게가 맨 먼저 떠오르는가

뚜지고 심고 가꾸는것이
농사이건만
어이하여 그 나날 나는
뚜지고 심고 가꾸는 일보다
지게를 더 많이 져야 했던가

겨우내 봄내
구운 흙이며 두엄을 저내가고
긴긴 여름내
작시미 몇개씩 갈아대며
산더미같은 풀단을 저들여오고

벗어선
뜨락또르결을 지날 때면
더더욱 땀끈을 조이던 지게

이제는 기름같은 농민의 땀 폭 배여
달빛에도 번들거리는 나의 지게

오, 곡식을 살리는 일보다
땅을 살리는 일이 더 중했던 그 나날
어느 하루도 벼을새 없었던 지게
땅에 쏟아붓는 농민의 애정을
무겁게 저나른 나의 지게여

하여 원썬들은 이 땅을
말리려 들었어도
나의 벌은 시들지 않았다
뜨락또르기름은 부족했어도
우리 땅은 나날이 기름기가 돌았다

그래, 목숨처럼 귀중한 선군임을 깨달아
정녕 나의 지게우엔
거름만이 실리지 않았다
죽어도 버릴수 없는 농민의 근본
땅! 땅을 지고 살았다!

봄, 그것은 나의 사랑입니다

김윤걸

밤교대 마치고 돌아오는 이 아침
사람들의 활기띤 얼굴마다에서
나는 나의 봄을 봅니다
밤새워 내 안아온 불빛아래서 행복으로 즐거웠던
사람들

일터로 가는 이들과 마주치는 이 맘엔
불이, 불이 더욱 밝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내가 덤힌 따스한 구들우에서 기지개 켜 아기
엄마의 단젖내나는 품에 안겨
아빠를 바래우고있습니다
미덥게 손짓는 아빠
이쁜 미래와 창조의 심장이
말없이 굳은 언약 나누고있습니다
사랑이 흐르고있습니다

밤새운듯싶은 과학자 저 젊은이
설계도 꼭 그려주고 달려갑니다
어둠을 감아내치며 돌던 나의 타빈이
창가마다 떠올린 불빛아래서
새 착상 무르익힌건 아닌지...
창창한 아침해 향해
뜨거운 심장이 고동치고있습니다

아, 진정 식어선 아니될
그 사랑의 맥박이 되어
밤새운 나의 땀이 흐릅니다

고난의 나날
우리의 피마냥 전류가 흐르던
활시위마냥 팽팽한 송전선에
진함없을 나의 사랑이 흐릅니다

봄,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 세상 제일 밝고 뜨거운 사랑입니다
세계를 놀래울 과학의 발명도
말없이 지켜선 사랑입니다
우리의 포신들의 머리
억세게 받쳐주는 굳센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의 이 두손에서 창조된다는것은
세상에 터치고싶은 자랑입니다
아아한 산정에 올라 소리쳐도
가슴에 솟는 이 긍지를 다 쏘지 못할듯 싶습니다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전선길 그 길에서도
야전차를 멈추시고
불밝은 산촌마을 바라보시며
그리도 밝게 웃으시던 모습
삼삼히 어려와
붉은기와 불이 한빛임을
새삼스레 깨닫는
아, 이 아침입니다

<가사>

두벌농사 흥이로세

최인덕

기러기떼 날아에는 계절에만 가을걷이 있다더냐
종달새 우짖는 봄날에도 가을걷이 기쁨일세
아 내 나라는 한계절에 씨뿌리고 열매맺네
장군님사랑속에 두벌농사 흥이로세

새로 넓힌 드넓은 땅에서 씨뿌리기 한창인데
밀보리 설레는 들판에선 가을걷이 한창일세

아 내 나라는 한계절에 씨뿌리고 열매맺네
장군님사랑속에 두벌농사 흥이로세

천년세월 대대로 지어오던 농사법도 달라지고
선군시대 풍요한 땅에선 두벌농사 생겨났네
아 내 나라는 천지개벽 세월을 맞이했네
장군님사랑속에 두벌농사 흥이로세

돌격대의 새벽

김정경

기상!-
고요를 깨뜨리는
직일관의 담찬 웨침소리에
병실마다 펄쩍 뿜어번진다
잠자리를 박차는 소리
뜨락을 쿵쿵 구르는 소리
순간에 패기로이 일어서는
새벽의 음향

《차렷!》
돌격대는 첫 일파를 펼치는구나
구보의 억센 발구름 발구름
번뜩이는 이마들이
툭툭 어둠을 받아제긴다
《결사관철》의 힘찬 구호
기세충천 내뿜는다

《차렷!》

이것은 그대들
젊은 혈기를 터쳐
조국에 드리는 새벽의 첫 인사
《결사관철!》
이것은 그대들
불붙어 열렬한 젊은 가슴이
장군님께 드리는 청춘의 선서

또 하루
투쟁의 날로 용용히 일어서는 새벽이여!
너는 해를 따라 서서히 오지 않는구나
언제의 구조물에 기증기우에
화들짝 튀겨나는 새무리 새무리
동녘도 서둘러 황황 타는 불노을
청춘의 활기론 기백과 담력에
우여차, 일떠서는 돌격대의 새벽이여!

-백마-철산물길공사장에서-

기다리노라

리진협

잠자고나면
통일의 날도 그렇게 울듯
그렇게 오지 않았느냐 문득
끊어진 길이며 철길 잇는다는 소식이
철길이며 도로를 이었다는 소식이

기다려지노라 그 아침들처럼
통일의 날도 그렇게 오리라는 이 믿음
하여 멀리 웃음소리에든 가슴 쿵쿵 뛰고
시간을 알리는 방송소리에든 울렁이는 마음

기다리노라 그렇게
림진강철교를 흔드는 통일열차소리
분렬장벽을 넘어 통일이 오는 발걸음소리를
활개치며 집집의 문을 열 그 소식들을

그렇게 오고야 말 통일!
긴긴 겨울밤이 지나간 새 아침처럼
정말 잠에 든 어느 밤에라도 문득 찾아와
얼싸안아 일으켜 그 아침길로 불러줄 통일!

이제는 눈앞에 뚜렷한 통일!
민족자주공조로 그 모습 가깝고
반전평화공조로 그 숨결 들려오며
통일애국공조로 그 열기 후더워

오, 오! 숨가쁘게 기다려지는 그 아침 가까이
7천만은 어깨결고 새벽길 다그치거니
《우리 민족끼리》 펼쳐가는 통일새날우에
삼천리는 하나의 모습으로 솟아오르리라!

양덕땅에 깃든 전설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주체27(1938)년 8월 국내깊이에 있는 양덕땅에까지 나오시여 이곳 지하비밀근거지사업을 지도하시였다.

양덕지구에 파견된 소부대성원들과 지하혁명조직성원들은 사령관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을 높이 받들고 도처에서 원썬들을 습격소탕하여 공포에 떨게 하는 한편 인민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조국해방에 대한 신심을 높여 주었다.

그리하여 양덕군 락천면주재소가 하늘로 날아가는가 하면 련이어 내물면주재소가 죽탕이 되고 양덕역과 상신리일대에서 적의 군수렬차가 나뒹굴어 풍지박산이 되었으며 신평군과의 경계점인 지경고개에서 20여명의 군경을 태운 군용트럭이 습격을 당하여 전멸되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양덕군 북대봉, 남대봉일대와 신평군 하람산일대를 선회하며 《공중정찰》을 하던 《황군》비행기가 《정체모를 사람들》의 사격을 받고 산속에 곤두박쳐 원썬들을 전멸케하고 인민들을 법석 끓게 하였다.

처서군들과 솥을 굽는 사람들은 산속을 다니다가 껌질벗긴 나무에 새긴 《**김일성**령수 만세》를 비롯한 수많은 구호들을 자주 보곤 하였다.

방금 껌질을 벗겨서 속살이 하얀 나무에 새까만 참먹을 갈아서 또박또박 새긴 글발을 가슴에 받아안은 사람들은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흠모의 마음에 힘싸이곤 하였다. 실로 온 양덕땅이 폭풍을 안은 바다처럼 술렁거렸다.

이런 속에서 **김일성** 장군님을 칭송하는 전설들이 수없이 창조되었는데 그중 하나를 아래에 소개한다.

양덕땅 북대봉밑에 살고있는 황군복이라는 농민이 어느날 약초를 캐서 쌀되박이라도 사다 먹으려고 산속으로 들어갔다.

산삼이나 백봉령같은 값나가는것들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헤매던 군복은 큰 나무뒤에서 총을 멘 군대 하나가 불쑥 나타나는 바람에 하마트면 뎡이를 떨어뜨릴뻔 했다.

《당신은 누구요?》

총을 멘 젊은 군사가 날카로운 눈길로 군복이 쪽을 살피며 물었다.

군복이는 사지가 와들와들 떨리고 가슴이 얼어

들었다. 이런 깊은 산속에서 총을 쏜 군사를 만났으니 왜 겁이 나지 않겠는가.

그는 이 산밑에 사는 농군인데 약초를 캐러 왔다고 떠듬거리며 대답하였다.

군사는 잠시 군복이의 아래우를 살피더니 총을 어깨에 메며 이렇게 말하였다.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군사의 말에는 친절이 풍겼다. 아무리 눈여겨보아도 처음보는 군대인데 왜놈군대와와는 첫눈에 판판 다르다는것이 알렸다. 군복차림새도 전혀 달랐지만 사람을 대하는 품이 하늘과 땅차이였다.

왜놈군대나 경찰은 두마디안팎으로 큰소리를 치고 찍하면 따귀를 치고 발길질을 하였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는 사죄같은것은 애당초 꿈에조차 생각못할 일이었다.

군복이는 얼마간 마음이 놓여서 약초를 캐러 여기까지 들어오게 된 사연을 간단히 설명하였다.

이야기를 듣고있던 군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미안하지만 저하구 같이 가야겠습니다. 절대로 겁내지 마십시오.》

(도대체 어디로 데리고 가는것일가?)

군복이는 친절히 대해주는 군사를 따라가면서도 별별 생각을 다하였다.

문득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군복이는 저도 모르게 긴장해졌다.

조금 더 따라가니 웬 군사들이 총도 다루고 대렬훈련도 하는 모습이 보였다. 또 어떤 곳에서는 월참인듯 군사들이 모여서 떠들썩 웃어대는 모습도 보였다.

(여기가 어디일가?)

군복이는 궁금증이 나서 견딜수가 없었다.

어느 귀틀집앞에 이르자 군복이를 데려온 군사가 그곳으로 들어갔다.

곧 그 군사가 다시 나오더니 군복이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 귀틀집안에 여러명의 군사들이 앉아있었다.

그중 한사람이 군복이를 보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안됐습니다. 미안한 부탁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며칠동안 중

요한 회의를 하기때문에 그러니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디 가지지 말고 여기서 며칠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복은 이렇게 되어 이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하루를 보낸 다음날 아침이었다. 근복은 하는 일없이 들여보내는 밥만 축내자니 정말 갑갑증이 났다. 어떤 때는 더럭 무서움도 들었다. 혹시 이 친절한 군대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는 않겠는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할수 없었다. 여기에 이렇게 끌려온 몸인데 ...

《사령관동지, 바로 이곳입니다.》

이때 문밖에서 누군가의 이런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문이 열리더니 한분이 방안으로 들어서서 이것이었다.

순간 근복이는 솟아오르는 태양을 마주한듯 한 느낌이 들었다.

만면에 햇빛같은 미소를 담으신 젊은분이 서계시었던것이다.

분명 솟아오르는 태양같으신 그분이 다정하게 숨을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몹시 놀랐겠는데 미안하게 뻤습니다.》

존안에 웃음을 담으시니 금시에 천지가 밝아지는듯했다.

(룡궁도 천궁도 아닌 깊은 산중에 이렇듯 뛰어난 영결이 계심은 어찌된 일인가? 양덕땅에 북대봉, 남대봉이 높이 솟아 하늘세상에서 신선들이 내린다는 전설이 있더니 진정 하늘에서 내려오신 천출위인이 분명토다!)

근복이의 가슴은 끝없이 설레이고 마음은 더없이 승엄해지고 경건해졌다.

이 순간 근복에게는 하늘에서 태양이 비쳐 세상천지가 밝아지는것이 아니라 《사령관동지》라고 부르는 이분이 계셔서 광명천지가 있는것처럼 생각되었다.

《사령관》어른은 집안식구들은 몇이며 살림형편은 어떤가고 차근차근 물으시더니 왜놈세상에서 고생이 많겠다고 걱정해주시였다.

웅이가 박이고 터갈라져서 손이라기보다는 나무갈구리같은 자기 손을 따듯이 쓸어주시며 친부모도 다할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근복이는 솟구치는 눈물을 참을수 없어 마음속으로 이렇게 웨쳤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고생으로 말하면 제 고향, 제 집을 떠나서 하늘을 지붕삼고 땅바닥을 구들삼아 풍찬로숙하는 군대어른들에게 비기겠소이까? 고작은 지붕밑이라도 제집 지붕밑

이고 헐어빠진 노전에 허리를 펴도 제집 아래목에 누울수 있는 우리들을 오히려 생각해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소이다!)

이때 《사령관》이라는분이 함께 들어온 사람에게에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로인을 데리고 오면 집에서들 얼마나 기다리며 걱정하겠는가. 또 이 로인은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러면 안된다, 우리는 인민을 믿고 혁명을 시작한것만큼 인민을 끝까지 믿어야 한다...

그렇수록 근복은 더욱 황송해지기 시작하여 몸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산에 며칠 제실 예정이었습니까?》

《사령관》이라는분이 근복이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에야 근복은 제 정신으로 돌아왔다.

《예, 한 사나흘 말미를 가지고 떠났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꼭 놓으시구 한 사나흘 쉬십시오. 정 심심하고 갑갑하면 장기도 두시고... 장기를 돌줄 압니까?》

근복은 마치도 친부모앞처럼 마음이 스스럼없어져서 어려움도 감감 잊고 장기라면 누구한테도 지지 않겠노라고 흰목을 뽑았다.

《허허... 그러면 뻤습니다. 마침 우리한테도 장기를 몹시 즐기는 동무가 하나 있는데 보내주겠으니 한번 마주앉아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근복이는 이곳에서 사흘동안이나 묵게 되었다.

숲속에는 귀틀집이 여러채나 있었다.

근복이를 이곳으로 데려온 군사가 장기판을 들고 싱글벙글 웃으며 나타났다.

《귀틀집마을》에서는 근복이를 귀한 손님처럼 잘 대접하였다.

노루고기가 상에 오르는가 하면 꿩고기, 토끼고기도 차례졌다.

저녁이면 오락회라는걸 벌려놓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근복이를 기쁘게 해주었다.

근복이는 아침마다 여러명의 군사들이 뺑이를 들고 약초를 캐러 떠나는것을 보았다.

(아마 군대에도 환자들이 있어서 약초를 캐는 모양이구나.)

근복이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어느덧 사흘이 지나갔다. 《사령관》이라는 어른이 근복이를 찾아왔다.

《그동안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집에서들 몹시 걱정하겠는데 이제는 돌아가보십시오. 이곳에서 보고 들은것은 일체 비밀에 붙여주십시오. 왜놈들의 귀에 들어가면 안되니까요.》

이렇게 당부하신 《사령관》 어른께서는 변변치 못하지만 성의로 알고 받아달라면서 돈 50원을 내놓았다.

근복이는 그만 당황해서 팔을 내저으며 뒤걸음질을 쳤다.

황소 한마리값이 넘는 돈을 어찌 선뜻 받는단 말인가!

그러나 《사령관》 어른께서는 끝내 돈을 근복이의 손에 쥐여주고는 한 군사에게 이렇게 령을 내리시었다.

《동무들이 그동안 캔 약초도 가져오시오.》

그러자 그 군사가 달려가 약초구력을 가져왔다. 거기에는 팔뚝같은 산삼과 사발만큼씩한 백봉령 따위가 가득 들어있었다.

《그동안 약초를 못캐서 손해가 약차하겠는데 이것도 가지고 가십시오. 우리 동무들이 캔것입니다.》

《사령관》 어른께서는 약초구력을 근복이의 앞에 내놓으시었다.

근복은 그때에야 군사들이 무슨 까닭에 매일같이 약초를 캐러 떠났는가를 깨달았다,

(아! 이런 고마운분도 있단 말인가!)

근복이는 눈물이 솟구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세상 만물에게 생명을 주고 광명을 주고 따뜻한 열을 주어 보살피는것이 하늘의 해라면 자기와 같은 가난한 농군을 이처럼 따듯이 보살피주고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이분은 만백성의 태양이라고 근복이는 확신했다.

(이분이 뉘실가? 혹시 **김일성** 장군님이 아니실가?)

이런 생각이 든 근복이는 깊숙이 머리를 숙여 인사를 올리며 청을 드렸다.

《너무도 크나큰 은총을 받고보니 그 고마움을 무엇이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황송하오나 하늘같은 은인이 뉘신지 알고싶소이다. 만일 명함 석자도 알지 못하고 이런 큰 은혜를 입는다면 죽어 눈을 감는 날까지 어찌 바보소리를 면하겠습니까?》

《허허...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집 사고 전답을 마련할만큼 보태드리지도 못하고 겨우 인사차림이나 하자구 드린걸 가지구 은혜요 뭐요 할게 있습니까? 이제 나라를 찾으면 잘살게 될터이니 그때 가서 옛말하며 잘 살아봅시다.》

《사령관》 어른은 근복이의 손을 꼭 감아주시었다.

근복이는 그이를 눈물어린 눈으로 우러러 보았

다.

《사령관》 어른은 분명 해님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근복이는 자나깨나 그 해님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그 해님은 틀림없이 **김일성** 장군님이실거라고 확신했다.

그의 이런 생각은 그후 어느날 명백해지게 되었다.

그날 근복이는 《사령관》 어른이 준 50원으로 사다맨 동글황소한테 달구지를 메우고 장작을 가득 실었다. 그리고는 코노래를 흥얼거리며 양덕 장마당으로 향했다. 산속에 들어가 약초나 캐서 살림을 보태던것이 소가 생겼으니 이제는 신선놀음이었다. 그래서 저절로 코노래가 나왔다.

양덕읍에 이른 근복이는 이미 약초가 되어있는 《양덕음식점》에 나무를 부렸다. 그리고는 점심을 먹으려고 안으로 들어갔다.

순간 그는 그 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뜻밖에도 산속의 《귀틀집마을에서 뵈왔던 사령관》 어른이 신사옷차림을 하고 1등칸 식탁에 앉아 계셨기때문이다.

《사령관》 어른은 첫눈에 근복이를 알아보고 가볍게 눈인사를 보내시었다.

그 차림새로 보나 용모로 보나 세상에 보기드물게 출중한 인품이어서 군경찰시장이나 군수따위는 말할것도 없고 서울에서 온탕을 하러 왔다는 왜놈나부랭이들까지도 기가 눌리고 주눅이 들어서 1등칸에는 코도 들이밀 생각을 못하고 2등칸으로 쫓겨가고말았다.

(어떻게 저분이 여기에 와계실가?)

근복이는 너무도 뜻밖이어서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하늘님같은 은인을 만났는데도 와락 달려가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저 낮선 사람처럼 처신을 하자니 죄송스럽기 그지없고 안타까와 견딜수가 없었다.

이때 음식점주인이 들어와 그이께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며 무엇을 더 요구하실게 없는가고 말씀을 여쭙었다.

《잘 먹었습니다. 양덕의 국수맛이 참 별맛입니다.》

《사령관》 어른은 음식점주인에게 인사를 하고는 천천히 밖으로 나가시었다.

《안녕히 다녀가십시오.》

음식점주인이 인사를 할 때 근복이도 마음속으로 함께 인사를 올렸다.

《저분의 성함이 무엇이랍디까?》

근복이는 《귀틀집마을》에서 알아내지 못했던 은인의 성함을 혹시 여기에서 알아낼수 있을가 하여 음식점주인에게 슬그머니 물었다.

호랑이를 본 강아지 마루밑에 기여들듯 옆방으로 쫓겨가서 모가지를 움츠리고 말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처박혀있던 군수, 경찰서장따위의 나부랭이들도 방금 나간 《고관》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우르르 밀려와 음식점주인을 둘러쌌다.

《저도 방금 알았는데 백두산대장수 **김일성** 장군님이랍니다.》

음식점주인의 대답이었다.

《**김일성** 장군님?!...》

모두의 입에서는 놀라운 소리가 합창으로 튀어나왔다.

(아, 그분이시였구나!)

근복이도 마음속으로 탄성을 터치고는 이렇게 탄식하였다.

(하늘도 무심하구나! 만백성의 해님이신 **김일성** 장군님을 존전에 마주앉아 하늘같은 은총을 받아안으면서도 눈이 어둡고 불민하여 미처 알아뵈지 못했으니 청청대낮에 해를 알아보지 못했던들 이보다 더 한심하랴.)

왜놈들도 얼흔이 빠져서 한참이나 멍청해있다가 뒤늦게야 정신을 차리고 헤덤벼치기 시작하였다.

경찰서가 불난 집처럼 발각 뒤집히고 평양주둔군 77연대산하본전대가 긴급출동을 하고 양덕역에 멈추어 서있던 군수열차에서 천여명의 군졸들이 쏟아져내려 《수색작전》에 합류를 하고... 어쨌든 손바닥만 한 양덕읍 일판에는 왜놈군경이 구데기끓듯 하였다.

얼마후에야 근복이는 와들쭉 놀라서 음식점에서 뛰어나왔다. **김일성** 장군님의 신변이 걱정되었기때문이었다.

태연스럽게 걸어가시던 장군님께서 역 기다림칸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 보였다.

근복이는 다급히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어느새 역사둘레를 왜놈군경들이 겹겹이 에워싸서 접근할수가 없었다.

(이 일을 어쩌면 종단 말인가.)

근복이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데 기다림칸에 들어가신 장군님께서는 이런 급한 사정을 아

시는지 모르시는지 책만 읽고계시었다.

왜놈들은 포위망을 한치한치 조였다.

그래도 **김일성** 장군님께서는 태연하시었다.

그러더니 왜놈들이 앞뒤문을 박차고 뛰어드는 순간 책을 탁 덮으시었다.

이와 동시에 장군님의 모습은 종적을 감추고말았다.

왜놈들은 말할것도 없고 기다림칸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이 둥그래서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혼맹이가 쑥 빠진듯 멍청해져서 장군님께서 앉으셨던 좌석을 바라보던 왜놈들은 이윽해서야 우르르 밀려들어 결상밀도 들여다보고 기다림칸 구석구석을 뒤져보기도 하며 돌아쳤다.

이때였다.

《저기 계신다!》

밖에서 환성이 터졌다.

가다림칸을 뒤흔든 왜놈들은 물론 손님들까지도 몽땅 밖으로 밀려나왔다.

사람들이 고개를 젓히고 올려다보는 하늘중천에는 구름우에 우뚝 서서여 웃고계시는 장군님의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은 틀림없이 만리창공에서 빛을 뿌리는 밝은 태양이시었다.

왜놈들은 하늘을 쳐다보다가 공포에 질려 뒤로 벌렁벌렁 주저앉아서 가재걸음을 치고 우리 백성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 우러러보고 또 보았다.

근복은 사람들과 함께 하늘에서 웃고계시는 **김일성** 장군님을 우러러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웨쳤다.

《어리석은 놈들아. **김일성** 장군님을 어찌보겠냐는건 하늘의 해를 잡으려는거나 같은거다. 하늘의 해는 절대로 잡을수 없어!》

이것은 하늘을 우러러보는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심정이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하늘의 태양을 바라보며 **김일성** 장군님을 생각하곤 하였다. 그들은 하늘의 태양이 영원한것처럼 **김일성** 장군님은 조선의 태양으로 영원할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지흥길

영생하는 작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품에 안겨 작품창작으로 한생을 빛내이고 오늘도 그 품에서 영생하는 작가들중에는 4.15문학창작단의 한 작가도 있다.

남반부에 고향을 두고 위대한 수령님을 그리도 흠모하여오다가 전화의 날에 병사로 초소에 섰던 작가는 그후 전쟁의 나날을 추억하여 중편소설과 장편소설 그리고 혁명전통주제의 장편소설을 썼다.

열정은 높고 열망도 높았으나 아직 몇편의 소설을 썼을뿐 기량도 정치적식견도 모자랐다.

1960년대 중엽, 작가들은 리론실천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딱히 몰랐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한 혁명문학은 과연 어떤 문학으로 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작가도 모대기고있었다.

그러한 때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심오한 과학적통찰력과 비범한 예지로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이 걸어온 전력사적로정과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의 전반실태를 헤아리시여 우리 문학이 주체문학으로서의 완벽성을 갖추도록 근본문제를 밝혀주시었다.

그것은 수령형상창조를 핵으로 하는 혁명문학의 새로운 개척이었다.

작가는 탄성을 올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를 처음부터 수령형상창조사업에 망라시켜주시고 영예로운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작가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장편소설로 옮기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소설로 옮기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밝혀주시며 한걸음한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실로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장편소설로 옮기는 과정은 작가에게 혁명문학작가로서의 걸음걸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과정이었다.

작가는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을 하나하나 써내는 과정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를 받으며 혁명문학소설가로서 높은 경지에 오를수 있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인 《고난의 행군》, 《두만강지구》, 《대지는 푸르다》,

《봄우뢰》 등 작가가 쓴 장편소설 하나하나가 명작으로 될수 있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 때 편마다에 돌려주신 지도와 이끄심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은 위대한 스승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느 소설 하나도 자신의 지도와 손길이 미치지 않은것이 없건만 작가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여 분에 넘치는 표창을 주시었다.

《**김일성**훈장》, 《**김일성**상》을 비롯한 각종 수훈과 로력영웅의 금메달까지 가슴에 달아주시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내세워주신 그 은정을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작가를 4.15문학창작단의 책임일군의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시는 크나큰 신임을 인겨주시었다.

뿐만아니라 작가가 몸이 약하다는것을 아시고 자주 희귀한 고약약들을 보내주시였으며 어떤 때는 그에게 룽용을, 어떤 때는 산삼을 보내주시기도 하시었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끝없는 믿음은 고귀한 자양분이 되어 그의 정치적생명을 빛나게 하였으며 작가의 심장을 언제나 청춘의 활력으로 고동치게 하였다.

주체76(1987)년 4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로 건설한 4.15문학창작단 청사에 나오시여 돌아보실 때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작가의 인사를 받으시자 무척 반가와하시면서 그사이 몸이 좋아진것 같다고 하시었다. 이날 작가의 안내를 받으시며 청사를 돌아보시며 걸린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떠나가실 때 작가는 어려움도 잊고 작가들이 장군님을 모시고 가르치심을 받고 사진을 찍고싶어 한다는 소망을 말씀드리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창작실에 갖추어줄것을 다 갖추어준 다음 다시 나와 뽕운동기가 제대로 돌아가는것도 보고 작가들도 만나보면서 창작실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떠나시면서 차안의 한 일군에게 그 작가가 몸이 좋아진것이 무엇보다도 기쁘다고 거듭 말씀하시었다.

작가는 그후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기들의 창작

실에 모실 그날을 그리며 낮과 밤이 따로없이 창작의 붓을 달리고 또 달리였다.

그러던 작가가 그만 불치의 병이 악화되어 원고지를 안고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이름있는 의사까지 불러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자주 작가의 병상태를 보고받으시고 겨울에 남방과 일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온갖 귀한 약이란 약은 다 쓰도록 해주시였다.

끝내 작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을 보내주시고 신문에 부고를 내도록

해주시였으며 문학예술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나라 주재 각국 대사관 문화참사들까지 조의에 참가하도록 해주시였다.

그리고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해주시였다.

이것이 어찌 이 한 작가에게만 베풀어주신 영광이라.

정녕 작가들 한사람한사람에게 기울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실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은 우리 작가들이 삶을 빛내는 영생의 품이다.

□혁명설화□

몸소 문수봉에 오르신 사연

주체36(1947)년 봄,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문수봉에 오르시였다.

그때 문수봉은 말이 아니였다. 여기저기 다박솔포기들과 아직도 잎이 피지 않은 아카시아나무들만이 들성들성 서있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름그대로 비단에 수를 놓은듯 아름답다고 불리워온 문수봉은 옛모습을 도저히 찾아볼수가 없었다.

벌거숭이된 문수봉을 바라보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심중은 참으로 쓰리고 아프시였다.

어머님께서서는 변변한 나무 한그루 없는 이 문수봉만 보아도 지난날 일제놈들이 얼마나 악착하게 우리 나라의 산림자원을 약탈해갔는가를 잘 알수 있다, 일제는 우리 나라의 온 강산을 황폐화시키고 가는 곳마다에 이처럼 군사시설물들을 만들어놓았다, 우리는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 많이 심어 벌거숭이가 된 조국의 모든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여 일제식민지통치가 남겨놓은 후과를 가셔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원쑤 일제에 대한 치솟는 증오를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더욱 불태우시였다.

온 나라 강산을 푸른 숲으로 뒤덮게 하실 숭고한 뜻을 더욱 깊이 새기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날 동행한 일군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시면서 나무모는 자기 방향대로 심어야 한

다고, 그래야 나무가 모살이를 오래 하지 않고 인차 뿌리를 내릴수 있다고 하시며 나무심기에서 나서는 기술규정의 요구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였다.

나무심기가 시작되어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 때 그이께서는 뿌리뚫어진 나무모를 집어드시고 조국의 모든 산들에 나무를 다 심자면 나무모가 많아야 한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한그루의 나무모라도 상하지 않게 정히 심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윽하여 어머님께서서는 그전에 들으니 상한 뿌리에 진흙을 발라심으면 잘 살아난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여 한그루의 나무도 죽이지 말자고 하시며 친히 뚫어진 나무모에 진흙을 발라 정성껏 심으시였다.

온 나라 강산에 푸른 숲 설레이게 하실 애국의 숭고한 뜻 안으시고 문수봉에 거룩한 자욱을 새기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그날의 모습은 21세기의 사회주의진군길을 힘차게 다그쳐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을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더욱 불타게 하고있다.

오늘도 문수봉의 푸른 숲 설레이소리에 귀기울이면 **김일성** 장군님께서 지피올리신 봉화따라 해마다 나무를 많이 심으면 멀지 않아 온 강산은 푸른 숲으로 뒤덮게 될것입니다라고 하시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그날의 말씀이 들려오는듯싶다.

세기의 령장

디파끄 샤르마

김정일장군

그분의 전선시찰소식을 듣고
유럽의 한 국방상은 놀랐다

그분의 군사저서를 읽은
라틴아메리카의 한 군사평론가는
탄복했다
-과시 현대전의 령군술을 체현하신
희세의 명장이시다!

불의와 정의
예속과 자주가 판가름하는 오늘
위도와 경도를 넘어 퍼져가는
김정일장군에 대한 격찬이여

지나온 현대전쟁사를 펼쳐보라
미국의 수십만대군의 오만한 위협을
총 한방 쏘지 않고 통쾌히 눌러버린
탁월한 지략이 어느 갈피에 있었던가

동서고금 병서를 다 뒤져보라
철의 의지로 불패를 확신하시는
백승의 거장이신 **김정일**장군
무비의 그 담력을
무엇으로 풀수 있었던가

오만한 제국주의자들
악랄한 압력과 봉쇄로
《사회주의종말》을 떠들어도
천출명장의 령도를 받는
조선의 사회주의는
불패의 철옹성이거니

세상에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군대는 많아도
조선의 인민군대처럼
위대한 사령관을 모신 군대
어데 있으랴

한때 불패의 위력을 자랑하던 군대도
위대한 령장을 모시지 못하여
당이 숨져가도 지켜내지 못하고
나라가 무너져도 받들지 못했거니

령장이 없으면

수천수만의 총대도
조문은 있어도 파역을 모르는
한날 부지깽이

령장의 손길 없으면
수천수만의 병사도
방아쇠는 있어도 당길줄 모르는
넋없는 허수아비

혁명이 새긴 이 교훈
시대가 찾은 이 진리
조선인민과 인류는 사무치게
깨달았어라
그래서 **김정일**장군을
높이 모시였어라

한번 안으시면
평범한 사람들도 영웅이 되고
비범한 손길 드시면
충암절벽도 천험요새로 만드시는분

행성우에 떠도는
불구름을 가셔주시는
영원한 행복과 평화의 수호자
이름만 들어도 천만대적 전를하는
세기의 령장 **김정일**장군

력사의 장군을 맞이한 기쁨안고
반제반미전구들에 감격의 환성높아라
-반미전선의 사령관 그이 모시여
조선의 발굽아래
제국주의아성은 무너지리라

김정일

그이는 승리의 상징
그이는 시대의 장군
영원히 빛날 세기의 령도자

세기를 이어온
숙망을 안고 신심을 안고
정의로운 인류는 더운 목청 합치노라
- 《인터나쇼날》로 시작된 세계혁명은
《**김정일**장군의 노래》로 율승하리라

(필자는 네팔청년시인연단 위원장임)

병사와 조국의 하늘

병사의 조국애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그에 대한 뜻깊은 일화가 있다.

주체87(1998)년 3월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국의 바다를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 어느 한 해군군부대를 찾으시였다. 이날에도 그이께서는 해병들의 생활 조건부터 세심히 료해하시면서 식당과 교양실을 돌아보시고 해병들의 침실을 찾으시였다.

군함의 양지바른 곳에 자리잡고있는 침실은 무척 아늑하고 깨끗하게 꾸려져있었다. 따스한 잠자리에는 침구들이 가끈하게 정돈되어있었고 해빛이 잘 드는 방안에는 생활비품들도 다 갖추어져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만족하신듯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침실이 훌륭하다고 치하하시였다. 해빛 밝은 조용한 여기서 한잠 푹 자고나면 해병들이 기운이 부쩍 솟을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동행한 일군들도 훌륭한 침실조건에 감탄을 표시하였다.

그런데 침실을 유심히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침대와 창문을 번갈아보시면서 웬일인지 안색을 흐리시는것이였다. 일군들은 영문을 몰라 침대쪽을 한동안 뜯어보았다.

아무리 살펴봐도 흠집을 찾을수가 없었다. 그러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침대를 잘못 놓았다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침대머리가 창문쪽에 놓여있기때문에 해병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맞은편 바람벽부터 보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병사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조국의 밝아오는 하늘을 볼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그래야 기분도 좋고 아름다운 아침노을을 바라보면서 조국산천에 대한 사랑과 조국을 지켜싸우는 병사의 삶에 대한 긍지도 가슴깊이 간직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함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해병들에게는 맑고 시원한 하늘이 제일 그리울수 있으니 머리가 벽쪽에 가도록 침대를 돌려놓아 눈을 뜨면 하늘부터 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뜻깊은 말씀, 현명한 가르치심이였다.

동행한 일군들은 경탄에 휩싸여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보았다.

병사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조국의 밝아오는 하늘을 먼저 보게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속에는 조국과 병사라는 숭고한 애국의 세계, 위대한 사상과 의지가 비껴있었다.

조국애, 그것은 조국을 위해 총을 잡은 병사의 넋이며 삶과 위훈의 원천이다. 경애하는 장군님

께서 일찌기 가르쳐주신것처럼 조국애가 없는 병사의 손에 쥐여진 총은 막대기만도 못하다. 나사자란 조국산천에 대한 뜨거운 애착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닐 때에만 병사는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고 삶을 영웅적으로 빛낼수 있다. 그러한 병사에게 있어 조국의 맑은 하늘은 얼마나 뜻깊고 소중한며 아름다운것인가.

병사들은 맑고 푸른 그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떠나온 고향산천과 부모형제 그리고 그 하늘아래서 흘러간 행복한 유년시절과 학창시절을 생각하게 된다. 초소의 밤 못별이 총총한 그 하늘에서 정다운 얼굴들을 그려보면서 자기를 키워준 당앞에, 조국앞에, 고향앞에 자기를 세워본다. 진정 조국의 맑고 푸른 하늘은 병사에게 있어서 자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조국의 눈빛이며 량심의 거울인것이다 하기에 오늘 우리 병사들이 투쟁하고있는 곳마다에서는 당이 준 과업을 수행하기전에는 조국의 하늘을 뚫듯이 바라볼 권리가 없다는 심장의 목소리가 높이 울리고있는것이 아닌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병사들의 침대를 밝아오는 조국의 하늘을 바라볼수 있게 창문을 마주 향해 놓도록 하신것은 바로 우리 인민군군인들이 간직하고있는 그 고결한 정신과 지향, 심리정서를 누구보다 깊이 파악하고 소중히 여기고계시기 때문이며 병사들의 심장속에 조국애의 그 아름답고 고귀한 사상감정을 더욱 깊이 심어주고 싶으시여서였다.

방금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교양실에서 책걸상의 위치를 바로잡아주신것도 그러한 의도에서였다. 교양실에는 한쪽벽을 따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도록판과 벽보, 전투속보를 비롯한 직관선전물들이 걸려있었다. 그런데 그밑에 책상, 걸상이 놓여있기때문에 직관물을 가까이 가서 보기가 불편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그것을 한눈에 헤아려보시고 책상을 옮겨놓고 길을 내여 병사들이 가까이에서 보면서 혁명적이며 애국주의적인 사상감정을 깊이 간직할수 있게 하라고 일깨워주시였다.

술한 지휘관들이 이곳을 다녀갔지만 그 누구도 포착하지 못한 문제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처럼 순간에 꿰뚫어보시고 바로잡아주신것은 그이께서 누구도 따를수 없는 특출한 세심성과 통찰력, 감각력을 지니고계시기때문만이 아니였다. 그것은 인민군군인들을 무한히 아끼시며 그들을 당의 참된 혁명전사로, 열렬한 애국자로 키우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빛발이였다.

전시가요 《샘물터에서》에 대하여

가요 《샘물터에서》(최로사 작사)는 창작된지 50여년이 흘렀지만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있다.

이 노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우리 인민들속에서 높이 발현된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형상한 가요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나온 노래 <샘물터에서>는 지금도 많이 불리우고있는데 그것은 그 노래가 군중성이 있고 생활을 실감있게 반영하였기때문입니다.》

준엄한 전화의 나날 18살의 꽃나이에 김일성종합대학의 정다운 교정을 떠난 시인은 곧 인민군대에 입대하였다.

그는 총을 메고 최전선으로 나갈것을 탄원하였지만 조국은 그에게 자그마한 위생가방을 메워주었다. 하여 전선동부의 어느 한 야전병원에서 간호병으로 복무하던 그는 어느날 부상병을 후송할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환자들의 아침식사를 보장하기 위해 병실과 좁떨어진 농촌마을의 샘물터로 내려갔을 때는 아직 아침안개도 채 가셔지지 않은 이른새벽이었다.

그가 샘물터에로 다가갈수록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래소리는 그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었다.

샘물터를 향해 소리나는쪽으로 발길을 옮겨가던 그는 그 자리에서 굳어진채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줄로만 알았던 군인들이 남먼저 일어나 여러명의 처녀들과 함께 오손도손 재미있는 이야기를 주고받는가 하면 밝은 기분에 사로잡혀 노래부르며 빨래를 하고있는것이였다.

샘물터에 물동이들이 나란히 놓여있는것으로 보아 물을 길러 샘물터로 나왔다가 군인들이 빨

래하는것을 보고 그냥 돌아갈수 없어 하나둘 모여앉은 마을처녀들이 분명하였다.

한참동안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보던 그는 그들에게로 다가가 이른새벽부터 모두들 수고합니더라고 한마디 하고는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군민의 아름다운 소행에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기때문이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들의 생활 그대로를 펼쳐보이는 가사를 쓰고싶은 충동이 세차게 끓어번졌다.

하기에 당시 전문작가도, 시인도 아니었던 그가 자기의 산 체험에 기초하여 《샘물터에서》와 같은 생활적인 가사를 창작할수 있었던것이다.

가사가 완성되자 그것을 본 군인들속에서는 커다란 반향이 일어났다.

그러던 이듬해 봄, 이 가사는 우연한 기회에 당시 국립예술극장에서 창작활동을 하던 작곡가를 흥분시켰다.

북받치는 감정속에 가사에 맞는 선율을 순식간에 창작한 작곡가는 곡을 완성하여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평양의 극장무대에서 첫 공연을 진행하게 되었다.

공연이 끝나자 관중들은 마치도 이미 널리 보급되어 친숙해진 노래처럼 코노래를 부르며 극장을 떠났다.

노래는 삼시에 퍼져 전호가에서 그리고 후방의 공장과 농촌, 개울가와 샘물터에서는 물론 그 어디에서나 불리워지지 않은 곳이 없게 되었다.

그리고 전문단체이건 예술소조이건 녀성중창에는 응당 이 노래가 지정곡으로 포함되어 불리우게 되었다.

노래는 전쟁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혁명적 락관주의로 가득찬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잘 반영한것으로 하여 강성대국건설에 펼쳐나선 오늘의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해주고있다.

<가사>

범안선경 노래하세

김창호

합각지봉 문화주력 날아갈듯 늘어서고
규격포전 넓은 벌엔 오곡이 무르익네
에헤헤야 예아닌가 전설속의 무릉도원
장군님 펼쳐주신 범안선경 노래하세

앞문열면 양어장의 물고기떼 춤을 추고
뒤문열면 과일동산 백과열매 향기일세

에헤헤야 이 아닌가 선군시대 새 전설
장군님 펼쳐주신 범안선경 노래하세

염소떼는 산판마다 흰구름을 피워가고
발전기는 불빛밝은 무릉도원 펼쳐가네
에헤헤야 멋이로세 선군세월 새 풍경
장군님 펼쳐주신 범안선경 노래하세

범안선경소묘

채동규

칠색송어 노니는 양어못 물속엔
청청 푸른 하늘 그윽히 잠겼네
아침해도 물속에서 웃고
새들도 물속을 날고
고기떼도 구름타고 하늘가를 달리는듯
산언덕 파수원도 멋드러진 마을 전경도
물결에 어리니 무지개를 퍼놓은듯
시흥에 취한 내 모습조차
물속에 비껴 흔들흔들 춤추는 이 풍치
아, 범안선경의 제일경은
양어장 물속의 수채화인듯

×

강기슭 발전기 돌고도는 소리
범안마을 집집마다 노래되어 흐르네
울담너머 줄당콩 넝쿨새로 슬쩍 엿보니
가슴벅찬 기쁨을 한껏 터친듯
시름없는 부부의 웃음소리 창가를 흔드네
눈부신 불빛아래선
아이들이 오구작작 숙제공부 한창인데
부엌에선 전열기로 밥짓는 흐뭇한 내음새
행복의 숨결인양 피어오르네
왜서인지 초면지기 체면조차 다 잊은채
구수한 승냥 한그릇 건듯 청하고싶어...

×

고적한 하늘가에 끼룩끼룩 날으는
기러기떼밖에는 별로 볼것이 없어
그 이름 범안으로 불리우던 산촌
허나 지금은
동화속의 세계를 보는듯
무릉도원 별세상을 거니는듯
바다같은 양어장이며 멋쟁이 발전소
백학떼 춤추는 무연한 들판을 지나
합각지붕 농촌마을 품에 껴안고
열두쪽 병풍처럼 펼쳐진 파수원들
들가에 퍼지는 젊은이들의 노래
방목지로 떠나는 염소떼의 발구름소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마음에 느껴지는
이 모든것 어렵없네 한편의 시로 쓰긴!

×

꿀벌치기 유명한 대추나무집 로인
뒤동산 과일나무숲 해마다 더 무성해지고
집집마다 갖가지 과일나무 키 솟구니
봄철이면 사과꽃꿀에 감자꽃꿀
여름철엔 싸리꽃꿀에 아카시아꽃꿀
가을철엔 메밀꽃꿀도 치열치열 넘친다고
불깃한 얼굴 가득 웃음이 벅글벅글
싱그러운 꿀향기에 마음이 끌려
나도 발뽕발뽕 벌통결에 다가서는데
싹누런 벌떼가 웅웅 날개풍금 켜는 소리-
현데 꿀을 빚어 입에 문 벌 한마리
앵! 하고 날아와 내 이마에 딱 붙으니
네활개 휘저으며 텐겹스레 달아났네

×

고난의 나날 추억할제면
범안사람 누구나 땀에 대한 이야기
제 사는 향촌 제손으로 꾸리고저
한장 벽돌도 땀으로 빚었다고
한그루 나무에도 피갈은 땀 주었다고
맨 주먹으로 행복의 터전 억척같이 다지며
더운 땀 동이로 쏟았다고
땀은 만복의 씨앗이라는
소박한 철리를 가슴에 새긴
아,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범안선경- 사회주의선경이여!

×

범안선경! 네 앞에선
절로 웃기가 여미여지고
절로 머리가 숙이여지네
선군령장의 고결한 뜻이 꽃피난 땅
그이의 거룩한 자욱우에 펼쳐진 절경
그래서 그 이름 새길수록 가슴 후터워지는
선군8경의 하나로 손꼽히는 범안선경!
그래서 오, 정녕 그래서
너의 모습 시로 그리기엔
나의 붓끝이 너무 무더여라
전선길 야전차의 차창가에 비낀
범안선경
너는 너무도 아름다워

선경중의 선경

김충기

지는 해는 가기 싫어 새끼고기뭇에 내려앉고
솟는 달은 서둘러 살찌우기뭇에 비졌네
이리 득실 저리 득실 꼬리치는 잉어뭇, 메기뭇
보고 또 봐도 그냥 보고싶어
나도 못떠나고 생각에 잠기네

작년 이맘때 놓아준 새끼고기들
어느새 팔뚝만큼 컸으니
이 기쁨 편지에 담아
전선길에 계시는 장군님께 부쳤으면...

뒤동산 과일밭에서
첫물복숭아 따던 그 아침에도
펼 펼 끓는 메기탕 앞에 놓고
선뜻 들지 못하던 그 저녁에도
때없이 품어보는 간절한 생각
이제는 전기로 밥을 지어먹는다고
기쁨의 편지를 쓰던 그 밤처럼
장군님께 또다시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 싶어

쓰고싶구나
집집마다 새 품종 과일나무를 심고
꿀꿀한 제대군인들이 새로 온 사연
일잘하고 인물고운 대추나무집 처녀
발전기운전공총각과 눈맞아

큰상받고 새살림을 시작한 사연
전기로 밥을 지으며
나무불때던 이야기 옛말처럼 외우는
달덩이같이 환한 녀인들을 보아도
이 저녁 새양복 차려입고 회관으로 가는
우리마을 멋쟁이총각들을 보아도

쓰고싶구나
우리네 범안마을
풍치도 좋지만 살기또한 하좋아
사람들 십년은 젊어졌다고
너도나도 선남선녀가 되었다고

선군8경 범안선경을
오늘은 온 나라에 펼쳐주시려
쉽없이 짬없이 전선길 걸으실 장군님께
이 많은 사연 어이 다 편지로 올리랴만

오, 그래도 다만 한마디
아뢰이고싶구나 우리 마을 다시 모시고싶어
잠시나마 보여드리고싶구나
행복스러운 인민의 밝은 웃음이 비끼여
산천도 마울도 아름다운
선경중의 선경 범안선경을

웃는 달

오필천

둥둥 두리둥둥
하늘에선 달이 웃고
둥둥 두리둥둥
땅우에선 내가 웃네

달아, 너는 왜 이 밤
나를 보며 하냥 웃기만 하느냐

보고봐도 보고싶은 범안선경
이 밤이 지새도록 또 보고싶어...
줄비하게 늘어선 새집에 들어서니
달이 먼저 내려앉아
창가에서 웃어주네

집을 잘 지었다고
뒤산에는 과일나무
앞벌에는 멋쟁이 포전들과 양어장
무릉도원같다고
이런것을 사회주의선경이라 하시며
못내 기뻐하신 어버이장군님

달아, 덩실웃는 둥근달아 너는
지난날 지주놈도 부러워할
궁전같은 기와집에 크게 단
문패를 끌어보며 웃는
제대군인분조장의 밝게 웃는 웃음이구나

농장마을 발전소의 전기로
안방 옷방 덥히고도 남아
전기로 밥까지 지으며 웃는
너인의 생글대는 얼굴이구나

웃어도 웃어도 그 기쁨 다 담기엔 모자라
풍덩 양어장에 내려앉아
잉어춤, 메기춤 춤을 추니
달아, 너의 그 춤은

장군님께 펼쳐드린
봉산탈춤 그 춤가락 아니던가

아, 달이 웃어 내가 웃느냐
내가 웃어 달이 춤추느냐
오늘에는
우리 장군님 꾸려주신
선군8경 범안선경에 걸린 달은
기쁨에 웃고 행복에 춤추는
웃는 달 한모습뿐이어라

우리의 감사를

김송남

감사라니
제 일터 제 살림을 제가 꾸린
응당한 수고를 두고
우리 장군님께서
친히 감사를 보내주시다니

홍남의 일터에 새로워진 구내
공원같은 길을 걸으며 목메입니다
직장에서 문화회관에서 노동자합숙에서
제 얼굴이 비치는
벽체를 살펴보며 눈시울 젖습니다

천정에서 쏟아지는 저 빛발에서도
은혜로운 햇빛을 새기는 마음
화분마다 피어나는 꽃향기를 실어나르는
선풍기의 바람결을 안으면서도
세상 큰 고마움에 목메이는 마음

인민군대식으로 자기 초소를 꾸리라고
새 설계를 펼쳐주신분도 장군님이신데
생산문화, 생활문화 꽃피우는 자육자육을
하나하나 손잡아주신분도
우리 장군님이신데
지금 감사는 누가 받는것입니까

세목장의 저 맑은 물
그 한방울도 자신을 위한것 아니건만
합숙주방 풍만한 부식물창고
키돋움하는 콩나물 그 한오리조차
자신을 위해 자라는것 아니건만

마치 예 어딘가 자신의 일터가 있고
잠자리도 식탁도 여기 다 두신듯
감사하다고
우리들에게 감사하다고!...

목메이며 그 뜻을 생각합니다
가슴뜨거이 그 사랑 되새깁니다
우리 비료로동계급의 기쁨을
모두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시는
위대한 친아버이 한량없는 그 사랑에...

정녕 우리는
끝없는 그 사랑 그 은정속에
세상 부럼없는 선군시대 로동계급
그 은혜 갚으며 사는것이
우리 삶의 본분인줄 알기에
그냥 뛰고 달리며 일하건만
아직은 못갚아 정녕 못다 갚아

그 언제 그 어느 때
부모사랑 다갚은 아들딸 있었으랴만
하늘같은 그 은덕
천백분의 하나라도 갚고 또 갚아야 하는것이
우리 자식들의 도리이거니
안겨주신 감사에 가슴 불태우며
기대앞에 새롭게 마주섭니다
높이
더 높이만 쌓는 비료산으로
아버이장군님께 삼가 드리는
우리의 감사를 표하자고!...



리기창

△때; 오늘의 선군시대

△곳; 어느 공장지구에서

△나오는 사람들

두삼... 영예군인

순복... 그의 안해

명수... 그들의 양아들

경희... 그들의 딸

영옥... 품질감독원

△그의 녀의사, 기자들과 종업원들

두삼;음, 수고했다.

순복;에그. 이마에 땀 좀 봐라. 꼴물이다. (명수의 땀을 씻어주며 허를 찬다.)

△이때 경희 기쁨에 넘쳐 달려들어온다.

경희;아버지, 어머니, 공장정문 속보판에 오빠에 대해 대문짝하게 났습니다.

순복;뭐 속보판에?!

경희;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도말씀을 높이 받들고 군부대에 보내줄 무동력뿔프부속품생산을 남먼저 끝낸 영예를 안고 인민군대에 입대하는 오빠를 열렬히 축하한다고 말입니다.

두삼;(대견스럽게)그렇단 말이지.

순복;명수가 입대하는 날까지 밤 늦도록 말았던 부속품을 말짱 깎았다더니...

경희;그래서 공장에 취재나왔던 도일보기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군복을 입고 떠나는 오빠의 사진까지 찍어서 신문에 내렸답니다.

순복;원. 저런. 신문에까지?!

두삼;명수야 장하다, 장해. (명수의 어깨를 두드리주며 흐뭇하게 웃는다.)

명수;그건 아버지가 절 떠밀어주었기때문입니다.

경희;참, 모이게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순복;이젠 어서 가봐라.

명수;네.-

두삼;가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 오늘 계획했던 조준련습을 마저 하자구.

순복;령감두, 극성스럽게 원... 쯔쯔...

서장

△때; 여름

△곳; 두삼의 집

△무대; 오른쪽에 널마루가 달린 두삼의 집 일부가 보이고 울타리뒤에 온갖 꽃 만발한 꽃밭과 파일나무가 있다. 그 너머로 도시일각과 공장지구가 바라보인다.

△막이 열리면 프락에서 한팔을 의수한 영예군인 두삼이의 구령에 따라 명수가 무거운 력기계를 힘겹게 추켜든다.

두삼;(구령조로)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순복;(꼴물그릇을 들고 나오다가) 여보, 이젠 그만두구려. 오늘 당장 군복 입을 애한테...

두삼;(들은척도 하지 않고 더욱 엄하게)힘을 내거라!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명수;(힘이 진한채 비칠거리다가 겨우 추켜든다.)

명수;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이 옳습니다.

두삼;경희야, 어서 목총을 갖다주거라!

경희;알았습니다! (집안에서 목총을 가져다가 명수에게 준다.)

△명수 목총을 받아들고 경희와 함께 집뒤로 달려나간다.

순복;원. 입대하는 날까지?...

두삼;여보, 경애하는 장군님을 총대로 결사옹위하는 전조선으로 떠나보내는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소한 빈틈이 있어서야 되겠소. 총잡은 병사의 영원한 좌표는 언제 어디서나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것이지...

△두삼 생각에 잠겨 하늘가를 바라볼 때 제명이 새겨진다.

병사의 좌표

-무대 어두워진다-

제 1 장

△때;서장으로부터 얼마 지나간 한낮

△곳;서장과 같은 장소

△무대 밝아지면 두삼 널마루에 앉아 《결사옹위》라는 글발이 씌여있는 구호를 품속에서 꺼내 본다.

두삼;(회억에 젖어든 목소리로) 《결사옹위》라는 이 구호를 품속에 간직한채 장렬한 최후를 마친 중대장동지! 오늘은 드디어 명수가 군복을 입게 되었습니다!(그것을 다시 품속에 넣고 생각에 잠겨 거닌다.)

△두손에 구력을 든 순복 들어온다.

두삼;여보, 그건 뭔데?

순복;명수가 좋아하는 설기떡이웨다.

두삼;거 차칸에서랑 먹게 많이 싸주라구.

순복;걱정 마시우.

△경희 지함을 안고 들어 온다.

경희;어머니, 부탁대로 오빠한테 줄 만년필이랑 필수품을 일식으로 사왔습니다.

순복;어디 보자. (받아보고)명수가 좋아하겠구

나.

두삼;군대에서 다 내주겠는데 새삼스럽게 뭘...
순복;에그, 난 그저 우리 명수를 남보란듯이 내 세워주구싶수다. 원.

두삼;그런 눈먼 사랑은 필요없다니.

순복;아니, 뭐 그게 눈먼 사랑이라구?!

경희;(만류하듯)아이 참, 오늘처럼 경사로운 날에 또, 또... 호호호...

두삼;참, 경희야, 너 오빠한테 선반기를 제대로 인계받았느냐?

경희;네.

두삼;이제부터는 네가 오빠 대신 기대를 책임적으로 운전해야 한다. 넌 비록 군복입은 병사는 아니지만 인민군대에 보내줄 뿔프를 보장하는 전투원이라는걸 명심하거라.

경희;네-에- 걱정많으신 아버지. 호호호...

순복;우리 경희가 어련할라구. 그런데 명수가 왜 아직 안오느냐? 혹시 기자들을 만나는가?

경희;아니, 공장에 갔어요. 자기가 짚은 마지막 제품을 봐야 한다면서.

두삼;그럼 그럴테지.

경희;그리고 영옥언니와 기념사진을 찍기로 약속했다니 아마 사진관에 들렸을겁니다.

순복;영옥이라니? 그 품질감독원치녀말이나?

두삼;언젠가 스케트를 타다가 얼음구멍에 빠졌을 때 명수가 구원해준 동창생치녀!

경희;네. 오빠 마중나가보겠습니다. (나간다.)

순복;(잠시 추억에 잠기며)여보, 당신이 지난날 저한테 선반기를 인계하고 입대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오늘은 또...

두삼;그래서 세대는 바뀔다질 않소.

순복;정말 그렇수다.

△집뒤울안에서 닭울음소리 들려온다.

순복;저 씨암닭을 명수한테 곶을 해줍시다.

두삼;그러자구. (뒤울안으로 들어가다가 팔에 동통느끼며 저도 모르게 신음한다.)어이쿠.

순복;여보, 어디 상한게 아니시우?

두삼;(얼른 내색을 감추며)아니. 일없소. (황급히 뒤울안으로 사라진다.)

순복;저 령감이 나한테 뭔가 속이는데 아닌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

△이때 영옥 기념품구력을 들고 들어온다.

영옥;안녕하십니까?

순복;(돌아보고) 아니, 품질감독원치녀로구만.

어서 들어가자구.

영옥;저, 명수동무 있습니까?

순복;공장엘 갔네. 참 사진도 찍기로 약속했다면서?

영옥;(수집어하며)아이 참.

순복;아직 못찍었나?

영옥;네. 명수동무가 오면 이걸 줌...(기념품구력을 준다.)

순복;(받아놓으며)원 이런걸 뭘 다...

영옥;저, 그럼 경희는 있습니까?

순복;오빠 마중 갔지. 왜?

영옥;저 좀 만날 일이 생겨서... 하여튼 경희가 오면 품질감독원실로 급히 보내주면 좋겠습니다.(나가려고 한다.)

순복;(이상한 감을 느끼며)아니, 무슨 일인지 말하랴구.

△이때 두삼 닭을 잡아들고 뒤울안에서 나오다가 멈춰선다.

영옥;저, 사실은 무동력뽑프부속품을 다시 깎아야 할일이 제기되어서...

순복;아니, 무동력뽑프부속품이라면 우리 명수가 이미 다 가공해서 넘긴게 아닌가?

영옥;하지만 검사해보니 약간 오차가 나서... 그런데 오늘 당장 조립을 앞당기겠다니...

순복;뭐라구? 그게 어떤 제품이라구 오작을 낸단 말인가. 명수가 공장에 갔는데...

영옥;경희더러 대신 줌...

순복;그렇다면 나라도 당장 나가 다시 깎아놓을테니 오늘 떠나는 명수한테만은 절대로 말하지 말라구.

영옥;네. 그런데 어머니가 어떻게?

순복;이래봐도 지난날 7급 선반공이였다네. 우리 경희보다 내가 낫겠세.

영옥;어마나 그렇습니까?!

순복;내 인츰 뒤따라 갈테니 어서 도면과 소재나 갖다 놓으랴구.

영옥;알겠습니다. (인사하고 나간다.)

순복;빨리 작업복을 입고 나가야지. 원, 하필 오늘같은 날... (구력을 들고 집안으로 황황히 들어간다.)

두삼;(깊은 생각에 잠겨 모대기다가 혼자소리로)그처럼 믿었던 명수가 그런 실수를 했단 말인가?

혹시 입대한다는 들뜬 기분에 그랬을가? 아니, 언젠가도 그런적이 있었겠지... 그렇다면 인민군대에 보내는 무동력뽑프부속품가공에서 그런 실수를 저지른 녀석이 총대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

는 길에서 순간의 실수라도 범하지 않는다구 어떻게 장담할수 있단 말인가! 아니다. 가슴이 아프겠지만 그냥 보내선 안되겠다.

△두삼 마음을 다잡는데 녀의사 위생가방을 들고 들어온다.

의사;아바이, 안녕하십니까?

두삼;아니, 의사선생님이 어떻게?

의사;우리 과장선생이 아바이의 뼈이식수술한 후가 어땠는지 알아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두삼;(안해가 들을세라 급히 손을 입에 가져가며)쉬-

의사;예?! 그럼 아직도 집에선 모르십니까?

두삼;그건 절대비밀이라고 하지 않았소. 난 일 없으니 바쁠텐데 어서 가보우다.

의사;참, 명수동문 입대했다니 기쁘겠습니다.

두삼;드디어 오늘 군복입고 떠나게 뻤수다.

의사;그럼 수술자리가 말쑥하면 인차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두삼;예, 고맙수다.

의사;그럼 몸조심하십시오.(인사하고 나간다.)

순복;(작업복을 갈아입고 나오다가 녀의사쪽을 띄여보고)아니, 병원에선 왜 왔댔수?

두삼;(당황해하며 변명하듯)아, 저, 저, 명수가 입대한다구 축하인사하러 왔구만.

순복;우리 명수를 극진히 치료해준 의사니까 그럴테지. 여보, 내 어디 잠깐 갔다오겠수다.

두삼;(무뚝뚝하게)여보, 당신은 저 닭이나 삶소.

순복;네?!

두삼;그 부속품은 명수가 제손으로 다시 깎게 하자구.

순복;아니, 그럼 벌써 들었수?

두삼;어서 그렇게 하자구.

순복;당장 군복입고 떠날텐데 어떻게?

두삼;그럴수록 우리가 신발을 똑바로 신겨보내야지.

순복;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때가 있다는데 그다지나 원, 뻤수다.

두삼;뭐라구?

순복;평대신 닭이라구 내가 손질해주면 되지 않수.

두삼;무슨 소릴? 명수가 군대에 나가서도 혹시 오늘과 같은 실수를 한다면 당신이 따라가서 시정시켜주겠소?

순복;하지만 신문에 내겠다구 기자들까지 만나겠다는 명수한테 그런 오점을 보이겠수?

두삼;그래가지구 신문에 나선 뉘해.

순복;군복입고 떠날 그 애의 마음에 그늘지게 하는것이 우리네 도리겠수? 예?! 남들은 군대에 나가는 자식들에게 한가지라도 더 해주자고 애쓰는데 당신은 어찌면...

두삼;하지만, 나는 그게 명수의 가슴에 아픈 못이 된다고 그냥 보내고싶진 않소.

순복;물론 그 애를 대바르게 키우려는 당신의 심정은 이해되지만 너무 지나치웬다. 너무.

두삼;너무하다구?

순복;그렇수다. 너무 모질구 박정하단 말이웨다.

지난 겨울 갑자기 눈사태로 저 령길이 막혔을 때도 그렇지. 명수가 독감에 걸린 몸으로 분기계획을 앞당겨하느라고 밤늦도록 일하구 집에 와서 약 먹구 누웠을적에 급히 연락이 왔던 일이 생 각나우?

두삼;그때 당신이 나서서 명수를 안보내기로 승낙받았겠지?

순복;옳수다. 그런데두 당신은 명수한테 눈가래까지 메워서 눈보라치는 밤길로 떠밀지 않았수. 그때문에 폐염까지 만나 어쩔번 했수?

두삼;그만하라구.

순복;내친김에 다 말합시다. 입대를 앞두고 현수를 제대로 못한다구 상했던 팔까지 수술받은 명수한테 이른 새벽은 물론 일하구 돌아온 저녁 늦도록 구령을 치면서 현수를 시킨다, 조준련습을 시킨다 하면서 들볶아대구선 ...

두삼;여보, 날짐승두 제 새끼가 날기직전엔 우정 둥지에서 떨어뜨려본다구 하질 않소.

순복;아니, 그 애가 날짐승새끼웨까? 솔직히 말해서 난 부모없는 그 애를 친아들 삼아 집에 데리구있구 싶었수다. 그래그런지 명수가 군대에 나가겠다고 할때 대견스럽게 생각되면서도 어쩐지 한편으로는 우리가 친부모처럼 살뜰히 해주지 못한것이 없나해서 생각을 많이 했댔수다.

두삼;그래서 당신은 명수를 집가까이에 있는 공장대학에나 보내자고 했댔소?

순복;그거야 명수가 중학교때 철봉을 하다가 팔뼈를 다친 탓에 군대에 못나가게 됐기때문이었수다, 원.

두삼;잘은 둘러친다.

순복;여보, 제발 오늘만은 명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구 제게 맡기시우. 오늘마저 군복입은 그의 손에 기름칠을 하게 해서야 되겠수?

두삼;?...

△이때 밖에서 명수, 경희의 웃음소리.

순복;(밖을 내다보고)여보, 군복을 입고 기뻐서 오는 명수를 봐서도 제발 그 소릴 입밖에 내지 마시우.

경희;(달려나오며)자, 오빠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선군시대의 병사!

영수;(새 군복 앞가슴에 붉은 꽃송이를 달고 들어와 군대식으로 거수경례를 하며) 아버지, 어머니, 조선인민군 신임병사 윤명수 도착했습니다!

순복;예구나, 네가 이렇게 군복을 입으니 더 의젓해보이는구나.

두삼;군복이나 입었다구 진짜배기 병사가 되는 게 아니야.

명수;하긴 그렇습니다.

경희;오빠, 기자동지들이 기다릴텐데 이젠 가봐.

순복;아직 안만났느냐? 이제 네 모습이 신문에 나면 온 도가 다 알겠구나. 호호호...

경희;오빠, 좀 활짝 웃으며 사진 찍어.

명수;요건, 그럼 가보겠습니다. (거수경례하고 돌아서서 나가려고 한다.)

두삼;(잠시 갑자르다가)애, 명수야!

명수;(멈춰서며)네?!

두삼;언제 떠난다더냐?

명수;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두삼;음, 그렇다면 공장에 좀 나가봐라.

순복;(다급히)아니, 여보!

명수;(의아해서)왜 그럼니까?

두삼;가서 품질감독원 영육일 만나면 알게다.

명수;네?! 공장에 갔다가 영육동무를 만나지 못했는데... 무슨 일이 제기됐답니까?

순복;(변명하듯)제기되긴... (두삼에게 눈짓하며) 당신은 그저...

명수;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두삼;네가 깎은 무동력뿔프부속품이 약간 오차가 났다더구나.

명수;뭐라구요?!

경희;어마나, 영육언니가 와서 그랬습니까?

두삼;오나, 너라도 대신 다시 깎아야겠다더라. 오늘 당장 조립해야 된다구.

경희;그렇다면 제가 갈테니 오빠 기자동지들이나 만나봐,

순복;걱정말아, 내가 갈테니. (나가려고 한다.)

명수;(막아서며)아닙니다. 그럴수 없으니 제가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두삼;알아보긴 뭘 알아봐. 자길 너무 과신하지 말아. 전번에도 그런 실수를 한걸 잊었느냐? 어서 네 손으로 다시 깎아라!

명수;제가 미처... 알았습니다. (달려 나간다. }

경희;오빠, 내가 갈테야. 가지마.

두삼;봐두거라!

경희;(울먹이며)아버진, 어쩔 오늘같은 날...

(흐느끼며 달려나간다.)

두삼;애야...

순복;여보, 당신한테 손톱끝만한 인정머리라도 있수, 예?

두삼;(자기가 걸쳤던 작업복을 벗어주며)이제 나 명수한테 갖다주우.

순복;(뿌리치며)입대하는 오늘까지 그만큼 극성을 부린것도 모자라서 그 애의 가슴에 아픈 응어리가 땃히게 해야만 씨원하겠수?

두삼;여보. 내 가슴은 오죽한줄 아오?

순복;오죽하다는 사람이 그 모양이우? 더구나 명수가 우리네 친아들이라면 몰라도...

두삼;뭐, 친아들이 아니여서 그런다구?

순복;유복자인 명수를 남긴채 희생된 그 애의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어쩌면 그럴수 있나 말이웨다.

두삼;(가슴을 움켜쥐고 모대긴다.)

순복;당신네 작업반 세포비서를 하던 명수의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난 후 그 애를 이붓자식 데하듯 것처럼 모질게 키우자구 데려왔수? 부속품 하나 오차 난게 뭐라구. 저는 것처럼 무정하겐 그 애를 절대로 못떠나보내겠수다. (눈물을 씻으며 허둥지둥 나간다.)

두삼;여보- (손을 허우적거리며 따라서다가 쓰러진다.)

△그의 마음을 담아 방창이 열린다.

군복입고 초소로 떠나가는 날

내 어이 기쁨 안겨 보낼 맘 없으랴

아 그러나 가슴속에 간직해다오

총잡은 병사의 영원한 좌표

순간도 드림없이 우리 장군님

결사옹위하는 그 길에 있음을

△두삼 방창이 흐르는 속에 품속에서 《결사옹위》라는 글발이 씌여진 구호를 꺼내볼 때 무대 어두워진다.

제 2 장

△때;1장으로부터 얼마 지난 뒤.

△곳;현장 품질감독원실.

△무대;책상위에 측정기구들과 전화기가 놓여 있으며 그옆에 결상이 있다.

벽면에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

라는 횡단구호가 걸려있다.

창문을 통해 작업현장이 내다보인다.

오른편으로는 밖으로 통하고 왼편으로는 밖으로 통하는 문이 있으나 보이지는 않는다.

△무대 다시 밝아지면 영옥 손목시계를 보며 초조해한다.

△전화종이 울린다.

영옥; (송수화기를 들고)품질감독원 영옥입니다. 무동력뿔프조립장입니다. 나머지 부속품들은 1시간후에 보내주겠습니다. 그렇게 조립을 앞당겨할 줄 몰랐기때문입니다. 네. 걱정 안해도 됩니다.(송수화기를 놓고 도면을 들고 현장쪽으로 걸어간다.)

명수;(숨가쁘게 들어서며)영옥동무!

영옥;(놀라서 돌아보고 급히 도면을 등뒤로 감추며) 어마나, 벌써 군복을 입었습니까?

축하합니다!

영수;뭐, 축하?

영옥;약속을 못지켜 정말 미안합니다.

명수;약속이구뭐구 어떻게 됐다구?

영옥;뭘 말입니까?

명수;부속품이 오차가 났다면서?

영옥;아이참,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명수;아닌보살하지 말라구. 동문 어째서 진작 그걸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영옥;사실은 남먼저 계획을 끝낸 기쁨을 안고 입대하는 동무한테 차마...

명수;뭐라구, 그래 품질감독원으로서 그런 값싼 아량과 선의로 날 훌쩍 떠나보내려고 했소?

영옥;아니, 어쩌면?...

명수;영옥이가 날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럴수가 있나 말이야. 이미 말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을게 아니야. 정말 섭섭하구만.

영옥;예? ...

명수;더구나 우리 공장에서 새로 창안제작한 무동력뿔프가 어떤 제품이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것을 친히 보아주시고 전기없이도 물을 높은데까지 퍼올릴수 있다니 최전연고지에서 복무하는 군인동무들에게 보내주면 무척 기뻐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더 많이 만들라고 간곡히 말씀하신 제품이 아닌가!

영옥;저라고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명수;그렇다면 입대하는 내 기분을 흐려놓고싶지 않아서 선심을 썼다는거야 아니면 나와 남다른 사이라는 그것때문예?

영옥;네?! 절 아무렇게나 질책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제가 처리할테니 제발 마음놓고 떠나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수;안되오.날 뭘로 만들자는거야. 우리 아버지인 내가 그냥 떠난다면 두고두고 원망할거요. 오죽하면 군복까지 타입은 날 여기로 보냈겠어. (결상에 털썩 주저앉는다.)

영옥;어쩌면... 친아버지의 심정이라면 것처럼

무정할수가 있겠습니까?

명수;뭐라구, 동무가 우리 아버질 알면 얼마나 안다구 함부로 모욕하는거요. (주먹으로 책상을 탕 내려친다.)

영옥;어마나...

명수;내가 동무를 만나 제품가공을 따져봐야 하는건데...

(그의 손에서 도면을 와락 빼앗아들고 현장으로 달려 나간다.)

영옥;그래도 자기를 생각해서 그랬는데 어쩌면...

(북받치는 설움에 얼굴을 싸전채 결상에 앉아 흐느낀다.)

경희;(달려들어오다가 영옥이의 모습을 보자 다가서며)영옥언니, 오빠가 혹시?

영옥;...(더욱 쉼게 어깨를 들먹인다.)

경희;언니, 오빠도 아버지와 똑같이 ... 닮아가요.

△현장쪽에서 선반기 돌리는 소리 들려온다.

경희;아니, 오빠가 벌써?!... (달려나간다.)

영옥;(결상에서 일어나 현장쪽을 떨리는 눈길로 바라보며)명수동무, 저때문에 오히려 입대하는 날까지... 용서하길 바랍니다....

△순복 허둥지둥 들어온다.

순복;우리 명수 오지 않았나?

영옥;(얼른 눈굽을 닦으며)글쎄 자기가 다시 짼댔다구 저렇게...

순복;뭐라구?! (선반기소리 들리는 현장쪽을 바라보다가)범같은 령감때문에 원...

△순복 눈을 슴뻛이며 현장쪽으로 걸어가는데 전화종이 울린다.

영옥;(송수화기를 들고)네, 기자동지들이십니까?

명수동무 말입니까? 저 지금... 아니 이리로 직접 오시겠습니까?

순복;(그 소리에 급히 다가와 조급히 송수화기를 빼앗아들며)안녕하시우? 제 명수 어머니웨다. 수고롭게 오시기까지 할게 있수? 명수를 당장 그리로 보내겠으니 신문에 큼직하게 내주기만 하시우. 부탁합니다. 예,(송수화기를 놓고 현장으로 서둘러 나가려고 한다.)

영옥;아니, 그럼 어머니가 대신...

순복;글쎄 녀려말라니까.

△두삼 들어서다가 소리친다.

두삼;여보, 당신은 아직두?

순복;그래, 령감 눈엔 저렇게 땀흘리며 선반기를 돌리는 명수가 보이질 않수?

두삼;(현장쪽을 이윽도록 바라본다.)

순복;오늘같은 날 꽃수레에 태워 떠나보내도 성차지 않겠는데 당신은 어쩌면...

두삼;(떨리는 목소리로)여보, 우리가 저렇게 하는게 명수를 진짜 꽃수레에 태워서 보내는 길이야.

순복;무슨 소린지 원... 어쩌다 한번 실수를 한 걸 자지구.

두삼;어쩌다 한번 실수라니?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서도 샌다는 말 못들었소?

순복;원참, 우리 마을에서도 두루 보면 집에서 들 좀 말썽을 부리던 자식들도 군대에 나가선 다 제구실을 합디다.

두삼;여보, 당신처럼 그런 설익은 자식들을 군대에 망탕 떠밀어보내려는 부모들의 빼놓어진 사상관점이 문제란 말이야. 미제놈들과의 싸움준비에 전심해야 할 지휘관들이 그런 일부 신입병사들을 교양하느라고 시간을 들이면 되겠소?

순복;아니, 오작품 한개 내게 무슨 큰 일이라고...

두삼;여보, 일상시에 마음의 탕개를 늦추고 오작품 한번쯤 내는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총대로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전조선에서 순간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구 어떻게 믿을수가 있겠소.

순복;예?!

두삼;이건 내가 지난날 피의 교훈을 통해 절감한 사실이야.

△새 부속품을 깎아들고 나오던 명수와 경희 걸음을 멈춘다.

두삼;(깊은 회억에 잠겨서)나도 공장에 다닐적에 오작품 한두개쯤 내는걸 범상하게 여기다보니 군대에 나가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아오? 내가 최전연초소에 배치되어 새로 전호를 파고 잠복근무를 서던 깊은 밤이었소. 그 시기로 말하면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또다시 불을 달려고 미처 날뛰던 미제가 군사분계선과 해안을 통해 무장악당놈들을 수시로 들여보내던 때였소. 그날밤도 불시에 기여든 무장악당놈들과 치열한 총격전을 벌리던 나는 새 전호를 팔 때 대수롭지 않게 스쳐버린채 전호턱에 남겨놓았던 돌쪼각에 부딪쳐 도란된 놈들의 총알에 부상을 입고 그만 쓰러졌댔지...

영옥;어마나,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삼;놈들이 쓰러진 나한테 덮쳐들던 순간 우리 중대장동지가 달려와 그놈들을 모조리 쏘아눅히고 그만 장렬한 최후를 마쳤소.

모두;중대장동지가 말입니까?

두삼;그렇소. 그런데 후에 안 사실이지만 바로 그 시각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철령을 넘으시여 우리 최전연초소를 시찰하러 오시던 길이였댔소.

모두:(놀라며)아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말입니까?

두삼;정말이지 내 한순간의 실수로 스쳐버렸던 그 돌조각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길줄은 미처 몰랐댔소. 만일 그때 우리 중대장동지가 아니었다라면 어쩔번했소. 그 중대장동지가 우리 명수의 친아버지였지...

영옥;아니 어찌먼? ...

명수;(뜨거움을 삼키며)아버지...

두삼;내가 새겨안았던 이 쓰라린 피의 교훈을 누구든지 되풀이해선 안되겠기에 오늘 새삼스럽게 이런 말을 하는거야.

명수;(어깨를 들먹인다.)

두삼;(명수를 돌아보고)명수야, 네 아버지처럼 너를 수령결사옹위의 병사로 키우자고 원심을 썼건만 어쩐지 아직 내 진정이 모자라는것 같구나.

명수;아닙니다. 아버지가 지난날 어찌하여 그토록 저에게 남다른 요구성을 높였는지 그리고 입대하는 오늘마저 오작품을 다시 깎으라고 엄하게 떠밀었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두삼;그렇다면 고맙구나, 명수야!

명수;아버지- (두삼의 품에 안긴다.)

순복;명수야.

명수;어머니, 저는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튼튼한 몸으로 군대에 나가야 한다면 영예군인인 아버지가 쓰셔야 할 귀한 보약제마저 나한테 고스란히 돌려주다 못해 제 이 팔을 수술받을 때 저도 모르게 아버지 자신의 뼈까지 이식시켜주시였답니다.

순복;(처음 듣는 소리에 놀라며)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경희;오빠, 그게 정말이야?

명수;저두 이번에 외과과장선생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순복;아니, 인공뼈를 이식시켰다더니?!

명수;아버진 인공뼈보다 자신의 뼈를 이식시켜 달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제가 알면 수술에 응하지 않을거라구 절대비밀로 지켜주기를 채삼 당부했답니다.

순복;(뜨거운 충격속에 휩싸이며)여보, 그래서 오늘 병원에서 의사가 찾아왔댔구려. 그런걸 당신은 오늘까지... (두삼의 수술자리를 어루쓸어만지며 눈물을 흘린다.)

두삼;여보. 생각 좀 해보오. 나라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선군장정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고를 덜어드리진 못할망정 그런 자식들을 장군님의 슬하에 보내여 장군님께 걱정을 끼쳐드려서야 되겠소. 당신도 얼마전 텔레비존에서 보았겠지만 우리 장군님께서 신입병사들의 훈련장까지 몸소 찾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순복;(자책감에 잠기며)여보, 당신이 왜 것처럼 명수에 대해 원심을 썼는지 오늘에야 똑똑히 알았습니다.

두삼;암, 그래야지. 정말 선군시대 병사의 어머니답구려, 하하하...

명수;(두삼에게 새로 깎은 부속품을 보이며)아버지,이걸 다시 깎았습니다.

두삼;그래. (받아서 영옥에게 주며)어디 검사해보라구.

영옥;알겠습니다. (부속품을 측정기구로 검사해보고) 야, 0.001mm의 허용오차도 없는 합격품입니다.

두삼;명수야, 수고했다.

명수;아버지, 이번에 저는 순간의 실수로 제품은 비록 오차를 냈다가도 다시 깎을수 있지만,총대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길에선 한순간의 실수나 빈틈도 허용될수 없다는 참뜻을 심장깊이 새겨안게 되었습니다.

두삼;음...

경희;오빠, 저도 군복은 안입었지만 선군시대의 전사답게 더 많은 땀프를 생산하여 군대에 보내주겠어!

명수;경희야.

영옥;명수동무, 다시는 오늘과 같은 일이 없을 겁니다.

명수;영옥동무!(그의 손목을 뜨겁게 잡는다.)

△이때 멀리서 신호나팔소리가 울려온다.

경희;오빠, 나팔소리야.

순복;이젠 어서 가봐라!

영수;예!

두삼;명수야!(품속에서 《결사옹위》의 글발이 썩여진 구호를 꺼내주며)이건 너의 아버지가 장렬한 최후를 마치는 순간까지 품속에 간직했던거니 네가 간직하고 떠나거라.

명수;(그것을 소중히 받아보며 되뇌인다.) 《결사옹위》!

두삼;다시한번 말하지만 나는 앞으로 네가 언제 어디서나 순간의 빈틈도 없이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것을 병사의 변함없는 좌표로 삼고 싸우길 믿는다!

명수;알았습니다.

△방창이 울리는 가운데 무대장치물들이 좌우로 갈라지면서 녀의사, 기자, 종업원들이 달려나와 명수에게 꽃목걸이와 꽃다발을 안겨주며 두둥실 목마를 태운다.

△기자가 사진을 연방 찍는다.

△방창이 높이 울린다.

아 언제나 가슴속에 간직해다오

총잡은 병사의 영원한 좌표

순간도 드림없이 우리 장군님

결사옹위하는 그 길에 있음을

△명수 언덕우에 올라가 거수경례를 하고 두삼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뜨거운 배웅을 받으며 떠나갈 때 막이 내린다.

농업부문에서는 실천에서 정당성이 확증된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과 콩농사를 잘할데 대한 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들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공동사설에서-

□단편소설□



리정옥

나는 책상우에 놓인 신문을 한참동안 내려다보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신문의 기사내용보다도 한 녀성의 사진을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약간 도도룩한 이마에 정기가 돌고 예쁘장한 모색의 그...

여러가지 착잡한 생각들이 제갈래의 물줄기를 이루어 머리속에서 이리저리 고래치다가 하나의 줄기를 이루었다. 그러자 나의 머리속에는 판화처럼 선명하게 떠오르는 화폭이 있었다.

...별 하나 없는 흐린 밤, 합숙마당에서는 새싹이 돋지 않은 나무들이 까닥않고 서있고 웅기종기 산들이 둘러막힌 골안에는 깊은 정적이 깃들었다.

멀리 골짜기를 따라 길게 뻗은 밭들에는 지난 가을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다.

문이 열렸다. 합숙어머니가 어둠속에서 신을 끌며 무엇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 모든 정적이 가당지 않은듯 어느 집에선가 웃고 떠드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이것은 오래전에 떠나온 나의 머리속에 인박한 산골마을의 표상이었다.

갑자기 나는 그 어떤 알수 없는 힘에 떠박질려 그 먼 기슭에 다시 선듯 한 느낌이 들었다.

불시에 가슴이 뻐근해왔다. 그때 그 기슭에 함께 섰던 정옥심이 오늘은 온 나라가 다 아는 선군시대 숨은 공로자로 한개 농장의 관리일군으로 내 눈앞에 나타났다

나의 뇌리속에 새겨진 정옥심이는 키가 자그마하고 아련하면서도 무엇에나 쉽게 현혹되곤 하는 감상적인 처녀에 지나지 않았다.

전문학교시절 락천적인 랑만가였으며 한다하는 축구선수였던 나를 얼마나 선망에 찬 눈길로 바라보았던가? 그런데...

또다시 나는 말 못할 불안감에 휩싸였다. 오늘까지 흘러온 자기의 생을 두고 은근히 자부심에 잠겼던 나였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크게 벗어나는 일이 없이 제나름대로의 만족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온 이 생활뒤에 무엇인가 명백하게 불안이 있었다는것을 나는 새삼스럽게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쓰라린 감회가 강하게 마음속을 사로잡았다. 수습하기 힘든 나의 심리는 그와 나사이에 있었던 생활을 전면적으로 훑어볼 여지를 주지 않고 인상적인 몇개의 화폭들만을 눈앞에 그려주었다.

20여년전의 그 랑만적인 배길이 선참으로 떠올랐다.

그때 농업전문학교를 금방 졸업한뒤라 서로의 마음은 꿈많은 공상과 미래로 가득차있었다. 나와 욕심이 그리고 다른 두 동무는 사덕농장으로 가게 되었다. 깊은 산골농장이라고 선뜻 가려하지 않는것을 우리는 자진하여 가겠다고 했다. 이왕이면 배운 지식을 어렵고 힘든 농장에 가서 땀을 흘리며 꽃피워보고싶었다.

우리에게 파견장을 쥐여준 일군의 고무와 격려를 받고 강변으로 향했다. 배를 타고 가자는 농장청년의 제기를 쾌히 받아들인것이였다.

우리는 자그마한 배에 엮여질듯이 뛰어들었다. 순박해보이는 농장청년은 씩-웃으며 노를 저었다.

숙련된 솜씨인지라 배는 미끄러지듯 강을 거슬

러올라갔다.

저녁어스름이 깃들 무렵이었다. 하늘은 침침하게 흐려있고 물먹은 바람이 불었지만 험한 령길을 타지 않고 생각지도 않게 계곡을 굽이돌아흐른 강을 따라 유쾌한 배려행을 하게 된 기쁨과 금방 현실에 뛰어든 즐거운 기분으로 하여 일행은 끝없는 환희에 넘쳐있었다.

그중에서도 옥심이의 표정은 인상적이었다. 천진스러움과 행복감, 이제 맞이하게 될 새로운 현실에 대한 신비경으로 가득차있었다. 그러면서도 이따금 믿음과 신뢰에 넘친 눈길을 나에게 보내곤 했다. 그런 눈길을 받는데 습관된 나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일어섰다.

《동무들, 우리모두 노래를 부릅시다.

청춘과 위훈에 대한 노래를... 우리의 꿈과 리상을 담은 노래를!》

박수가 터졌다. 짹짹 울리는 박수속에서 누군가 선창을 떴었다. 모두가 함께 따라불렀다.

이때였다. 노래소리에 도전이라도 하듯 갑자기 하늘이 시꺼매지더니 어쩔사이도 없이 소낙비가 쏟아져내렸다. 순식간에 퍼부어지는 소낙비속에서 우리는 고스란히 옷을 적시며 앉아있을수밖에 없었다.

강 옷쪽에서 시누런 산골물이 사태져 내려왔다. 어디에 그 많은 물이 모였다 사품쳐내려오는지 그 속도는 무서웠다. 배는 차츰 속도가 떨어지며 사나운 물살을 이겨내느라고 모지름을 썼다. 이따금 시누런 강물이 급시 배안으로 들어오기라도 할듯 배전을 넘겨다보며 넘실거렸다. 배는 물결 밑으로 빠져들기도 하고 물에 덮쳐우기도 하면서 한걸음한걸음 힘들게 전진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모두들 당황하여 어쩔바를 몰라했다. 당장이라도 배를 기슭에 대고 내리고 싶었으나 태연하게 노를 젓는 농장청년앞이라 자존심이 상해 그러지도 못했다. 농장청년은 이쯤 한 일은 대수롭지 않은지 노만 힘차게 저었다.

나는 흔들리는 배전우에 우뚝 서서 얼굴에 흘러내리는 비물을 흠치며 시를 읊듯이 웨쳤다.

《동무들! 놀랄건 없소. 우린 앞으로 이보다 더한 시련도 뚫고나가야 하오. 우리의 리상은 크고 아름답소. 오직 투쟁과 전진만이 우리를 고무하고 영원한 길동무가 될것이요!》

나는 그때 나를 쳐다보며 빛나던 옥심이의 눈길을 잊을수가 없다. 그의 맑은 눈가에 새겨진 나의 모습,

비물에 젖고 머리는 형클어졌어도 희망과 랑만으로 가슴들먹이며 새 생활을 동경하던 그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기슭을 부리던 비가 차츰 증증해졌다. 소낙비는 언제 내렸던가싶게 씻은듯이 멈춰버렸다. 산골비의 번덕스러움이란 이런것을 두고 하는 말 같았다.

방금전까지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듯이 랑만에

찬 말을 웨치던 참이라 우리는 다소 어색한 심정이 되어 어둠이 짙어가는 밤공기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침묵이 배우에 서려돌았다.

나에게는 불의에 들이닥친 이 소낙비가 앞으로 겪게 될 시련의 고비의 예고처럼 생각되었다. 어둠속이라 모두의 표정은 알수 없었으나 그들의 눈빛에서 나는 어서빨리 목적지에 가닿으면 하는 생각을 읽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다. 갑자기 어둠이 눈뜬것 같았다.

《이젠 다 왔습니다.》

농장청년의 말에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초불처럼 가물가물하던 불빛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뚜렷이 자기 형체를 드러내었다. 린색하게도 불빛은 겨우 하나가 보이고 저 멀리에서 또 하나가 보였다.

우리는 산골길을 따라 걸었다. 저벅저벅 울리는 발걸음소리가 고요한 산골공기를 뒤흔들어놓았다.

거뭇한 집형체가 우리앞에 나타났다. 청년은 익숙된 동작으로 대문을 열고 들어서며 소리쳤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두런두런 하는 말소리에 이어 부엌문이 열렸다.

무던해보이는 어머니가 마당에 나섰다. 흠칫 놀라는 거동이 어둠속에서도 알렸다. 네댓명의 사람들이 둘러서있으니 어리둥절한 모양이었다.

《우리 농장에 오는 사람들입니다. 귀한 사람들이지요.》

어머니는 서둘러 우리를 방으로 안내했다. 노란칠이 알른알른한 방안에 들어서자 온몸이 물먹은 숨처럼 나른해졌다. 어지간히 기운을 뿜은지라 주저앉고만싶었다.

...얼마나 잤을가. 달그락달그락 하는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깨었다. 날이 밝으려면 아직 먼것 같은데 부엌문이 방향이 열려져있었다. 이어 무엇인가 토방우에서 철썩덕 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문짚으로 내다보았다. 네댓마리는 잘될 팔뚝시만 한 산천어가 제마끔 몸뚱이를 들썩거리고있었다.

《이걸 손님들에게 끓여드리세요. 어머니, 그럼 전집에 가보겠어요.》

《에그, 온몸이 물주머니가 됐네그러.》

우리를 태워온 청년이 벌썩 웃으며 밖으로 사라져버렸다. 그제서야 나는 청년이 우리를 위해 밤새 강에 나가 물고기를 잡았다는것을 알았다. 청년의 집인줄 알고 달게 잤는데 알고보니 그의 집이 아니었다.

나는 말짱 잠이 깨고말았다. 더는 자고싶지 않았다. 산골사람들의 후더분한 인정에 가슴속이 훈훈해왔다.

첫날밤은 이렇게 흘러갔다.

농장관리위원장은 우리가 오기를 기다린듯 매

사람의 손을 잡아흔들고는 앞으로의 농장계획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다. 물론 힘을 합쳐 본때있게 해보자고 결의한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었다.

우리는 이 끝안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련두봉 마루에 올라갔다. 날씨가 화창하여서인지 산등성이로 올라가는 길이 조금도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시원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듯 마음이 가쁜하였다.

사방일대의 높고낮은 산들, 큰길, 마을이 멀리까지 보였다. 산림 저편하늘과 곧바로 잇닿아있는 대지우에는 뽕얀 운무가 서려있고 머리위의 하늘은 구름한점 없이 눈이 아프리만큼 파랗게 보였다. 티끌한점 없는 이 맑은 공간으로 날아가는 갈가마귀떼는 흡사 솟덩어리 같았다,

《야 참, 얼마나 좋아요?》

욕심이가 환성을 올렸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것을 한꺼번에 눈속에 담으려는듯 연방 사방을 둘러보며 어쩔줄 몰라했다.

불현듯 그가 나의 손을 툭 쳤다.

《저것 좀 봐요.》

명상에 잠겨 하늘을 바라보던 나는 욕심의의 말을 인차 알아듣지 못하였다.

《뭘 말이요?》

《저것 말이에요. 빨간거!》

나는 우로 쳐들었던 눈길을 어디로 떨굴지 몰라 허둥거렸다. 욕심이는 단숨에 달려가 파란 풀숲에서 빨간 열매가 달린 가지를 꺾어들었다.

《오- 산딸기로구만!》

욕심이는 신기한것을 발견한듯 떠들었다.

《보세요, 얼마나 빨개요? 마치 이 산천의 정기를 다 담은것 같지 않아요?》

《거야...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겠지.》

《그렇가요?...》

욕심이는 알수 없다는듯 머리를 기웃거리고는 한참이나 신고하여 산딸기 한포기를 조심히 캐들었다. 합숙 마당에 심으려는 모양이었다.

다음날부터 우리는 전투에 돌입하였다.

북부산간지대에 위치한 이곳 농장은 날씨가 변덕스러워 소출이 퍽 시원스럽지 못한 곳이었다. 게다가 돌이 많기로 유명했다. 경사지 밭들은 물론이고 평지의 밭들도 해마다 돌을 추지 않으면 한해농사를 짓기가 힘들었다. 오죽하면 돌을 다섯번 굴려야 한해농사가 된다는 말이 있겠는가. 우리가 그곳 농장으로 진출한 때에는 농장에서 대담하게 지금까지 해오던 강냉이 농사를 수확이 높은 감자농사로 전환할 목표를 세우고 여러 해에 걸쳐 감자경작지를 단계별로 넓히기로 한 때였다. 온 농장이 펼쳐나섰다. 먼저 감자경작지로 정한 덕골밭의 돌을 추는 전투를 벌렸다. 들것에 돌을 담아 가지고 비탈을 따라 내려와서는 산아래에 푹모양으로 쌓았다. 쌓고 또 쌓고... 그리고는 경사지를 따라 달려올라갔다. 강냉이농사를 할 때와는 달리 감자농사는 흙층이 깊어야 했다.

땅속깊이에까지 박힌 돌을 추자니 여간만 힘들지 않았다.

처음에는 재미도 있고 사기도 났다. 그러나 날에 날을 이어 돌추기작업이 계속되자 손에는 물집이 생기고 돌에 찢겨여 봉대를 감지 않으면 안되었다. 점차 우리의 생활과 감정속에는 현실이 안겨주는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각자의 내부 싸움이 일어났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제일 연약한 욕심이만은 어째서인지 모지름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마치 이 고장에 태를 묻은 사람처럼 웃고 떠들었다. 그를 볼 때마다 나는 그와 반대되게 이 엄혹한 현실에서 벗어나보려고 원심을 쓰는 나자신을 발견할수 있었다. 이 감정은 날이 감에 따라 더 짙어만갔다.

하루일이 끝났다. 나는 무거워진 몸을 끌고 농장합숙에 들어와 방바닥에 그대로 벌렁 눕고말았다.

눈앞에서 크고작은 돌들이 얼른거렸다. 하루종일 손에서 손으로 옮겨진 허다한 돌들... 해마다 돌을 추어야만 되는 고장...

나는 눈앞에서 어지럽게 돌아가는 환영을 지우려고 돌아누웠다. 꿈속이런듯 이 몇주일동안 역사를 치른 돌추기작업이 또다시 머리속에서 맴돌았다. 육체의 고달픔은 점차 정신으로 옮겨갔다. 나의 눈앞에는 때없이 배우에서 웃고 떠들던 일과 억수로 쏟아부던 소낙비가 교차되어 떠올랐다. 점차 랑만과 현실은 하나로 융합되기 어려운것으로 생각되었다.

그 어떤 운명의 선고가 내려질것처럼, 아니 나 자신이 조만간에 이 들뜬 공상과 랑만에서 깨어나 어딘가 멀리로 갈것만 같은 생각이 자꾸만 나를 괴롭혔다. 그것을 다름아닌 바로 나자신이 원하고있다는것도 나는 알지 못하였다.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보지 않아도 욕심의의 웃음소리였다. 그는 동무들과 함께 있다는것으로, 특히 나와 같이 있다는것으로 무한한 행복감을 느끼는것 같았다.

어제일만 봐도 그랬다. 아차 실수로 돌을 놓쳐 버려 목직한 돌이 밭장등에 떨어졌을 때 그의 가냘픈 비명소리를 듣고 천방지축 달려갔다. 밭을 감싸고 주저앉은 손을 헤치고 상처를 들여다보았다. 주저없이 옷을 찢어 쳐매주었다. 아픔에 눈물이 글썽해진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가서 좀 쉬오. 내가 다 할테니.》 하고 위로했다.

그때 나는 아픔에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다정한 미소를 짓고있는, 피로하고 힘에 겨워도 무한한 행복감에 잠겨있는 그를 볼수 있었다. 그의 나에게 대한 믿음은 깨끗하고 깊은것이였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 나는 만족과 긍지대신 고통이 온몸을 휩쓰는것을 푹푹히 느끼었다.

길지는 않으나 힘겨운 몇해가 흘렀다. ...때는 오고야말았다. 우리와 함께 왔던 두 동무가 결혼

을 하고 다른 고장으로 떠나가버린것이다.

그날저녁 옥심이는 울었다. 참으려고 해도 간간이 새어나오는 흐느낌소리를 막을수 없는지 얼굴을 싸쥐고 자리에 주저앉아버렸다. 그 울림이 나에게도 공명되어 속이 좋지 않았다.

그후 나는 오래동안 그들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는것을 자기식으로 규정해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들을 타매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불안한 예감이 깃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나의 생각은 원줄기를 벗어나 자꾸 다른 곳으로 뻗어갔다. 그것은 이미 마음속에 든든히 뿌리내려 가지를 치고 나 자신도 움작 못하게 만들었다.

옥심이는 나의 생활에서 일어난 변화를 너그럽게 이해했다.

《철규동무여, 팬찮아요. ...그들은 그렇게 돼서 간걸요. 우리가 있지 않아요?》

그는 내 마음의 짜증과 우울을 떠나간 동무들에 대한 그리움과 야속함으로 하여 생기는것이라고 이해했다. 그런 생각이 더욱더 나를 괴롭힌다는것을 옥심이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옥심이가 나를 《거울》로 세워놓고 거기서 반사되는 빛으로 자기를 단장하려고 애쓸수록 나 자신은 신경질과 엇드레질로 그 빛에서 벗어나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생활은 은연중에 위치가 바뀌어졌다. 내가 큰소리를 치고 역증을 낼수록 이제는 옥심이가 웃음과 미소로 나를 위안하려들었다.

어느날이었다. 나는 그와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았다. 그해 돌추기전투의 마지막날이었다.

모닥불은 기세좋게 타올랐다. 빨간 불씨들이 경쟁적으로 솟아올라 온갖 재주를 부리고는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춤추는 불씨들을 바라보느라니 가지가지 상념들이 머리속을 들쭉시며 떠올랐다. 대개는 지난날의 생활과 추억에 대한것들이었다.

학창시절의 열정과 부풀던 희망에 대한 생각과 오늘의 현실이 교차되면서 자신도 알지 못할 우울한 생각에 빠져들어갔다.

옥심이는 무르팍에 턱을 고이고 중얼거렸다.

《참... 얼마나 좋아요. 모든것이 눈앞에 선히 보이는것만 같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것을 발명해서 농업박사가 될지도 몰라요. 이 산골돌밭에 감자농사만이 아니라 이모작도 실현하여 앞그루로는 밀, 보리를 심고 그뒤로는 감자를 심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때면 나와 동무는...》

《됐소, 됐소. 그런 허황한 공상같은 소리는 하지도 마오. 희망이라건 실현할수 있는 여지가 있는것을 두고 하는 소리요. 아무것에나 희망, 미래를 갖다붙이는게 아니요.》

옥심이는 어지간히 놀랐다. 팽팽해진 나의 신경은 드디어 《터지기》 시작했다. 참고참았던 분

화구가 끓을 찾은듯 거침없이 험한 말이 쏟아져 나왔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 여기에 올 때 난 꿈이 컸더랬소. 큰일을 할수 있으리라고 당당히 자부도 했고. 그러나 날이 가면서 너무도 많은것을 몰랐다는걸 느꼈소. 리상과 현실간에는 차이가 있으며 더우기 리론과 실천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걸 말ियो. 난... 난... 무섭소. 돌이나 추자고 평생 여기에 묻혀있을수는 없단 말ियो. 더는... 못참겠소. ...가고말겠단 말ियो.》

옥심이는 아연하여 미처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동문... 지쳤군요. 며칠... 쉬는게 어때요?》

그러자 나는 책- 옥심이를 돌아보았다. 그때의 나의 눈길이 어떠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옥심이는 자기를 바라보는 눈길에서 한갓 투정이나 하소연이 아닌 진심의 소리를 읽은듯 했다.

다음순간 당황함과 노여움과 원망이 담긴 복잡한 눈길이 똑바로 나를 주시했다.

평상시에는 명랑하고 감상적인 그였지만 일단 자기로서 막을수 없는 저항이 생겼을 때에는 남달리 말이없고 생각이 깊은 그였다.

나는 그와 마주앉은 자리가 참을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옥심이의 맑은 눈에는 물기가 불빛에 번뜩이였다.

어째선지 쿡 솟구치는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어둠속이었지만 옥심은 황급히 머리를 돌려버렸다.

나는 미구에 떨어지게 될 그의 눈물을 보지 않으려고 눈길을 내리깔았다. 그날부터 나는 자기 《합리화》에로 내닫기 시작했다.

얼마후 나는 농기계작업소에 조동되게 되었다.

마을앞 큰길로 걸어오면서 나는 속으로 옥심이를 생각했다. 그가 어떻게 나오겠는지...

옥심이는 멀지 않은 바람골에 있었다. 방금 움트기 시작한 감자싹을 살펴보고있었다. 마음속 불안은 컸으나 그가 나를 리해해주기를 바랐다.

떠나는 날이었다. 옥심이는 고집스레 입을 다물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정작 그가 팔을 붙잡지 않으니 어쩐지 섭섭했다. 그러면 그를 납득시키는 《멋있는》 말들이 쏟아져나왔을텐데 ...

그는 수척해진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입속말로 말했다

《잘 가...세요.》

그는 이 말을 힘들게 했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게 들렸다. 옥심이는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칼을 천천히 쓸어올렸다. 그 손에는 봉대가 감겨있었다. 돌추기작업의 흔적이였다.

나는 못볼것을 본것처럼 얼른 눈길을 돌려버렸다. 네명이 왔다가 제일 연약한 옥심이를 혼자 두고간다는 죄의식때문이었다.

...런두봉마루를 등지고 옥심이의 자그마한 모습이 서있었다. 왜서인지 나의 눈앞에는 그의 자

그마한 모습과 함께 붉게 타던 빨간 산딸기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언젠가 옥심이 산딸기에 물을 주며 하던 말이 귀전을 울렸다.

《…내가 살던 고향마을에도 이런 산딸기가 많았어요. 산딸기가 없어야 무슨 산골정서겠나요? 어쩐지 난…산딸기가 좋군요.》

《설마 여기가 고향이라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지?》

나는 허거뜰 웃음을 웃었다. 천진하고 순진한 옥심이…

그 어떤 강렬한 욕망이 다시한번 나를 그한테 이끌었다. 나는 그가 옆에 있더라도 한듯 뒤를 돌아보았다.

(옥심이, 나와 함께 가세요!)

(아니요, 가지 않겠어요. 난 여기에 정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내짚었던 한발을 나는 스스로도 놀라며 얼른 움츠렸다. 때는 이미 늦었다. 나는 가야만 했다. 나는 그가 어차피 나를 따라오리라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로부터 몇달후 나는 그가 일하는곳으로 가게 되었다. 혼자 남은 옥심이 걱정되어서였다. 농장은 크게 달라진것이 없었다. 마을가운데로 난 길옆에 어린 과일나무모들이 줄지어 서있고 본래 있던 건물들이 깨끗하게 때뱃이를 한것이 눈에 띄었다. 내가 찾는 옥심이는 관리위원회에서 조금 벗어난 건설장에 있었다.

(말이 건설장이지 모래와 세멘트를 갖다놓은것에 불과했다.)

네모반듯하게 기초를 판 가운데에 커다란 돌무지가 있었다. 큰것들만 골라다났는지 하나같이 넘적넘적한것이 기초에 쓰러는것 같았다. 그 돌하나를 손에 쥐고 옥심이는 무슨 생각인가 골똘히 잠겨있었다.

《옥심동무!》

나는 나직이 그를 불렀다. 바람결에 스치는 소리가하여 고개를 숙이고있던 그가 재차 부르는 소리에 머리를 들었다. 어딘가를 공허한 눈길로 바라보던 그가 나에게로 시선이 미치자 얼굴색이 확 빛났다.

《아니, 이게 누구예요? 철규동무!》

나에게로 달려오던 그는 문득 굳어져버렸다. 나의 옷차림에 무색해진 모양이었다. 나 자신도 별로 달라진것이 없었다. 계절에 맞게 진회색복외투를 입고 구두를 신은것이 전부라 할가. 그런데도 그는 굳어진것이였다.

그러나 옥심이는 인차 얼굴색을 고치고 나에게 달려와 두손을 맞잡았다.

땀에 젖은 땀뻘한 작업복이 육감으로 안겨왔다.

떠날 때의 옥심이와 조금도 달라진것이 없는 그를 보자 나는 착잡한 생각에 잠겼다. 기쁘다고 해야 할지, 서글프다고 해야 할지.

하여튼 나는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옥심이는 물었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기에 오셨어요?》

그는 그전의 일은 상기시키지 않았다. 웅당 그래야 하는 사람을 만나기라도 한듯 얼굴표정과 목소리에서는 아무런 꾸밈도 가식도 없었다. 이것이 나의 마음속 한귀통이를 피로했다.

나는 험험한 태도로 말했다.

《옥심이가 보고싶어서 왔소. 그새 앓지는 않았소?》

옥심이의 얼굴이 붉어졌다.

《고마워요. 전 일없어요. 헌데 철규동문 일이 재미나는가요?》

《...》

예민한 옥심이가 허리를 굽히며 발밑의 돌을 집어들었다.

《아이, 이 돌이 어떻게 여기에 있을가 분명 저기에 쓸 돌인데!》

《아직도 돌을 가지고 고생이요?》

《우린 여기다 온실을 짓자고 토의했어요. 절기가 늦은 우리 농장의 실정에 맞게 온실에서 모를 키워서 제때에 밭에 내가자구요.》

옥심이는 이모작이 어찌구 저찌구 하며 장래의 일을 신이 나서 설명했다. 나는 점점 힘이 빠지는것을 느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이제는 낮이 선 들판이며 농장마을, 관리위원회를 우울한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문득, 나의 눈에 강하게 비쳐오는것이 있었다. 빨갛게 비쳤다 언뜻 사라지는, 그것은 산딸기였다. 파아란 풀판속에 유난히도 붉게 타오르는 산딸기는 이상하게 나의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거친 땅에 뿌리를 내려도 기어코 열매를 맺고야 마는 산딸기... 그 산딸기가 옥심이의 마음인것 같아 나는 끝내 할 말을 잊고말았다. 옥심이의 웃음과 미소에는 분명 나의 말을 막는 알지 못할 저항이 있었다.

그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산딸기의 강렬한 빛을 보는 순간 이 땅에 뿌리내리려고 애쓰는 옥심이의 마음의 불꽃을 보는듯 했다.

옥심이는 끝내 나의 생활에 대해 묻지 않았다. 만약 그가 한마디라도 물었다면 나는 기꺼이 함께 가자고 청했을것이다.

그러나... 옥심이는 앞으로 번창할 농장살림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나는 농장을 떠나왔다. 옥심이는 이웃농장의 경계선까지 나를 배려주었다. 해별에 까뭇까뭇 타고 천진스럽던 눈이 더 커진듯 싶은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나는 나직이 속삭였다.

《잘있소, 옥심이...》

《고마워요. 철규동무. ... 제 심정을 리해해줘서...》

《뭘 말ियो?》

나는 되물었다.

《전 다 알아요. 동무가 왜 왔는지... 동무는 제게 온 중요한 목적을 말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고맙다는거예요!》

욕심이는 끝내 나의 가장 아픈데를 건드리고야 말았다. 그의 말은 옳았다.

나는 욕심을 데려가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왔던 것이다. 그런데 왜 그 말을 못했는지, 온실이요, 뭐요 하는 나로서도 어쩔수 없는 저항이 있었기때문이었다.

헌데 그는 떠나는 이 시각 내가 하지 못한 그 말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지 않는가.

나는 인생에서 자기가 목적했던바를 언제나 실행했다고 자부해왔다. 나로서도 스스로 제기했던 목적을 포기하고 그냥 떠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의 친근한, 고맙다는 말은 어딘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예리한 아픔을 주었다.

나는 그에게서 더는 어쩔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을 느꼈고 그것을 도저히 이겨낼수가 없었다. 욕심을 데려감으로써 은연중에 자기 인생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려고 한 이 모든 자가당착적인 모순이 무엇때문에 일어났는지 그때는 미처 알수가 없었다.

욕심이는 나의 이 불안하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듯 다정하게 말했다.

《철규동무, 십여년동안 학교에서 배워왔구 체험을 통해 터득한, 생활의 아름다움과 진실을 실천으로 심장에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운 일이더군요.

전 동무를 보자 무서워어요. 두렵더군요. 나의 결심과 감정이 흔들릴가봐 겁이 났어요. 난... 나 자신을 배반할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녔던 꿈과 리상을 버릴수 없단 말이에요.

나도... 여기를 떠날수 있어요. 여기엔... 날 붙잡는 사람도 조건도 없어요. 하지만 난... 이 땅을 버릴수 없어요. 우리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얼마나 많은 맹세와 결의를 다졌던가요. 애써 정을 불이려고 노력도 했지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서는, 열렬한 사랑을 떠나서는 결코 정들수 없는게 땅이더군요. 그 사랑을, 열정을 꽃피우는것이 바로 리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닐가요?... 고맙워요. ...동무가 이걸 리해해주어서... 부디... 성공하세요.》

나는 눈곱이 저러날만큼 가슴이 아팠다. 그의 말은 나에 대한 말없는 질책이었고 충고였다. 다만 그는 타고난 천성 그대로 아무런 아픔도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정답과 명랑한 말로 말했을뿐이었다. 그것은 나로부터 《해방》되어 폭발적으로 성장한 욕심이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했다.

이것으로 욕심이와 나와의 관계는 끊어져버렸다. 그날 허청거리는 걸음으로 그의 곁을 떠나오

면서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욕심이, 고맙다는 말을 하지 마오. 두고보오. 나도 동무처럼 생각했더랬소. 하지만 매 사람의 인생에는 한번 먹은 마음을 다시 바꿀수 있는 그런 순간도 있는거요. 젊은 시절의 리상과 꿈이 현실에 발붙일수 없는 헛된 것이었다는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제때에 그것을 시정해야 하오. 나는 동무의 고집이 하루빨리 고쳐지기를 바라오.》

...나는 신문을 쳐들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나 다음에는 바싹 당기어 가까이서 바라보았다.

신문속의 욕심이는 약간 미소를 짓고 웃고있었다. 그는 분명 연약하고 감상적인 녀성임에 틀림 없었다. 하지만 그는 외진 산골농장에서 당의 갑자농사혁명방침과 두벌농사방침을 관철하여 우리 당이 아끼는 선군시대의 숨은 공로자로 온 나라 사람들의 존경속에 사는 인간으로 성장하였다.

그런데 나는?...

그와 나는 생활의 출발점은 같았으나 가당은 꽃은 서로 달랐다. 나에게는 자기 자신심과 총명은 있을지언정 생활에 대한 굳은 믿음과 뜨거운 사랑이 부족했다. 조국의 대지에 꽃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자던 고귀한 리상을 자기 리기라는 좁은 심장속에 몰아넣고 결국은 사랑을 버리고 시대를 버리고 자기자신까지 버리었다.

사랑과 신념을 떠난 리상-그것은 한갓 자기만을 위한 공리공담에 지나지 않았다.

욕심이는 그렇지 않았다. 비록 뿌리는 연약해도 대지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엄혹한 바람이 불어와도 그것을 지켜내었다. 내가 우습게 알던 천진란만하고 감상적인 면은 결코 어린애의 꿈과 같은 그런것이 아니었다.

이 땅과 이 대지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이었으며 그것이 뿌리를 내릴수 있는 귀중한 씨이었다.

그와 나와는 차이는 여기에 있었다. 그 땅은 자기를 사랑하여 뿌리박은 연약하던 한송이 꽃은 선군시대의 참된 인간으로 키워주었다. 만약 그가 자기 생의 뿌리를 넓은 대지에로가 아니라 자기자신속에 두었다면 오늘의 욕심이를 만들지는 못했을것이다.

욕심이의 미소속에는 리상과 현실을 결합시킨, 이 땅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리상을 꽃피운 행복으로 하여 오는 우리 시대 참된 인간의 소박하면서도 숭고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땅막에는 20여년전에 보았던 산딸기의 빨간 빛이 유난히 안겨들었다.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그리고 이악한 성품으로 모진 비바람속에서도 거친 땅에 뿌리를 박고 기어이 산촌의 아름다움과 정기를 뿜어올린 산딸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직 나누지 못한 인사

신용선

선군시대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대회에 참가할 우리일행을 태운 소형버스가 려관에 도착한것은 당창건기념일 다음날 오후 3시경이었다.

날씨는 류달리 맑고 해빛은 무척 따스했다.

드넓은 려관 앞마당에는 벌써 지방과 평양시내 여러 기관들에서 온 회의참가자들이 서로 찾고 부르며 인사를 나누는가 하면 기념사진들을 찍느라고 범석 뿔었다.

그들의 얼굴마다엔 한결같이 가슴속에서 끓어오른 긍지와 자부심, 희열과 기쁨이 어려있었다.

선군시대의 밝은 해빛과 청신한 공기, 충분한 자양분으로 신념과 의지를 버리고 담을 키운 억세고 튼튼한 모습들이었다.

어찌 그렇지 않랴.

이들은 수천척지하막장과 협동벌에서, 과학문화부문과 공장을 비롯한 인민경제 그 모든 전선에서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충정으로 받들어왔으며 그 구현을 위한 투쟁에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친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이었던것이다.

숙소를 향해 걸음을 옮기던 나의 마음은 저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지면서 주눅이 들었다.

어쩌면 나의 존재가 마치 하늘높이 자란 아름드리거목의 수림속에 끼여있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한그루의 작은 나무처럼 느껴졌던것이다.

이것은 솔직한 고백이다.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역세계 싸워온 선군의 나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오직 위대한 장군님 한분만을 굳게 믿고 온갖 시련을 파감히 헤쳐온 영웅서사시적행로였으며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의지를 심장으로 절감한 나날이었다.

준엄하고도 보람찬 이 나날에 나는 어떻게 살며 투쟁하였는가, 과연 나도 그 어떤 광풍이 휘몰아쳐와도 끄떡없을 거목처럼 느껴지는 저들처럼 이 시대와 조국과 인민을 위해 크게 해놓은 일이 있는가.

깊은 생각속에 걸음을 옮기던 나는 저도 모르게 사람들속에 싸여 사진기앞에서 활짝 웃고있는 한 녀인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얼굴이 통투무래한 녀인의 량쪽가슴엔 **김일성** 훈장을 비롯한 여러 훈장과 메달들로 꽉 차있었다. 그 많은 훈장과 메달들은 나를 무척 놀라게 했다. 하지만 나로 하여금 발걸음을 멈추게 한것은 훈장과 메달뿐만이 아니었다.

낯익은 얼굴모습이었던것이다.

어디서 만나보았던가? 아무리 기억을 더듬고 생각을 굴려도 선뜻 떠오르지 않았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머리속엔 오직 그 녀인의 생각으로만 꽉 차있었다.

밤이 퍼그나 깊어서야 나의 눈앞에 문득 번개 불마냥 스치는 모습이 있었다.

그것은 7년전 어느 겨울날에 있는 일이었다.

그때 나는 취재를 위해 천내탄광에 나가있었다. 탄광에서 근 한달정도 취재를 마친 나는 마지막 무렵에 보충취재를 위해 원산으로 나가야 할 일이 생기었다. 마침 탄광에서 원산쪽으로 물자실으러 나가는 화물자동차가 있어 나는 운전칸에 몸을 실었다.

화물자동차는 밤길을 달렸다.

흰눈이 넓게 깔린 도로우엔 오가는 사람은 물론 자동차도 별반 없어서 운전사는 쾌속으로 차를 몰았다.

차창밖으로 눈덮인 벌판과 창문가에 방등불빛이 희미하게 비친 집들이 소리없이 마중해 달려왔다가는 언뜻언뜻 멀어지곤 하였다.

전등불빛 한점 없었다. 무겁고 침침한것이 밤의 대기를 짙게 짓누르는듯 싶었다.

나의 마음도 무겁기 그지 없었다.

미제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책동과 여러해째 거듭되는 자연재해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참기 어려운 고난을 던져주었던것이다.

나는 무거워진 마음을 털어버리듯 세차게 도리를 저었다. (그럴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은 결코 주저앉지 않을것이다. 장군님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온 세상 사람들이 보란듯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고야 말것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으며 두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았다.

어느새 자동차가 문천을 가까이 하고있을 때였다. 시창밖에 눈길을 주고있던 나는 그만 흠칫 놀랐다.

자동차전조등불빛이 길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비쳤던것이다. (한밤중에 웬 사람일까. 혹시 로상에서 앓는 사람이...)

운전사도 그것을 띄어보았는지 급히 제동기를 밟았다.

나는 지체없이 차문을 열고 길우에 뛰어내렸다.

그다음엔 경황없이 한달음으로 달려가 길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려고 덤벼쳤다.

《왜 그러시우?》

커다란 배낭을 옆에 놓고 앉아있던 사람은 뜨아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며 천천히 상반신을 일으켰다.

나이가 지숙한 녀인이었다. 추운 겨울날씨임에도 그의 얼굴에선 땀이 흐르고있었다. 성예가 허영계 내불린 누빈 솜옷과 목도리 그리고 눈이 잔뜩 엉켜붙은 솜신과 몰아쉬는 숨결... 그 모든것을 미루어보아 녀인은 무거운 배낭을 지고 먼길을 걸어온것이 분명하였다. 했건만 나를 마주 쳐다보는 그의 두눈과 땀에 젖어있는 너부죽한 얼굴에선 한마디로 짝어 말할수 없는 그 어떤 강인함과 위엄기가 한데 비껴있었다.

나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나는 어쭙게 웃고말았다.

《어데까지 가십니까?》

《문천에요.》

녀인은 자동차쪽에 눈길을 던지며 덜컥스러운 어조로 대답했다.

《몹시 지친것 같습니다?》

《지쳤지요. 무거운 배낭을 지고 먼길을 걸어왔으니까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왔단 말입니까?》

나는 끄떡 놀라며 한동안 침묵했다가 다시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어서 자동차에 오르십시오. 문천까지 가자면 아직도 10리길을 가야 하겠는데...》 하며 나는 서둘러 배낭끈을 움켜잡았다.

《그만두세요. 난 걸어가겠습니다.》

《?!》

나의 눈은 대번에 커졌다.

《지금이 어느때요. 휘발유가 피방울처럼 귀한 때에 나까지 차를 타면...》

《자리가 있으니까 어서 오르십시오.》

길우엔 달빛이 교교히 비쳤다....

그 녀인이었다. 분명 그 녀인이 틀림없었다.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로대에 나가 불야경을 이룬 수도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하면서 나는 래일 꼭 그 녀인을 만나 인사를 하리라 속다짐했다.

그 이튿날부터 나는 녀인을 만나 회포를 나눌 기회를 얻으려고 무척 애를 썼건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휴식기회가 생기면 술한 사람들이 저마다 녀인의 손목을 잡고 사진기 앞으로 이끌어갔던것이다.

이렇게 이들이 지나갔다. 할수없이 이젠 회의 휴식시간에 만나볼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장내를 꼭 채운 회의참가자들속에 섞여 흥분된 심정을 억제 못하며 좌석에 앉아있던 나는 너무나도 뜻밖이고 놀라운 일이어서 그만 어안이 병병해지고말았다.

회의주석단 성원들과 함께 내가 것처럼 만나보려고 하면서도 아직 이름과 직장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녀인이 나타났던것이다.

뿐만아니라 토론연단에 나서기까지 하였다.

그때에야 나는 그 녀인이 어느 지방 식료공장의 지배인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우렁차고 매 말마디에 불같은 열정과 힘찬 기백이 담겨져있는 그의 토론은 첫 시작부터 회의 참가자들의 심금을 틀어잡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역경속에서도 본래 공장을 형체없이 허물어버리고 그 자리에 선 군시대 맛이 나게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식료공장을 일떠세운 이야기며, 읍에서 70리 떨어진 깊은 산골막바지에 수십여정보의 원료기지를 개간하고 해마다 강냉이만 해도 수십톤이상 생산하는 이야기며... 나는 경탄과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의 토론은 회의참가자들의 심장을 크게 울려주었다.

토론을 마친 녀인은 주석단 제자리에 소박한 몸가짐으로 다시 앉았다. 뜨거운것이 나의 눈시울을 후덥혔다.

나는 그것을 손수건으로 연신 훔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우리 세대가 살고있는 선군시대에 대하여 그리고 이 시대가 키워내고있는 참담고 아름다운 인간들의 일본새와 담력과 숭고한 정신세계에 대하여... 나는 주석단에 앉아있는 녀인을 거울로 삼고 거기에 나를 비쳐보았다.

머리를 들수 없었다. 방금전까지 그를 만나 그 무슨 회포를 나누려고 했던 나의 생각이 그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통절히 깨달았다.

다시한번 확인하건대 저 녀인은 아름답지거 못하고 나는 일사귀도 제대로 피어나지 못한, 불품조차 없는 잡관목처럼 느껴졌다.

나는 세차게 머리를 저으며 주먹을 틀어잡았다.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다.

나도 한시바삐 이 시대를 빛내이고 우리 후대들이 영원히 기억할 선군시대거목으로 자라나자. 그 다음에 저 녀인을 찾아가 인사를 하고 회포를 나누자.

이것이 선군시대사람들의 참다운 레절이고 도리이며 량심이 아니겠는가!

이 땅의 변혁을 두고

송해경

나는 새해 첫 아침의 들길을 걸어본다.
 하지만 나는 따뜻한 봄을 느끼고있다. 눈밑의
 검스레한 세계, 잠든듯, 꿈꾸는듯 고요한 세계...
 그 아득한 땅의 밑뿌리에서 봄은 오는것인가?!...
 두엄무지마다에서 흰 김이 피어오른다. 개천-태
 성호사이의 푸른 물줄기는 조용히 설레인다. 나
 는 벌써 논배미로 첩첩 흘러드는 정다운 물소리
 를 듣고있다. 그렇다. 봄은 바로 나의 마음속에서
 오는것이다!
 물소리... 물소리... 나의 귀에 익고 몸에 젖고
 뉘에 배인 물소리...
 나의 아버지는 논물관리공이었다. 한해의 절반
 은 벌에 나가 살다싶이 하였다. 어둡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의 저녁밥을 꾸려들고 별로
 찾아가면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삽을 둘러메고
 두렁길을 걷고있었다. 벼포기가 아지를 치는 논
 두렁에 앉아 뜨뜻한 논물에 발을 잠그고 맛있게
 밥그릇을 비우면서 아버지는 버릇처럼 외우곤 했
 다.
 《오늘도 한 100리길을 걸은것 같애. 예, 팔다
 리가 다 뻗뻗하구나.》
 나는 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종알거렸
 다.
 《아버지, 논두렁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웃음을 짓고 대견한 자식을
 쓸어주듯 밤안개 서린 벌을 정겹게 바라보았다.
 《그랬으면 더욱 좋겠지만... 얼마나 자랑스러운
 땅이냐. 피와 땀을 간직한 땅이 아니냐. 그저 이
 몸을 깡그리 바쳐 걸굴수만 있다면 한이 없어.》
 아버지는 평소에 늘 외우던 그 말처럼 한생 이
 땅을 위하여 사랑을 바쳤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내가 논물관리공이 된 그
 해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우리 민족
 이 처음으로 되는 대국상을 당하고 땅을 치던 피
 눈물이 채 가시기도전에 사회주의조선을 질식시
 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고 련이어 계속되는 자연재해는 우리
 의 생활을 위협해나섰다.
 말라드는 벼포기와 함께 내 가슴도 탔다. 나는
 날마다 해를 이고 별을 이고 두렁길을 걸었다.
 물이 랑비될세라 걷어들이고 모으며 힘이 진해
 쓰러질 때까지 걷고 또 걸었다. 생의 마지막시
 기에도 온천벌을 찾으시여 농사문제를 두고 걱정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생각하였다.

어제날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그랬듯이 이제는
 나의 아이들이 나를 찾아 별로 마중나오곤 하였
 다. 달빛어린 논두렁에 밥보자기를 퍼놓는 어린
 딸에게 나는 아버지의 옛말을 읊기곤 하였다.
 《오늘도 한 100리길을 걸은가부다. 어깨가 다
 빠근하구나.》
 귀여운 딸은 나의 잔등을 살뜰히 두드리며 동
 심이 비긴 하소연을 쏟아놓았다.
 《저 작은 논들을 다 합칠수는 없습니까? 그럼
 엄마가 걷는 길이 절반으로 줄어들텐데...》
 나는 딸의 눈물겨운 애무에 마음을 맡기고 물
 젖은 손으로 머리를 쓸어주었다.
 《그래도 지금은 훨씬 나아졌다. 할아버지가 일
 할때보다는 펍 많이 없어졌어. 이제는 더 어쩔수
 가 없다. 그저 누구나 인민군대처럼 이 땅을 목
 습바쳐 지키면 돼, 예... 어디서 물줄기나 탁 터
 졌으면 좋겠구나.》
 그런데 딸의 소원, 나의 소원이 모두 풀릴줄이
 야!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에 따라
 이 나라에 대자연개조의 장엄한 포성이 울렸다.
 강원도의 토지정리전투로 전국이 들끓더니 수백
 리 개천-태성호사이의 물길공사가 시작되었다.
 우리 마을에도 인민군대들이 왔다. 불도젤들이
 진을 치고 우뢰와 같은 동음을 울리며 번쩍이는
 억센 강철삽날로 울방줄망한 다락논들을 밀고나
 갔다. 인민군대들의 뒤를 이어 전국의 청년들이
 돌격대를 뭏고 달려왔다. 어디서나 혁명적군인정
 신이 내려쳤다.
 한밤에도 가을의 전야에 불도젤의 전진은 멈춰
 서지 않았다. 전조등불빛으로 밤을 무찌르고 활
 활 타오르는 해불로 어둠을 불사르면서 산악같이
 흩발을 밀어내어 운동장처럼 땅을 고루어나가는
 군인들의 기쁨문은 손을 움켜잡고 한 농민은 말
 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이 땅의 념원이 꽃렸습니
 다.》
 나의 마음도 자나깨나 군인들에게 가있었다.
 밤낮으로 쿵국을 끓여들고 전투장을 찾아갔다.
 인민군대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논두렁을 다쳐
 나갈 때면 배고파도 기운이 솟았고 멀리 떠나온
 처녀시절로 되돌아간듯 희열이 넘치고 뭔가 크나
 큰 행복이 마중오는듯 한 느낌으로 가슴이 부풀
 었다. 군인들은 식사하는 시간마저 아까워했다.
 농민들을 울리고 두터운 이 땅을 울리는 군인들

의 한결같은 대답.

《빨리 끝나야 합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리의 보고를 기다리고계십니다!》

왈칵 뜨거운것이 가슴을 적셨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조선을 지켜주시려 쉬임없이 전선길을 걷고 걸으시는 우리 장군님의 영상이 우렁이 안겨왔다.

아, 장군님. 우리 농민들의 수고가 뭐라고 이 어려운데 이처럼 거창한 토지건설구상을 펼치고 이처럼 뜨거운 심혈을 쏟아부으신단 말입니까!

수수천년을 내려오는 조상의 땅이 귀한줄 알면서도 이 땅이 그렇듯 젊어지리라고는 꿈도 꿀수 없었던 우리 농민들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이 아니시고야 이 세상 그 누가 우리 농민들의 념원을 헤아려주며 그 누가 감히 이 땅에 천지개벽을 이루어주실수 있을것인가! 그리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인민군대가 앞장서지 않고서야 그 거창한 토지건설전투와 방대한 물길공사를 그렇듯 빨리, 그렇듯 훌륭하게 끝낼수 있었을것인가! 가장 어려운 전투장마다에는 언제나 인민군대가 서있었다.

이것이 선군이였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의 불패의 위력이였다! 그 옛날 돌이 많아 《밀암별》이 오늘의 사회주의 《미남별》로 변모되는 그 벅찬 투쟁의 나날은 위대한 장군님

의 선군정치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절감하는 격정의 나날이였다.

나는 지금 아득한 별 한끝에 서서 감개에 젖은 눈길로 들을 바라보고있다. 활짝 넓어진 미남별, 거기서 흘러드는 개천-태성호의 영원한 생명수, 덕산기슭에 그림같이 일떠선 새 농장마을의 날아갈듯 한 합각지붕, 하얀 벽체, 방긋 웃는 창문들... 전변이였다! 변혁이였다!

어찌 이것이 미남별의 새 전설만이라 하랴, 이 나라 방방곡곡의 전야에 청춘의 활력과 만년미래가 담보된 《미남별》, 《한드레별》들이 아득히 펼쳐졌다. 개천-태성호의 물길은 백마-철산사이 물길로 이어지고 크고 작은 발전소들이 어딜가나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랐다. 공장들에서는 힘찬 동음이 울려나오고 산관들에는 염소떼가 흐른다.

눈물겹도록 가슴 뜨거움에 젖어 나는 새해의 들길을 걷고 또 걷는다.

바야흐로 봄이 오면 이 땅에 또다시 푸른 이삭들이 머리를 들고 설레일것이다.

귀중한 땅, 이 땅을 목숨으로 지켜갈 신념과 맹세를 안고 나는 한생을 바쳐갈것이다.

래일은 나의 아들이, 딸이, 그 후손들이 이 길을 걸을것이다.

아, 그때는 이 땅이 또 얼마나 더 휘황찬란하게 전변될것인가!...

○상식○

음식이름에 《약》자를 붙여 부르는 유래

우리 나라 민족음식가운데는 《약》자와 결부되어 불리우는 음식이 적지 않다. 그러한 대표적인 음식으로서는 약밥, 약과, 약산적, 약포 등을 들 수 있다.

약밥은 찰쌀로 지은 밥에 참기름, 꿀, 밤, 대추, 잣, 간장을 두고 골고루 섞은 다음 시루에 찌낸 특색있는 밥이라면 약과는 밀가루, 꿀, 참기름, 술, 생강즙을 한데 섞어 반죽하여 약과판에 찍어 내거나 납작하면서도 네모나게 썰어 기름에 튀겨 꿀에 채웠다가 잣가루, 계피가루를 뿌린 파자이다.

그런가 하면 약산적은 보드랍게 다진 소고기를 파, 마늘, 생강, 참기름, 꿀 등으로 만든 양념에 채웠다가 꼬챙이에 꿰여 깨소금을 뿌려 구운것이고 약포는 소고기를 얇고 넓적하게 저며 기름장

에 채웠다가 간장, 꿀, 깨소금, 기름, 후추가루, 파, 마늘로 만든 양념에 버무려 말리운 부식물의 하나였다.

이러한 음식들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수 있는 특이한것은 어느 음식에나 다 꿀이 들어간것이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꿀을 《백화지정》 즉 백가지 꽃의 정기로 일러왔으며 일찍부터 음식조리와 약재로 널리 리용하여왔다.

조선봉건왕조시기 편찬된 《지봉류설》(1614년)이나 《규합총서》(19세기초)에도 꿀은 온갖 약중에서 으뜸이라고 씌여져있다.

이로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꿀을 넣어만든 음식은 그대로 약으로 된다는 의미에서 《약》자를 붙여 부르게 되었던것이다.

어머님을 닮고싶어...

김은숙

그 누가 말했던가
딸자식은 어머니를 닮는다고
닮고싶어
정말로 닮고싶어
아 우리 어머님 김정숙어머님

닮았으면
붉은별 군모아래 미소를 지으시던
어머님의 그 밝은 웃음을
닮았으면
소백수물결위에 청아하게 울려가던
어머님의 그 정든 목소리를...

어머님 늘쌍 즐겨입으시던
자주빚저고리를 정히 입어보며
태양의 붉은 노을빛에 이 마음 물들이노라
산나물로 어머님 맛나게 담그시던
백두산의 그 김치맛으로
내 사는 가정에
그날의 향취를 더해주고싶어라

아름다우시면서도 지혜로우시고
부드러우시면서도 강직하신 어머님
충성과 헌신 미덕과 사랑으로
녀성의 최절정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녀인들이
어머니라 목메여 부르며 우러르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눈은 천년을 내려도 희다했더라
이 땅에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이 가슴속엔 영원히 어머님모습뿐
그 미소 그 마음 내 삶의 거울되어
언제나 어머님곁에 이 몸을 세우나니

닮고싶어
총탄이 비발치는 항일의 옛전장에서

수령결사옹위의 성새로 솟던 어머님
그 충정 닮고싶어
내 오늘도 생의 순간순간마다 오르는
대사하치기의 언덕이어

닮고싶어
전우들을 위해선
끓는 죽가마를 머리에 이시고
포연속을 달리시던 어머님
그 성품을 그대로 닮고싶어
이 심장에 불타는 동지애의 사랑이어

꽃이라도
봄을 먼저 알리는 진달래로 피고
고난도 웃음으로 이기는
어머님의 딸로 살고싶어...
인생의 아름다운 이 노래는
이 나라 녀인들의 마음속에
세기와 세기를 넘어 뜨겁게 울려퍼지나니

나는 보노라
백두밀림의 혈전장을 헤치시던 어머님의 그 걸음
남편들과 한 전호에 서있는
군인가족녀성들의 자욱으로 이어지고
만경대원아들을 한품에 안아
김일성민족의 아들딸로 키우시던 어머님의 그
사랑
총대의 미래를 키우는
모성영웅들의 숨결로 흐르고있음을

아, 내 한생 살리라 어머님처럼
빨찌산녀장군
우리의 어머님을 닮고 또 닮아
태양의 빛발로 아름다운
백두의 딸
선군의 딸이 되리라!

3월 8일

럼형미

1

이날의 아침해는 일찌기 솟는가요
안해의 새벽잠 깨울세라
슬그머니 부엌에 들어서신 남정네들
행주치마 두르고 서투른 칼도마장단에
코노래도 저도 몰래 흥흥
-오늘만은 아침밥을 내가 해야지 ...
어마나, 뒤늦게 달려나온 안해의 나무람에
아니아니 어서어서 싱갱이 하느라하면
어느새 후터워지는 녀인들의 마음
아, 한생 굶실이는 사랑의 바다에
행복의 갈매기들 푸드득 깃을 치는
아름답고 정깊은 아침입니다

2

이날의 한낮은 왜 그리 짧은가요
산같은 일감앞에 드바쁜 지배인도
현미경앞에서 밤낮을 모르는 연구사도
용케 짬을 내어 상점으로 달립니다
일년내내 일밖에 모른 그 행복이
그 뉘의 말없는 뒤바라지 덕이였는지

-오늘만은 내가 몰라서야 안되지...
사랑하는 녀인들에게 안겨줄 선물
제일 곱고 좋은것으로 궁리하고 고르며
사나이들 가슴에 차오르는 정으로
거리도 전차도 마음도 봄비는
환희론 사랑의 한낮입니다

3

이날의 저녁해는 어디로 지는가요
정성껏 차린 푸짐한 밥상에
남편과 아이들을 부르는 안해의 얼굴은
정말로 등실 뜬 《집안의 해》입니다
-오늘만은 당신도 한잔 하구려...
-고마워요
말없이 부딪치는 두 눈빛
까르르 터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 사랑으로 질주하는 열차에
새힘을 정비해준 명절의 이 하루
조국위해 더 순결해지고 더 뜨거워지자고
두 심장이 끝없이 속삭이는 3월 8일 저녁입니다

녀성과 꽃

박정애

녀성은 꽃이라네 행복의 꽃이라네...

봄숨결인양 부드러이
대동강은 뽀얀 물안개 피어올리고
상쾌한 아침하늘 가득히 울려오는
정다운 노래의 선율에
내 생각 깊어지고

뜨거움에 눈굽젖어라
다함없는 감사에 찌릿이 젖어들어라
녀성들을 나라의 꽃으로 피워주신
우리 수령님 고마워

우리 장군님 정말 고마워

×

녀성은 꽃 행복의 꽃
땅도 그땅
꽃도 그 꽃이건만
이 나라 녀성의 력사를 추억해보니
그 옛날 눈물에 젖고 설움에 젖던 우리 녀성들

그 옛날
이끼덮인 봉건의 때문에 간혀
세상이 그리운 갈망에 그네를 매였더라

천대와 멸시를 운명으로 타고나
깃뺏힌 노예살이 몸부림치며
울밑의 봉선화처럼 속절없이 졌더라

×

그 봄날부터였으리
이 나라 녀성들 새삶의 빛발 받아안은것은
우리 수령님
모진 찬서리속에서 붉게 피운 진달래
그 꽃속에 항일의 녀전사들 따스히 안아주신
못잊을 밀영의 그 봄날부터였으리

그래서 진달래꽃이 피면
송이송이 어려오는 녀투사들 모습
해방의 새봄맞이 선구자의 꽃
반만년 처음 자주녀성의 출현이었나니
위대한 태양의 그 품만이
수난 많던 녀성들 꽃으로 피웠노라

×

녀성은 꽃, 행복의 꽃
땅도 그 땅
꽃도 그 꽃이건만
눈속의 만병초인양 억세인 꽃
피어서 지지 않는 혁명의 꽃, 새삶의 꽃

세월이 흐를수록 그 향기 그윽하여라
못잊을 추억으로 그 이름 빛나는
락원의 너당원 신포향
천리마시대를 비단필로 수놓아온
나라의 자랑 선동원영웅 정방공영웅

천만의 마음 위훈으로 불러준 충성의 꽃

×

흰빛, 보라빛, 연분홍빛 무지개런가
세벌농사영웅으로 심산에 피어난 꽃
온 나라 벌가득 피워주신분
한생을 령길에 얹고 사는 도로관리원일가
애국의 꽃으로 붉게도 피워주신분

눈보라 몰아치는 시련의 조국은 준엄했어도
우리 장군님
야전복의 품속에 안겨
천송이 만송이로 활짝 피어난
오, 선군조국의 꽃 태양의 꽃이어

×

태양의 빛발없이
꽃을 생각할수 없듯
장군님의 그 품을 떠나면
순간 울밑의 봉선화로 지고말
꽃의 운명은 녀성의 운명

물안개 물안개
대동강 하안 물안개 물안개
태양을 우러러 이 강산에 피어난
목란꽃바다런듯
티없이 깨끗한 그 마음 흐르는듯
흘러흐르는듯

...

녀성은 꽃이라네 나라의 꽃이라네...

3 월은 어머니명절입니다

량성심

아기를 잠재우는 어머니
별도 많고 생각도 많은 밤
멀리서 들려오는 기적소리에
마음을 실어보냅니다
3월의 봄바람에 마음을 적십니다

한낮이면 기대앞에서
젖먹이시간이면 탁아소 아기결에서
하루의 모든 시간이
어머니의것입니다
어머니의 권리로
사랑을 꽃피우는 시간입니다

군인민회의 대의원이지만
가정에서는 어머니
아기를 키우고
부엌에서는 밥을 지으며
향기와 웃음을 가꾸는
평범한 어머니

이 나라의 이런 어머니들이
나라의 꽃으로
행복의 꽃으로
남자들과 똑같이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밀어갑니다

아, 그래서 어머니는 사랑입니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나날에도
보란듯이 더 많은 아들딸들을 낳아
나라앞에 내세운

이 나라의 어머니들은
이 나라의 평범한 영웅들입니다

3월의 봄바람에
웃고름을 날리며
공장구내에 들어서서 그 걸음
아버이장군님 오시였던
기대우에 꽃송이를 꽃고
비단을 짊니다
아기의 행복을 짊니다

필필이 늘어나는 비단은
조국의 아름다움입니다
무궁토록 번영할 래일입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것
사랑으로 수놓습니다
그래서 3월은
기다려지는 어머니명절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단상시

강옥녀

사랑의 총계

자식이 하나를 생각할 때
어머닌 둘을 생각하고
둘을 생각하는 자식앞에
어머니 열을 놓아주시니
아, 자식들 생각하며 오르는
어머니 사랑의 총계를 다 알고
덜고 오른 자식은 없어라

걱정

기쁨안고 왔던 자식 떠날적에는
어머니 문지방에서 내려주셨네
걱정안고 왔던 자식 떠날적에는
멀리 동구밖까지 따라서시네
인생의 먼길에 끝까지 가시네

사 랑

밖에서 놀면서 꿈꿨던 그 손도
어머니 호호 입김으로도 모자라
앞저고리에 꼭 질러 녹여주시네
큰일을 하면서 손 얼었을 땐
심장에다 녹여주는 나의 어머니

재 산

어머니에겐 언제나
제것이란 따로 없어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까운것 없이 모두 주시네
필요하다면 심장까지도
어머니들에겐 제것이란
오직 어머니란
그 이름 하나밖에 없어
하나 그 재산으로 영웅을 낳네

마주잡은 어머니들의 손

-서혜숙영웅을 노래함-

김영심

그날은
한 평범한 녀성이
만사람의 축복속에
영웅이 된 날

너인은 감격에 울고
모였던 너인들도
장군님 은정 너무 크고 고마워
눈시울 적시고

어서 그 손을 잡아보자
진정한 어머니의 그 손을
서혜숙영웅을 에워싸며
너인들 터치는 말 뜨거워라

서른세명 아이들 가슴속에서
부모없는 설움 가셔주어서만
그 손이 그렇듯 뜨거우라

차례로 열다섯
장군님 병사로 키운
그 정신이 소중한
놓지를 못하는 영웅의 손
울고 웃으며 마주잡은 어머니들의 손

아, 잡아보니
아동단원들 품어안으셨던
김정숙어머님의 불같은 온기
그 손에서도 실려오는듯

마주잡은이
모여온 너인들의 손뿐이라
온 나라 어머니들이 다 잡았네
마주잡은 어머니들의 손 쳐드니
선군의 총대숲이 무성해지여라

◁추억에 남는 시▷

하늘의 별들이 다 아는 처녀

정서촌

내앞에 한 처녀가 서있습니다
그는 탈곡장에서 한창 벼를 훑다가
잠시 쉬일참에 이렇게 만났으나
수집은듯 좀체 얼굴을 들지 않습니다

가을별에 그슬은 가름한 이마와
유난히 반짝이는 맑은 눈동자와
그리고 웃을 때는 더욱 두볼에 애티가 어리어
불수록 그저 귀엽기만 한 처녀입니다

만일 그의 목에 붉은넥타이를 매여준다면
소년단원포대라도 흠없이 섞일수 있는
어리고 작은 그 가슴에
안아일으킨 땅이 너무도 넓습니다

...열아홉해, 조국의 흙을 밟고 자랐지만
다시금 처녀는 곰곰히 생각했더랍니다
수령님 주신 씨앗을 남김없이 묻기 위해선
그 많은 땅이 아직 넉넉치 못한것임을...

그래 한밤이면 살며시 사립문을 헤치고
처녀는 재등 넘어 목밭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여태 보습날을 대여보지 않은
아직은 조합의 계획에도 들어있지 않은

처녀는 삽날로 굳은 땅을 깨치고
치마목이 처지도록 돌을 싸안았습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굵은 땀방울은
찬 흙을 적시고 다시 적시였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파업을 준 사람, 로력수첩에 점수를 적어주는
사람도
다만 처녀는 스스로 책임량을 정하고
밤마다 마음으로 수령님께 그것을 보고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조국 한 지점에
귀중한 새땅을 보태인
지금은 청산리 온 들판이 다 아는
하늘의 별들이 다 아는 처녀

처녀는 오히려 얼굴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를 굽어보는것이 아닙니다
열아홉 처녀의 고결한 그 정신을
내자신 높이높이 우러러보는것입니다

(1961)

주체문학의 대강

- 《주체문학론》 중에서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생활화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충실성이 버릇처럼 굳어져 수령이 의도하고 바라시는 일이라면 어떤 어렵고 힘든것이라도 하지 않고서는 배겨내지 못하며 그것을 억제당하거나 저애당하면 불안하고 불쾌하고 허전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한 인간은 수령을 높이 받드는 길에서 참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찾으며 오직 수령이 준 과업을 수행하였을 때 삶의 금지와 보람도 제일 강하게 느낀다. 문학작품에서는 주인공의 이러한 내면세계를 파고들어 깊이 펼쳐보여야 한다.》

《작가는 우리의 보통인간이 어떤 소박하고 평범한 인간적바탕에서 영웅으로 자라는가 하는것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밝혀내야 한다. 영웅의 소박한 성품을 그리면서도 그의 남다른 정신적높이와 특출한 위훈이 뚜렷이 드러나도록 형상하는것이 중요하다.》

《문학은 수령을 언제나 마음의 기둥으로 굳게 믿고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충신의 품모를 그리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말은 잘할줄 몰라도 가슴속에 불타는 충성심을 간직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말은 적게 하여도 자신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쳐가며 묵묵히 일하는 사람, 수령을 받드는 길에서 자그마한 드림이 생겨도 죄송감으로 하여 가책과 모대김 속에서 잠못들며 오로지 수령의 사상으로 숭수고 수령의 령도에 발걸음을 맞추어나가는 사람이 진짜배기충신이다.》

□평론□

성격의 매력과 구성의 묘미

-장편소설 《통일련가》를 두고-

최언경

《통일련가》, 제명이 말해주는바와 같이 소설은 6. 15북남공동선언이 안아온 조국통일에 대한 불같은 열망의 분출이며 북과 남이 하나되려는 절절한 념원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인지 소설을 흥미진진하게 읽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작가들은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을 비롯하여 인민의 사랑을 받는 좋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였다. 그러나 아직 인민들이 우리 작가가 쓴 소설을 다 즐겨 읽는다 고 말할수 없다.》

장편소설 《통일련가》가 흥미진진하게 읽히우는 까닭이 어디에 있겠는가를 두고 생각을 두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그 하나는 주인공이 주는 인간적매력이며 다른 하나는 구성의 묘미입니다.

1. 성격의 매력과 향기

늘쌍 하는 말이지만 문학은 인간학인것만큼 인

간형상을 떠나 그 가치에 대하여 말할수 없습니다.

소설의 흥미란 본질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주인공의 성격의 매력이며 인간적향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고향의 성격은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신념과 의지의 애국투사인 비전향장기수의 형상을 두고 매력적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지 않는것 같으나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품에서 주인공을 참된 인간으로, 산 인간으로 아름답게 그렸기때문입니다.

주인공의 성격의 핵을 이루는것은 더 말할것없이 통일에 대한 불같은 열망이며 그것을 위해 수십년의 옥고에도, 죽음앞에서도 꺾이지 않은 혁명적신념과 철석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념과 의지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작품에서는 그 어떤 같은 형태의 옷을 입히듯이 이미 주어진 기성의 성격을 이리저리하게 미화분식하지 않았습니다. 생활을 같이

체험하기라도 한 것처럼 비전향장기수로서의 성격발전과정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고창태생으로 임진왜란때 명성을 떨친 《7백의충》 총관 고경명의 13대 증손으로 태어난 고팡은 의병대장의 후손답게 대장부가 되라고 넓을 팡자로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의 뜻과는 달리 천성이 유순한 어머니쪽을 닮아 빼여진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암전한 소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언제나 《물이 선소이 위치하고 물이 악소이 불위하라 하였느니라》 (아무리 작은것이라 해도 좋은 일이면 작다 말고 해야 하고 아무리 작은것이라 해도 나쁜 일이면 작다 말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 《옥불타이면 불성기요, 인불확이면 부지도라.》 (옥은 닦지 않으면 그릇이 안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리를 모른다는 뜻), 《군자대로, 대로문무》 (대장부는 큰길로 가야 하고 그 큰길에는 문이 없다는 뜻)라는 아버지의 엄격한 요구가 뒤따르고있어 남달리 빼여질래야 빼여질수도 없었던것입니다.

팡이는 정말 허기진 배를 달래면서도 남의 발 무우 한꼬리도 캐어먹지 못하는 고지식한 애였습니다.

이 깨끗하고 어리숙하던 소년이 후날에 해산당한 남조선빨찌산의 부대를 이끌고 끝까지 용감히 싸운 불굴의 지휘관이며 더우기는 33년이라는 옥고를 굴함없이 이겨낸 비전향장기수라고 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작품은 그가 그렇게밖에 달리는 될수 없는 까닭을 길지 않은 이야기속에서 참으로 생동적으로 진실하고 진지하게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시기 마을의 세포위원장이었던 아버지의 참혹한 희생, 그것은 팡이에게 있어서 하늘이 무너진것과도 같은 슬픔이었습니다. 아들에게 그렇게도 엄격하면서도 속깊은 애정을 깡그리 부어주던 아버지는 자기가 늘 가르치던 그 참된 인생의 철리를 말로써만이 아니라 자기의 피로 아들의 심장과 뇌리에 새겨주었던것입니다.

하여 복수일념에 불타는 팡이는 그 길로 전북 빨찌산에 입대하여 《복수》련대의 1중대소속 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아직 아버지의 원쑤를 갚겠다는 복수심에 불타는 소년빨찌산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지휘관의 승인도 없이 혼자서 덕화리의 《보루대》를 치고 적의 총을 탈취하는 《무훈》을 세우게도 했던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분별한 소년빨찌산은 못잇을 그 시절 빨찌산의 견결한 녀투사 박승옥과 인민군출신의 빨찌산인 덕구아바이의 교양을 받으며 몰라보게 빨리 성장합니다.

특히 승옥이가 들려준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는 그로 하여금 수령을 알게 하고 수령을 받드는 한길에 다진 혁명의 맹세를 한생 신념으로 지켜가도록 마음의 기둥을 튼튼히 세워주었습니다. 승옥은 조선은 **김일성** 장군님의 나라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린 장군님을 받들어 싸워야만 나라를 통일할수 있고 민족의 번영도 이룩할수 있다고 그리도 진정을 담아 감동깊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승옥은 또한 자신의 산 모범으로 참된 빨찌산대원은 어떤 사람이여야 하는가를 뼈저리게 새겨준 귀중한 혁명의 동지였습니다. 유격대의 한 지휘관이었던 남편과 온 가족을 원쑤에게 다 빼앗기고도 끝까지 용감하게 싸운 건인불발의 녀투사, 사랑하는 일점혈육인 성철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빨찌산부대를 위기에서 구원한 승옥의 무비의 희생정신은 팡이에게 자기도 꼭 그렇게 한생을 살리라는 삶의 좌표를 세워주었습니다.

이런 보람찬 성장의 길에서 팡이는 조선로동당원으로 화선입당을 하였으며 유격대의 술한 부대들이 해산된 엄혹한 정황속에서도 빨찌산부대를 투쟁으로 이끈 마지막지휘관이 되었던것입니다.

하여 그는 시련앞에 굴복하여 혁명을 배반한 변절자 기래와 맞서 견결히 싸웠으며 《난 죽어도 저렇게 살지 않을기랴요. 끝까지 사람답게 살기랴요! 사람답게 살뿐아니라 더 잘 싸울기랴요. 혁명을 위해, 나라의 통일을 위해 피 한방울까지 다 바치는 빨찌산이 될기랴요.》라고 맹세다지였으며 그날의 맹세를 끝까지 지켜 변절자에 의해 적에게 체포될 때까지 《복수》련대의 마지막대원들을 이끌고 용감히 싸웠습니다.

이때 그는 당년 19살의 빨찌산소대장이었습니다.

소설은 주인공 팡이가 그날의 맹세를 지켜 지나간 33년세월 원쑤와 맞서 얼마나 용감히 옥중투쟁을 벌리였는가를 생활 그대로의 진실로 참으로 눈물겹게 그려보고있습니다.

빨찌산의 지휘관인 그의 심장속엔 이미 투쟁속에서 간직한 신념의 뿌리가 역세게 내렸기에 전주법원으로부터 대전교도소, 광주교도소 그리고 다시 전주교도소에 이르는 세상 최악의 옥고속에서도 초인간적의지로 그 신념을 끝까지 지켜낼수 있었던것입니다.

뿌리깊은 나무는 찬바람과 눈비에도 꺾이지 않

습니다.

실로 고평이가 겪은 남조선에서의 33년간의 옥중생활, 그것은 세계 《기니스기록집》이 최장기수로 기록한 흑인해방운동의 지도자 넬슨 만델라의 27년형을 훨씬 룡가한것이였으며 올리우스프치끄의 옥중고초에도 비길수 없는 최악의것이였습니다.

그때 고평의 마음의 의지가 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대로 된것은 위대한신 **김일성**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인간중심, 인간존중의 공화국사회였습니다.

그는 어째서 한사코 고평도 아니고 일점혈육도 없는 북을 그렇게 동경하는가고 묻는 《교회사》에게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물론 가족도 중요하고 고평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난 그보다 사람이 자기 존엄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수 있는 그런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겨.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수 있는 세상, 또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며 담보해주는 세상, 누구나 그런곳을 리상향으로 령하는거야 응당한 리치가 아니겠소.》

확신에 찬 고평의 이 말은 그가 지금에 와서 얼마나 높은 정신세계에 이르고있으며 그가 목숨도 아낌없이 내대고 지킨 신념이 무엇이였는가를 뚜렷이 말해줍니다.

여기에는 빨찌산때 덕구아바이와 승옥이 그리고 감옥에서 최남규를 통해 들은 공화국에 대한 열렬한 동경이 깔려있는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런 꿈같은 세상을 펼쳐주신 **김일성** 장군님에 대해 들으며 흠모의 정으로 가슴을 불태웠습니다. 더더구나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과 맞서 당당히 이기는 북반부의 모습을 두고 경탄과 감동을 금할수 없었던것입니다.

이처럼 소설은 주인공이 꼭절많은 자기 생활의 길을 거쳐 원썩와의 싸움에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신념의 강자로 될수 있었으며 마침내 꿈속에서도 그리던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품에 안겨 장군님으로부터 《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량심과 신념을 지닌 혁명가들이며 조국의 통일을 위해 싸운 귀중한 동지들》이라는 더없이 고귀한 믿음을 받아안고 인생최상의 행복의 단상에 오르게 되었다는것을 참으로 실감있고 진실하게, 깊이있고 감명깊게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넓을 광으로부터 미칠 광으로 변해버렸던 고평이 마침내 은혜로운 태양의 품속에서 빛광으로 된것입니다.

주인공의 성격을 끊임없는 세계관의 성장속에

서 진실하고 깊이있게 보여준것이야말로 그에게 인간적매력과 향기를 더해준 근본요인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주인공의 성격이 주는 인간적매력과 향기는 또한 그들 다양하고 뜻깊은 인간관계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형성한데서 오는것입니다.

소설에는 주인공과 승옥, 덕구아바이, 최남규 그리고 재일교포류학생 조일민과 맺어지는 참다운 혁명적동지애의 관계도 있고 어머니와 동생 광희, 광진이 등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혈연적관계도 있으며 《교회사》특히 《오계장》, 변절자 기태 등과의 적대적갈등관계도 있습니다.

작품은 주인공과 긍정인물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그리면서도 시종일관 심각한 극속에서 형상함으로써 주인공의 운명선에 굴곡과 꼭절도 주고 웃음도 있고 눈물도 많은 산 인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설문학을 참다운 인간학으로 되게 하는데서 가장 귀중한것입니다.

그러한것은 특히 사랑하는 동지이고 애인이였던 희애와의 극적관계에서 가장 눈물겹게 그려지고있습니다.

고포에게 있어서 희애는 투쟁속에서 찾은 귀중한 혁명의 동지였으며 일생을 약속한 사랑하는 애인이였습니다.

고포가 장장 33년세월 인간최악의 옥고를 꺾고 이겨낼수 있었것도 희애앞에 떳떳해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이것은 생활의 진실입니다.

애국심이나 신념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이고 의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죽음도 이길수 있는 마음의 의지가 되여준 희애가 사상전향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은 정녕 고평에게 있어서 청천벽력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믿기에도 너무도 가슴저리고 믿지 않기에는 너무도 엄연한 이 기막힌 현실앞에서 광이는 마음을 말길 지탱점을 잃고 허둥거립니다. 비렬하다 타매도 하고 더럽다고 증오하기도 하며 그러면서도 지긋게 갈마드는 미련으로 하여 가련하다고 동정도 해봅니다. 소설은 여기서도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고있습니다.

그가 만약 이 가혹한 현실앞에 굴복해버린다면 희애, 그처럼 혁명의 배신자로 될것이지만 타협할수 없다고 해서 희애와의 관계를 칼로 두부모 베듯, 생나무가지를 꺾듯 한순간에 잘라버린다면 그를 피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수 없으며 나아가

서는 지난날의 사랑이 진실이었던가를 의문시하게 될것입니다.

여기서 소설은 주인공의 내심에서 일어나는 극을 피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파헤쳐보이고있습니다.

희애의 배신, 그것은 참으로 광이가 겪은 가혹한 옥중생활에서도 가장 참기 어렵고 견디기 고통스러운 시련이였습니다.

소설에서는 이렇게 서술하고있습니다.

...그때부터 광이는 희애에 대한 가슴저미는 원한에 젖어 매일을 빈민숙에서 몸부림쳤다. 특히 그의 사랑스럽던 모습,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던 그 형언할수 없는 추억들이 머리속에 떠오르면서 이젠 그가 곁에 없다는, 또 그의 사랑이 다시는 돌아올수 없는 옛일로 되어버렸다는 사실로 하여 가슴이 무너지는것만 같았던것이다.

...

어쩌면 그리도 자기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아내는가 하고 긍정하듯 후날 고향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기>로 해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이 하나가 아닌데다가 또 자기가 옳다는 확신도 있었을게요. 근데 앞날을 약속하다싶이 한 처녀한테서 배반당하고보니 정말 견디기 어렵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배반이였습니다. 희애는 그것이 다 고향을 위한것이라고 변명했으나 신념을 버리고 혁명을 배반함으로써 사랑도 배반했던것입니다.

하여 주인공 고향은 사랑보다 귀중한 신념을 지켜 이제는 어제날의 편인으로 되어버린 희애와 단호한 결별을 하는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광이는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아니, 아니에요! 그는 나를 배반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구 애국을 포기함으로써 나까지 배반했던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녀자한테서 뭘 더 바라겠습니까. 기다린다구요? 천만에! 안됩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뭐? 전날의 약속? 기다리겠다고? 더러운 년.) 하며 당장 제갈대로 가래라고, 다시는 저의 집에 발길질도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주인공이 옳았습니다.

비전향이란 인간과 짐승과의 싸움인 동시에 신념을 버린 전향과의 투쟁인것입니다.

물론 원형의 실재생활이 그러하였겠지만 그것을 그토록 진실하게, 극적으로 심각하게 독자들

에게 전달한것은 역시 작품의 성과입니다.

광이는 희애의 사상전향의 원인을 두고 그것을 물우의 갈대처럼 변하기 쉬운 녀자의 마음 이상 의것, 자기 투쟁의 정당성을 깊이 새겨안지 못하는데서, 정신적준비가 부족한데서 보고있습니다.

사상적변절이나 인간적변절은 다 자기의 삶에 대한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믿음이 없는 데로부터 출발하는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인공 고향은 신념의 강자가 되어 혁명가로서의 자기의 존엄과 함께 인간의 존엄을 끝까지 지킬수 있었으며 마침내 은혜로운 조국의 품에 안겨 인생황혼기에 것처럼 값높은 청춘의 새봄을 맞이할수 있었다는것을 작품은 참으로 정당하게 서술하고있습니다.

2. 구성의 묘미

장편소설 《통일련가》가 재미있게 읽히우는 두 번째 까닭은 독특하고 기발한 구성의 묘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도 작품은 확실히 숨씨가 있게 엮여졌습니다.

이 장편소설의 부피가 보통 다른 소설의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지 않은 그릇에다가 장편소설이 담아야 할 모든것, 특히는 인간의 운명선과 인간관계를 다 담고있으며 그것도 아주 재치있게 담고있습니다.

소설의 우렐을 부피를 가지고 론할것은 아니지만 남이 길게 써서야 할 이야기를 짧고도 생글하게 다 했다면 오히려 그런이 더 좋은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비약과 함축의 수법을 대담하고 능란하게 활용된 작품의 묘기가 뚜렷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소설은 속도감이 있고 지루하지 않습니다.

소설은 서장과 종장외에 주인공의 어린시절과 빨찌산생활을 각각 한개 장에 담고있으며 무려 33년에 걸치는 옥살이를 2개 장에 그리고 출옥후 서울에서의 로동생활과 송환후의 행복한 생활을 각각 1개 장에서 간명하게 이야기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작품의 종자가 요구하고 주인공의 형상에 필요한 모든것이 다 있습니다.

소설은 또한 앞을 조금만 읽으면 뒤가 뻔드름한 일부 소설들과는 달리 기발한 착상에 의한 전혀 예상치못했던 사건의 연속으로써 독자들에게 시종 긴장한 기대와 흥미를 줍니다. 또 여기에는

당연하게 심각한 극이 따르고있습니다.

기태와 희애의 기구한 운명선이 바로 그러합니다.

적앞에서 두려움을 모르고 전투에서는 언제나 것처럼 대담무쌍했던 빨찌산의 소문난 소대장 기태가 그렇게 변절할줄은, 더더구나 적의 개가 되다 못해 돈을 위해서는 살인도 서슴지 않는 패덕한으로 타락할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설은 여기서도 그가 혁명의 변절자로 굴러떨어지지 않을수 없는 생활의 타당성을 성격론리와 생활론리에 맞게 차근차근 펼쳐줍니다.

그의 용감성은 공명과 일시적충동에 의한 무분별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신념의 뿌리가 없는 그의 《용감성》은 남조선의 빨찌산이 해산되어버리고 혁명의 시련을 도저히 이겨낼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독자들은 더더구나 그토록 아름답고 매력적이던 빨찌산처녀, 고광이를 이처럼 사랑하던 희애가 그렇게 사상전향을 할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고광이가 희애를 진정으로 열렬히 사랑했던 그만큼 희애의 사상전향은 고광에게 있어서 너무나 가혹한것이였으며 죽음보다 더한 이 정신적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은 극적인것의 연속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인간학적견지에서 보면 소설의 문학적이야기는 광이와 희애와의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극적으로 발전하며 해결되는 과정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구성의 묘리를 놓고 특별히 강조하여야 할것은 은옥경의 특이한 형상선입니다.

옥경은 작가와 함께 주인공에 대한 글을 쓰려는 취재기자인 동시에 이야기에 직접 뛰어들게도 하며 나아가서는 주인공의 운명과 뗄수 없이 직접 연결된 주요인물이기도 합니다.

바람세찬 남녘땅에서 혁명의 시련과 더불어 인생고초를 겪음대로 다 겪은 광이가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안겨 옥경이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독자들을 놀래우는 뜻밖의 일입니다.

독자들은 아마도 소설의 첫머리에서 암시한 이야기를 기억할것입니다.

옥경이가 작가와 함께 첫 취재를 갔을 때 어떤지 처녀쪽으로는 눈길을 돌리기도 꺼려하면서 마치 선이라도보러 온 대상을 마주한듯 줄곧 뺨뺨이 긴장돼있는 주인공의 모습.

그러한 주인공을 바라보며 작가가 하게 되는 속생각-(장가 안든 사람은 나이가 있다 해도 속은 여전히 새파란 모양이지?)

소설에는 작가의 사색의 도가니를 거치지 않고 목적없이 쓰는 말이 한마디도 없다는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분명 독자들에게 주는 암시였습니다.

기억컨대 이런 기발한 구성수법은 같은 비전향장기수를 원형으로 한 수십편의 장편소설에서는 물론 다른 소설에서도 볼수 없었던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이 작품 고유성의것입니다.

그러나 비반복적인것이라고 하여 다 새롭고 의의있는것은 아닙니다. 생활의 논리에 맞아야 합니다.

작품은 여기서도 생활에 충실하고있습니다.

여러 생활세부를 통해서 볼수 있는것처럼 광이도 옥경에게서 그 어떤 녀성적인 매력을 느낀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도 모르게 우려나온 감정이였으며 그로서는 자기가 옥경을 사랑하게 되리라고는, 더구나 가정을 이루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것입니다. 하물며 독자들이야...

이런 경우 사랑의 고백은 웅당 옥경이쪽에서 있어야 타당합니다.

물론 취재과정에 옥경이가 주인공의 정신세계에 매혹된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것은 그가 사회주의조국의 품에서 자라난 새 지성인이며 비전향장기수들을 그토록 귀중한 동지로 여기시는 아버지장군님의 뜻을 어떻게 하나 받들어드리려는 그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게다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저쪽은 슷총각이기는 하지만 60을 넘긴 로년기요, 이쪽은 방금 꽃피어난 슷처녀이기때문입니다.

두사람을 사이에 둔 이런 세월의 차이를 두고 고광이 인생을 다 보낸 늙은이와 지금 활짝 피어나는 꽃송이, 고목과 새싹이라는 엄청난 대조를 해보이면서 자기에게 사랑이란 당치않은것이라고 사양합니다.

인생의 불모지에서 한생토록 굳어진 그의 사랑관은 사랑이란 상대방을 위해 그 어떤것도 책임질수 있는 능력이며 의지, 더 중요한것은 아무리 다정한 부부라도 주는것만큼 받게 되고 받는것만치 주게 되는것이라는것이였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우리 시대의 참된 사랑, 우리 식의 사랑은 주고받는 량의 크기로만 이루어

지는것이 아니다, 받는것이 아니라 바치는것이 사랑이고 향유가 아니라 창조가 행복의 바탕으로 된다는 작품의 주장은 얼마나 참담고 뜨거운 사랑의 철학으로 주인공의 심금을 울리는것입니까!

여기서도 작품이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인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우리 조국의 사랑, 우리 장군님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인간적인가를 생활 그대로 진실하게 형상하였다고 봅니다.

작품은 이 심중한 인생증대사를 앞에 두고 그들의 내면에서 물결치는 극적인 심리세계를 직선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으며 취재수첩에서 작가가 발견한 옥경의 일기라는 효과적인 형상수단을 개발하게 인입하고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의 창작적발견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두고 두사람이 직접 말을 주고 받아야 하는 어색한 장면을 피할수 있게 하였으며 광이에게 주고싶은 옥경이의 진정을 거침없이, 숨김없이 터놓을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독자들에게 이처럼 뜻밖의 일로 여겨졌던 두사람의 사랑과 결혼은 전혀 무리가 없이 당연한것으로 생각되게 되었으며 어버이장군님의 축하를 받아안은 가장 아름답고 값높은것으로 훌륭한 열매를 맺을수 있었습니다.

하여 소설은 《통일련가》로서의 자기 목적을 훌륭히 달성할수 있었습니다.

고광이와 옥경의 사랑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서 그 촉매와도 같은 《나》의 역할을 떼어놓을수 없듯이 소설에서는 작가-《나》가 사건발전에 직접 참가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놓고있습니다.

더우기 주인공의 내면세계에 대한 깊이있고 분석적인 해부학적묘사와 인간과 생활 특히 신념과 배신, 사랑과 증오와 같은 인생의 기본문제들에 대한 심오한 내면독백과 서정적인 주정토로들은 작품의 철학성을 깊이하는데서 작가의 등장과 역할이 가져온 귀중한 결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작가의 형상 역시 소설의 구성미를 돋구는데 특색있는 기여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소설은 이밖에도 간혹 농치거나 틀리는 일도 없이 그 지방사투리를 적중하게 쓰고있습니다.

이것 역시 생활의 진실성을 담보하는것으로서 주인공의 성격에 매력을 주고 애정을 느끼게 하는데서 한몫하고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장편소설 《통일련가》는 그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조국통일에 대한 열렬한 찬가로서의 자기 목적을 훌륭히 달성하였습니다. 하여 소설은 사람들을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따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일떠서도록 불러일으키며 그들을 위대한 장군님을 받드는 한길에서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되도록 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것은 희애와 인석이 결혼을 했다는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더구나 광이와 희애의 사랑을 이처럼 축복해주었던 승옥이의 소개로 말입니다.

이러한 처리가 희애의 운명문제를 해결하는데서는 필요하고 타당한것일수 있으나 아직도 기억없는 옥고를 치르어야 하는 광이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가혹한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실재한 생활이 그랬을수도 있고 광이가 희애를 철저히 단념하는데는 이권이 더 낫다고 할수도 있겠으나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가 생각합니다.

희애와의 사랑의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부정할 때 신념이 강하고 지조가 높은 인간으로서의 주인공의 모습은 더 돋보이게 되었을것입니다.

한가지 의견을 더 덧붙인다면 부정인물선, 적대적인물형상이 좀 약한감이 듭니다.

물론 비전향장기수의 형상을 보여준다고 하여 고문과 회유로 반복되는 감옥생활을 량적으로 많이 그려야 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설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비전향장기수인것만큼 그의 운명선은 시종일관 가장 첨예한 적대적갈등속에서 발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소설에 살인마로서의 《오계장》과 교회사회의 형상이 있으나 그것은 변절자 기레나 전향자 희애처럼 주인공의 운명선과 생활적으로 밀착되지 못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작품에 갈등선이 약하다는 우려를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다 높은 요구의 견지에서 본 부분적의견이며 작품이 거둔 성과에 대해서는 의심할바 없습니다.

소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남과 아울러 생각은 추억으로 이어집니다.

《태양찬가》, 《청춘송가》, 《통일련가》, 소설들의 제명이 보여주듯이 당과 수령, 조국과 민족 그리고 청춘에 대한 그렇듯 애틋한 충정과 사랑, 랑만으로 인간과 생활을 소리높이 노래한 시대의 가수, 작가가 앞으로도 더 좋은 애국충정의 찬가를 더 많이 창작하여 북과 남의 온 겨레를 조국통일성업으로 더 힘있게 불러주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엄동의 봄우뢰

서봉제

온 몸 모진 동상에 저렸어도
그보다 칠성판에 오른
민족의 운명 더 가슴 아프시여
여기 압록강 엮은 얼음장우에
김형직선생님은 결연히 나서시였던가

격랑치는 물소리 나의 흥벽을 친다
조국땅의 마지막 이 기슭
일제의 포승을 끊고 장대기로
살얼음장우를 기여건너가신
선생님의 그날의 숨결
오늘도 이 가슴에 뜨겁게 고백친다

독립의 길에 맞아죽을수도 있고
투쟁의 길에 얼어죽을수도 있고
혁명의 길에 굶어죽을수도 있다는 3대각오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신
위대한 심장의 고동이어

자옥자옥을 겨레위해 새기시고
걸음걸음을 나라위해 찍어가신 그 각오
의지와 신념의 보검으로 버리셨구나
그 맹세 조직을 지키는 기둥으로 세우시며
동지위한 믿음의 우등불로 태우셨구나

물건너에서 기다릴 《조선국민회》 성원들

우후죽순처럼 일떠세울 무장대오를 찾아
선생님 가슴에 불을 안고가신 그 길
막아선 일제의 총칼 꺾어버리셨구나
마주서 다가오는 죽음도 쫓아버리셨구나

힘이 진하면 지팡이를 짚으시고
기아가 쌓이면 생눈을 삼키시며
뒤돌아보지도 주춤거림도 없이
《지원》의 뜻 안으시고 곧바로 가신 길
아, 그밤에 열린 뜻깊은 회합
강철의 심장에서 울린 엄동의 봄우뢰 봄우뢰

압록강연안과 만주광야라
후치령과 양덕고개를 넘고넘어
저 멀리 서해의 구월산이라
빼앗긴 온 조국땅이 무장을 잡는것 그것이
나라독립의 생명선이였기에
죽음을 발밑에 딛고서신 불멸의 그 모습
장군님 이끄시는 우리 앞길에 빛나거니

아, 잊지 못할 력사의 그날
위대한 혁명가 김형직선생님께
겨레는 장대기밖에 못드렸건만
사생결단으로 살얼음 건너가신 위대한 그 걸음
산과 강의 지경이 없으셨구나!
생사의 계선이 따로 없으셨구나!

<가사>

장군님 우리 초소에 찾아오셨네

안근배

해빛도 찬란해 눈부신 아침
그립던 장군님 찾아오셨네
중대에 오셨던 수령님처럼
환하게 웃으시며 찾아오셨네

수령님 아끼신 병사들이라
우리를 한품에 안아주실 때
가슴엔 감격의 파도가 일고
뜨거운 눈물은 두볼을 적셨네

중대에 오셨던 수령님처럼
사랑의 기념사진 찍어주실 때
수령님 우러러 불타던 심장
장군님 우러러 불타올랐네

아 장군님 총대로 웅위할
우리의 심장은 불타올랐네

내 고향 북청

리진묵

때없이 찾아와도
눈앞에 안겨오는
정겨운 산천
과일의 고향으로
이름높은 고향
아, 내 고향 북청!

과일력사의 첫 갈피에
북청아, 네 이름 새겨주시려
우리 수령님
여기서 나라의 정사 펼치신
전설같은 력사의 그 자취
오늘도 력력하고

청춘과원 펼쳐주시려
북청아, 네 산정에 오르신
우리 장군님
옷자락 적신 축축한 새벽이슬
이 가슴에 흥건히 젖어오는
그날의 헌신의 자욱자욱

탐스럽게 익은
한알의 사과를 보아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
자애롭게 안겨오고
아버이 그 사랑 그 은정
뿌리가 되고 즙이 되어 살찌는 땅

사시장철 인민들에게
달디단 사과 안겨주시려
기울이시고 바쳐오신
백두산위인들의 크나큰 사랑으로
봄이면 충충 과원에 꽃구름 피고
가을이면 향기를 풍기며 알알이 무르익는
그 이름높은 《북청》사과

끝간데없이 뻗어간
푸른 과원길 걸으면
황홀한 신비경 펼친듯
붉은 과일의 바다
그속에서 들려오는
사과따는 처녀들의 청고운 노래소리

취할듯 풍겨오는 과일향기
땅에 닿을듯 휘날어진 아지마다
하나같이 주렁주렁 열린
사과알에 손길 닿으면
내 마음도 붉게 물들어질듯

은혜로운 태양의 해빛아래
풍요한 청춘과원으로
나날이 넓어지는
예가 바로 사회주의선경
무릉도원으로 변모된
아, 내 고향 북청!

부엉새 우는 밤

리찬호

부엉새 우는 밤
독립임무 마치고 돌아오는 길
숲속에서 그만 길잃고 헤매이는데
착각인가?...
어디선가 나를 부르는 소리
잡관목숲사이에 번뜩이는 불빛

아, 전우들이다

나를 위해 잠들지 못한 눈빛
래일에는 나를 위해
피와 살도 서슴지 앓을 그 눈빛이
이밤 어둠을 밝히며
지금 나에게로 다가오고있거니
내 그만 아이가 되어
응석마냥 목메여 소리쳤네
-나 여기 있어...

장수산의 서리꽃

김형준

꽃이 피었네
서리꽃이 피었네
《황해금강》 장수산에
서리꽃이 피었네 활짝 피었네

장수산이 솟아
천년만년 세월
천번만번 피고 핀 서리꽃
그 정기 한데 모아 활짝 핀 꽃

천첩 만첩
피어난 서리꽃
천리서리향 만리서리향되어
온 나라에 풍겨가는 서리꽃향기

신록이 짙은 여름날
장수산 찾아주신 어버이장군님
장수산은 서리꽃 계절이 제일이라고
6월의 신록속에 피워보신 서리꽃!

장군님 찾아주신 《사자바위》
서리꽃에 받들려 그 모습이 절승!
장군님 보아주신 《독수리바위》도
서리꽃바다에 날개펼쳐 그 모습이 절경!

글쓴랑의 붓도
서리꽃 절경 바위에 그리니
《계곡미의 여왕》 장수산이
서리꽃 왕관 머리에 얹은 미의 여왕

서리꽃이 씨앗 없다
그 누가 아니할 말 했나
장수산에 남기신 장군님 자옥
서리꽃 씨앗되어 활짝 핀 만년꽃

아, 장수산 굽이굽이
열두굽이에 활짝 핀 서리꽃은
어버이장군님의 건강을 바라는
온 나라 인민들의 축원의 만년꽃!

박달령 (외 1 편)

-칠보산에 오르며-

주광남

험하게는 볼수 없는
절경임을 깨우치려고
그래서 첫 어귀에
까마득히 솟았는데

인민의 탐승길 열어주시며
걸고 또 걸으신 우리 장군님
헌신의 그 자옥 되새겨주려

굽이굽이 령길은 휘휘 감겨올랐는가

걸음걸음 명산풍경 눈앞에 다가설수록
자옥자옥 그이 은정 뜨거이 새겨져
높다는 말은 해도
힘들단 말 아니하며 오르는
박달령 아 박달령!

명산의 가을

단풍은 익어
불인가 꽃이런가

우뚝 치솟은 천불봉은
붉은 단풍 불붙어
타오르는 봉화런듯

옥계수 푸른 물줄기도
울긋불긋 단풍빛 물들어
꽃수놓은 비단필인듯

선녀바위 단풍은
휘휘 늘인 날개옷에 보석장식 눈부신데
장수바위 단풍은
갑옷 투구 빛갈 돌귀 그 기상 엄엄해라

어허, 가을은 오희백과
무르익는 계절이라지만
칠보명산의 이 가을엔
아름다움이 한껏 무르익는구나



채 쏘지못한 총한

-한 전쟁로병의 이야기중에서-

한웅빈

3. 마지막 한치

나의 마지막전투는 전선중부의 어느 한 고지에서 벌어졌었다.

고지에는 이름이 없었다. 무명고지였다.

아마 어느 사단, 어느련대의 전투기록이나 무명고지가 등장하지 않은 전투기록은 없을것이다.

그 시절 전투를 벌렸던 고지들을 더듬어보느라면 《조선은 산이 많은 나라!》라고 한 혁명시인 조기천의 호호탕탕한 시구절이 저절로 떠오른다.

그 많고많은 산들에 어찌 모두 이름을 붙일수 있으랴. 굳이 이름을 붙일 필요는 또 어디에 있고... 지도작성자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것이다.

그러나 독립수 한그루까지 엄격한 정확성으로 기입하는 군사지도의 작성자들도 이름붙일 필요를 느끼지 않은 무명고지를 위하여 잊을수 없는 그날 우리 중대는 피를 흘렸고 생명을 바쳤다....

우리 중대가 무명고지전투에 진입한것은 아직 어둠이 서려있는 새벽이었다. 그때까지 지키고있던 계선에서(그것도 역시 무명고지였다.) 앞으로 진출하여 적들이 차지하고있는 무명고지를 탈환하고 사수하라는 명령이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새벽이었다. 비발은 하도 가늘어 내리는것이 아니라 안개처럼 땅에서 피어올라 대기중에 서리는듯이 느껴졌다.

땅은 젖어 미끄럽고 풀과 잡관목들은 폭 젖어 군복에 물방울을 폭포의 비발처럼 들쭉쭉으나 우리는 그 비를 한없이 고맙게 여겼다.

비발은 고지들에 있는 적들의 시계를 안개처럼 흐려놓고 이미 닥쳐왔어야 할 새벽미명을 지체시키고있었던것이다.

고지탈환은 갑작스레 떨어진 명령이었다. 지난

밤까지도 우리의 임무는 차지한 계선을 굳게 지키는데서 변동이 없었다. 왜 불의에 그런 명령이 하달되었는지는 누구도 알수 없었다. 중대장도 역시 알지 못했다.

명백한것은 앞에 있는 무명고지를 무조건 즉시 탈환하라는것이였고 우리에게는 그것이면 충분했다. 전사에게는 자기가 차지한 전호, 앞으로 차지해야 할 위치가 전 《전선》이며 중대지휘관에게는 중대가 차지한 계선이 전 《전선》인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전쟁의 운명을 좌우하는 지점이라는 자각이면 충분했다.

그러나 우리는 운수가 나빴다. 서둘러 공격출발진지를 차지했을 때 갑자기 비가 멎고 구름이 걷히어 그때껏 비발에 막혀 우물거리던 아침이 《찬란하게》 밝아왔던것이다.

적들에게 곧 발견되리라는것이 명백해졌을 때 중대장은 발견될 때를 기다리지 않고 돌격명령을 내렸다.

《중대 앞으로!》

중대는 비호같이 고지로 돌격해 올라갔다.

그러나 사람은 암만 빨리 달려도 번개처럼 빠를수는 없다. 총알도 목표에 날아가는데는 1~2초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우리에게 1~2분만 시간이 더 있었다라면! 그랬더라면 우리는 적 참호에 뛰어들어 통쾌한 섬멸전을 벌렸을것이고 고지에 공화국기발을 휘날렸을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1~2분이 모자랐다. 적들의 미친듯 한 사격이 쏟아져내려왔다. 뒤이어 혼비백산한 적들이 호출한 포사격과 비행대의 폭격이 고지를 휩쓸었다.

중대는 엎드리지 않을수 없었다.

공격은 좌절되었다. 1~2분만 시간이 있었다라면!

나는 적 기관총에 두다리를 거의 동시에 얻어 맞고 잘리운 나무통처럼 쓰러졌다. 뒤이어 눈앞에서 눈부신 섬광이 일고 몸이 허공으로 떠오르는것을 느끼며 의식을 잃었다.

의식을 차렸을 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귀가 짹 메어버린듯한 정적과 두눈이 없어진듯한 새까만 어둠만이 짓누르고있었다.

나는 모지름을 써서 머리를 들었다. 그러자 점차 총소리가 들려왔고 눈으로 뿌연 빛이 흘러들었다.

나는 흠에 묻혀있었다. 폭풍에 날려와 떨어진 우에 흠이 또 뒤집어 씌워진것이었다.

고지는 총포소리로 가득차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나의 우에서가 아니라 옆에서 들려고있었다.

얼마후야 나는 그 원인을 깨달았다. 폭풍에 날려와 적들의 전호 측면에 떨어졌고 흠에 묻혀있었던것이다.

적들은 전호에 들어박혀 미친듯한 사격으로 아군이 머리를 들수 없게 하고있었다.

나는 흠속에서 몸을 뿔아냈으나 더는 일어설수 없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두다리가 적 기관총탄에 골절되어버린것이었다.

흠속에 묻혀 저절로 지혈되었던 두다리에서 다시 피가 흐르기 시작하였다.

의식이 깜박깜박 흐려왔다.

나는 좌절된 공격선에서 시계를 보며 방도를 찾고있을 중대장과 전우들을 생각했다.

전투명령을 하달하면서 중대장은 이렇게 말했다.

《고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탈환해야 하오. 우리의 전투보고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기다리고계신다는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리의 전투보고를 기다리고계신다!

그것은 내가 락동강에서 처음으로 순재상등병에게서 들었던 말이었다. 그 말을 나는 이제까지 전투때마다 들어왔다. 그리고 그 말을 믿었다. 그 믿음은 매번 어떤 어려운 전투임무가 맡겨질때에도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결심을 심어주곤 했다. 돌이켜보면 3년동안을 나는 그 믿음을 안고 싸워온것이었다.

이 무명고지를 무조건 탈환해야 한다.

나는 그때 물론 우리 중대가 수행하여야 할 전투명령이 이 위대한 전쟁행정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똑똑히는 알수 없었다.

때는 1953년 여름 수세에 몰린 적들이 다시금

《정전협정담판장》으로 끌려나왔을 때였다.

그러나 여전히 《군사기술적우세》의 꿈에 취하여 철령이북계선까지의 지역에 대한 강도적인 요구를 내놓으며 정전협정조인을 지연시키고있었다. 평화에 대한 지향을 취약성으로 받아들이는 호전광 특유의 심리로 적들은 정전담판의 막뒤에서 새로운 군사적공세를 준비하고있었다.

그것은 《세계최강》몽유병의 발작이었다. 허나 나는 정전담판이 진행되고있다는 정도로밖에는 더 알지 못하고있었다.

내가 그날 전투의 의의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된것은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조선전사》에서 그 나날에 대한 기록을 읽으면서였다.

나는 그 글줄을 읽으며 그 마지막전투에 대하여 회상했었다. 그리고 그 력사의 글줄사이를 기어가고있는 자신을 방불히 보았다.

《조선전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씌여 있었다.

…조성된 정세는 미제침략자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적들로 하여금 어리석은 기도를 포기하고 무릎을 꿇게 할것을 요구하였다.

인민군부대들은 1953년 5월 중순부터 7월 하순까지의 기간에 세차례의 강력한 타격을 비롯한 1,800여차례 여러가지 적극적 전투행동을 벌려 수많은 적들을 소멸하고 약 수백평방키로메터의 넓은 지역을 해방함으로써 《영예로운 정전》에 대한 적들의 망상을 여지없이 깨어버리고 미제침략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그날이 전쟁의 평범한 하루였을 뿐이었다.

그때 내가 확신하고있었던것은 최고사령부 작전도의 붉은 화살표가 이 무명고지로 그어져있다는것, 그 화살표를 그으신분은 바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이시라는것이었다. 그 자각은 내가 별로 넓지 못한 두어깨우에서 전 전선의 무게를 느끼게 해주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총포성과 수류탄폭음속에 자주 흐려지는 의식을 가다듬으며 나는 적진을 보았다. 침착하게 다시한번 살펴보고 생각해보자. 머리속으로 문득 하나의 회상이 줄달음쳐 다가왔다. 어느 전투때이던가 아마 린계계선에서였을 것이다. 적들은 공고한 영구화점에 들어박혀 끊임없이 불소나기를 퍼붓고있었다. 비슷한 정황이었다. 소대는 그앞에서 더 전진 못하고있었다.

그때 우리 중대는 통신수단에서 굉장한 《부자》다. 적부대의 통신소를 《먹은》 바람에 전화기와 통신선이 매 전사에게까지 돌아갈만큼 쌓여있었

다. 공격하면서 통신선을 늘어나가다 보니 중대장은 전화로 우리의 전투를 지휘했다. 전투정황을 전화로 보고받은 중대장은 이렇게 물었다.

《화점은 그것 하나뿐인가?》

소대장이 대답했다.

《다른것들은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동무네 있는데서 거리가 얼마나 돼?》

《30미터, 20미터가 좀 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라구. 화점에서 사격이 멎는 순간에, 몇분에 한번씩은 반드시 멎을 때가 있을게요. 그때를 놓치지 말고 돌격해 올라가란 말이요. 10초, 아니 5초에 극복해야 하오. 할수 있겠소? 5초야, 5초!》

《할수 있습니다.》

중대장의 말대로 했다. 화점에서 미친듯이 쏟아져나오던 사격이 웬일인지 중대장의 말대로 잠시 멎었을 때 소대는 일제히 돌격해 올라갔다. 화점이 다시 불을 토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벌써 화점우에 올라가 있었다. 중대장은 적들이 기관총탄피를 바퀴 끼우는 시간을 포착했던것이다. 바로 그 5초가 전투의 승패를 결정했다. 적들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적들에게 청천벽력으로 될 전투행동이 필요했다.

《어떤 정황에서도 침착해야 하오. 담이 있어야 하고...》

전투총화를 지으며 중대장은 말했다.

나는 다시 적전호를 살폈다. 그곳까지는 10m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총도 수류탄도 없었다. 폭풍에 모두 어디론가 날아가버린것이었다.

나에게는 움직일수 없게 된 몸뚱이만 남아있었다. 그러면 나는 그 무엇도 할수 없단 말인가.

《아니! 아니다!》 하는 목소리가 나의 내부에서 대답했다. 그것은 툭-툭 뛰는 심장의 고동소리였다.

다시 앞을 바라보았다. 10m 되나마나한 거리의 전호에는 무슨 상자들이 쌓여있었다. 때때로 허리를 구부리고 달려와 상자를 끌어가는 적들이 보였다. 탄약상자? 아니 탄약상자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 수류탄상자 같았다. 그렇다. 수류탄상자다!

수류탄상자! 그러자 나는 온몸으로 세차게 퍼져가는 심장의 고동을 느꼈다.

저곳에 이르기만 하면 그 수류탄들로 적들에게 청천벽력을 안겨줄수 있지 않은가! 거리는 10m, 그러나 골절된 두다리는 내 몸을 땅에 못박아 놓았다.

앞에 파편에 잘려나간 나무그루터기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틀어쥐고 몸을 끌어당겼다.

순간 온몸을 폭풍처럼 휩쓰는 아픔에 눈앞이

깜깜해졌다.

상처에서는 다시 출혈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몸이 한뼘이나 전진한것을 알게 되자 다시금 나무그루터기를 틀어잡았다...

그 한치한치가 나에게는 온몸을 비트는 아픔의 한치한치, 생명이 고갈되어가는 한치한치였다.

《내가 죽은줄 알았지?... 나는 안죽었다. 안죽었어. 네놈들을 몽땅... 쓸어버리기 전에는 난 못죽어!》

총포소리, 폭음, 불기둥, 흠기둥... 검은 대기, 검은 하늘에서 검붉은 태양이 움직이지 않고 떠있었다. 때로는 정신을 잃기도 했다...

한치 또 한치...

너무도 보잘것없는 거리였다.

그러나 내가 한치를 기여올라가면 그만큼 조국땅은 넓어지는것이다. 미제침략자들의 군화밑에서 해방되는것이다. 나의 뜨거운 피에 젖은 이 한치의 땅은 이제 우리 조국땅, 해방된 조국땅의 한 부분이다.

한치 또 한치... 피는 계속 흐른다. 생명도 진해갔다. 그러나 다시 또 한치...

전쟁이 끝나면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가. 이 재가루와 파편조각, 불탄 나무그루터기만 남은 이름도 없는 벌거숭이 산으로... 아니, 그때에는 다시 나무들이 자라나 숲이 우거질것이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과연 이 땅의 한치한치를 어떻게 조국의 땅으로 만들었는지를 상상할수 있을가. 어린애의 걸음으로도 열대여섯발자국이면 될 거리를 전사들이 한생의 길이를 전부 합친것 같은 시간과 힘을 모아 뚝아올랐다는것을...

포연과 폭연, 흠구름, 철의 소나기, 불의 폭풍...

한치 또 한치... 심신의 힘을 다하여 기여간다.

흐르는 피와 함께 순간마다 생명이 방울방울 빠져나가는것을 느끼며 기여간다. 입안에서 씹히는 것이 너무 악물어 부스러진 이발인지, 폭풍에 날아든 돌조각인지, 얼굴에 흐르는것이 땀인지, 아니면 피인지... 기고 또 긴다. 타다남은 나무그루터기들, 밀등만 남은 진달래포기들을 땀과 피로 적시며 기여간다. 언젠가는 나의 피에 젖은 이 진달래포기에도 꽃이 피겠지. 아마도 나의 피처럼 붉은 꽃이... 만일 내가 이 길에서 영영 쓰러진다면 그 꽃은 나의 생명우에서 피어난 꽃일것이다...

숲이 설레고있다. 새들이 우짖는다. 푸른 나무가지들사이로 낮익은 얼굴들이 보인다. 연분홍빛 진달래꽃속에서 내다보는 조그마한 얼굴은 더더욱 낮이 익다. 채진경의 길에서 보았던 그 소녀이다. 그런데 여전히 어린 소녀 그대로이다.

《넌 아직도 어린애로구나》

나는 그 애에게 마음속으로 말했다. 소녀는 입을 다문채 미소를 지을뿐이다. 그러자 나는 음성 없는 그의 말을 들었다. 그 애는 나에게서는 언제나 소리없이 말할것이다.

《아저씨를 만나지 못해서 어린애로 있어요. 나도 어른으로 되고파요. 그러나...》

꼭 다물린 입, 꼭 감은 눈, 가냘픈 미소가 자그마한 얼굴로 눈물처럼 흐르고있다.

《아저씨... 왜 이제야 오나요?》

가슴이 부지직 조여들며 일순간 상처의 아픔도 잊게 한다. 왜 이제야 오나요?... 여섯살에 영원속으로 떠나간 생명... 저 고지너머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얼굴들이 나를 기다리고있을것인가. 자기들을 영원한 어린시절에 머물게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아, 기다려 다오!...

드디어 전호의 홍장앞에 이르렀다. 마지막 한치가 남았다.

여기에서 나는 절망에 빠졌다. 손에 잡을수 있는 나무그루터기가 없었다. 흙으로 이루어진 홍장이 있을뿐이었다. 손가락을 흙속에 박고 몸을 끌어당겼으나 비에 축축해졌던 흙은 풀썩 물러앉아버렸다.

(전달같은 놈들, 홍장을 이렇게 쌓다니, 이따위들이 무슨 군대야?)

더 깊이 손을 박아보았으나 여전히 마찬가지였다. 둘러보아도 손에 잡을만 한것은 없었다. 마지막나무그루터기는 뒤에 남았다. 앞에는 없었다.

이 마지막 한치를 넘을수 없단 말인가. 허나 병사가 톱아가는 한치한치는 단순한 길이의 단위가 아니다.

그것은 물러서면 수천수만인민의 피로 적셔질 한치이며 나아가면 넓어지는 조국의 숲이며 전야이다. 미래이다. 병사의 전진로를 따라 삼천리 조국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있다!

나는 부상당한 다리를 끌어다 나무그루터기에 의지했다. 이제는 몸을 뒤에서 떠밀어주는수밖에 없었다.

문득 락동강에서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왔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리의 보고를 기다리고계시오.》

나는 나무그루터기에 버틴 발에 힘을 주며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우지직... 다리는 부서진 뼈로 가득차있는것 같았다. 골절된 뼈가 마주치는 소리, 그 뼈는 살이 아니라 머리속으로 비집고 들어오는것 같았다. 눈앞이 새까매졌다. 숨을 칠수 없었다. 허나 한 번 더! 그만큼 넓어질 조국을 위하여! 전우들과 인민들의 복수를 위하여!

병사의 한치한치는 가장 뜨거운 사랑과 격렬한 증오의 한치한치이다.

다시 한번 더!...

마침내 나는 전호에로 굴러들어갔다...

그곳에 쌓여있는것은 짐작했던대로 수류탄상자들이었다...

고지에서는 그냥 총포탄이 작렬하고있었다. 적들은 단 한시도 사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한순간이라도 사격을 멈추면 공격서열이 밀물처럼 자기들을 덮쳐버리리라는것을 그리고 총창과 총각, 수류탄으로 무서운 백병전을 벌리리라는것을 똑똑히 알고있었다.

적들은 좌절된 돌격선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록 하는데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는 수류탄이 전호속으로 날아들었다. 그것도 한두개가 아니라 줄폭탄처럼 연신 날아들어 전호를 폭음속에 파묻어놓았다.

나는 쌓여있는 수류탄상자의 수류탄을 던지고 또 던지었다.

적들에게는 말그대로 청천벽력이었다. 그놈들은 그 수류탄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얼마후 자기들의 바로 밑에서 날아든다는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벌써 파도처럼 밀려올라온 돌격선이 총창을 번뜩이며 전호를 덮쳐버렸다.

《부소대장동지!》

《작은순재》가 쓰러져있는 나를 안아일으켰다.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저걸 보십시오. 저걸!》

고지정점에서 공화국기발이 펄펄 휘날리고있었다.

총탄에 구멍이 숭숭하고 폭풍과 파편에 찢긴 기발이 찬란하게 휘날리고있었다.

고지측면에서는 적들이 미처 도망치지 못해서 인지, 반돌격해올라오려고 해서인지 와글거리고 있었다.

《순재, 날 저기 중기옆에...》

그러나 《작은순재》는 나를 고지아래로 업고 내려갔다.

중기관총에 물린 탄띠가 사격을 기다리며 흔들거리고있었다...

그날 군의소에서 나는 정전협정이 조인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가 이겼어요!》

간호원들이 울면서 부르짖었다.

나는 고지마다에서 울리고있을 만세소리를 방불히 들었다. 그것은 돌격의 만세소리도, 전투승리를 알리는 만세소리도 아니다. 전쟁승리, 전승의 만세소리였다.

나는 침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우리

가 이겼다. 우리는 승리했다. 허나 탄띠에 물려있던 채 쓰지 못한 총탄들은! 고지측면에서 와글거리던 적들과 탄띠를 물고있던 중기관총, 마지막 한치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심장속의 총탄도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 몸이 그대로 총대로 되어서라도 기어이 쏘아야 할 총탄이었다.

아, 마지막한치, 원한의 한치!...

×

《그때로부터 벌써 반세기도 더 흘렀습니다. 참으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쓰지 못한 총탄들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넘어야 할 마지막한치도...

길은 미끄러웠고 날씨는 극도로 뒹각된 정세처럼 차고 맴맴했습니다. 나는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늦었구나. 이제는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손에 다시 총을 잡을수 있다면! 그러나 이제는 늦었습니다. 계주봉은 이미 저 젊은이들 손에 넘어간것입니다. 그런데 계주봉을 넘겨받은 젊은이들이 이 준엄한 시각에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있는것일까... 나는 잠시 숨을 돌리고야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나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거리의 소음을 뚫고 추위에 더 질어지는 듯 한 어둠속에서 노래소리가 울려오고있었습니다.

가렬한 전투의 저기 저 언덕
피흘린 동지를 잊지 말아라
...

《결전의 길로》! 《결전의 길로》였습니다!

다시 귀를 기울여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50년대 우리가 불속을 뚫고나가며 부르던 그 노래였습니다! 언제든 듣기만 하면 불타는 락동강과 포성에 몸부림치던 고지들이 떠오르고 저절로 눈물이 고여오르게 하던 노래였습니다.

어데서 부르고있는것일까.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처음은 방송에서 나오는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귀기울여 들어보니 방송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데선가 여럿의 목소리가 부르는 노래소리였습니다. 토막토막 끊기기도 하고 낮아졌다 다시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나는 노래소리가 울리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노래소리는 점점 가까와졌습니다. 절룩거리며

숨가쁘게 이르러 보니 개축을 시작한 영광거리의 건설장이었습니다.

전후복구건설시기 반토굴과 움막집에서 사는 우리 인민들에게 몇년 사이 일시에 새집들이 기쁨을 주었던 《평양속도》창조의 시기에 지은 집을 현대적살림집으로 개축하는 공사현장에서 그 노래가 울려오고있었습니다.

기초작업장이었습니다. 공동위생실, 공동세면장 대신 집집마다 현대적인 위생실과 세면장을 마련해주는 벽체가 솟아오르게 될 기초작업장이었습니다.

차거운 물이 차오르는 기초구덩이에서 청년들이 노래를 부르고있는것이었습니다.

굴착을 끝내고 기초콘크리트를 타입하려고 할 때 지하수가 터져나왔다는것입니다. 지하수는 구덩이에 차올랐고 얼마후에는 물을 먹은 기초구덩이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은 물에 뛰어들어 무너져내리는 벽을 몸으로 막아나섰다는것이었습니다. 노래는 바로 그들이 부르는것이 었습니다.

원주의 불구멍 몸으로 막은
전우의 죽음을 헛되게 말라
...

나는 그들속에 뛰어들었습니다. 물은 얼음처럼 찼습니다. 그대로 얼음이었습니다. 그 물속에서 청년들은 무너지는 흥벽을 몸으로 버티고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휘틀을 조립하고 콘크리트를 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위는 더 혹심해지고 바람은 칼날같았습니다. 그러나 노래소리는 점점 더 높아갔습니다.

피로써 승리해 가는 이 길이
그리운 고향에 뻗치고있다
...

쏟아져 들어가는 예열한 혼합물에서 뜨거운 흰 김이 포연처럼 자욱히 피여올랐습니다. 청년들의 입에서도 나의 입에서도 흰 입김이 노래와 함께 터져오고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락동강의 붉은 모래불, 남해바다를 그려보던 전우들, 무명고지의 불타는 룡선... 이 모든것이 여기 건설장에 있는것 같았습니다. 나는 청년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20전후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건설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가지

옷차림들이 섞여있었습니다. 내옆에는 땀시있는 빨간 솜옷에 흰 머리수건을 쓴 처녀가 서있었는데 그의 손에는 외국어단어장이 쥐여져있었습니다. 대학생이 틀림없었습니다.

또 나의 다른쪽에 서있는 몇쟁이외투에 털이 부르르한 황금빛털모자를 쓴 젊은이의 입에서는 맥주냄새가 풍겼습니다. 방금전에 지나온 청량음료점에서 맥주조끼를 들고 웃어대던 젊은이일수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눈갈이 흰 목달개에 다림발선 산뜻한 군복차림의 군인이 서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기동처럼 사품치는 얼음물속에 끄떡않고 서있었습니다. 표창휴가를 왔던 군인일수도 있었습니다.

그들모두가 팔을 결고 무너지는 흥벽을 몸으로 막으며 노래를 부르고있었습니다.

쓰러진 전우의 원한 씻으려
나가자 동무여 섬멸의 길로
...

그들이야말로 내가 방금전까지 이 땅에 결사적인 준엄한 시각이 온다면 우리가 50년대에 걸던 그 길을 서슴없이 걸을수 있을것인가 하는 의혹을 느꼈던 세대들이었습니다.

거리의 모습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구태의연함이 아니었습니다. 태연자약함이었습니다. 그 무엇에든 준비되어있는 우리 인민, 모든것을 각오한 선군시대 우리 인민의 숨결이었습니다.

◁가사▷

장군님 이야기로 우리 세월 빛나네

리광선

해썬은 아침에도 별뜨는 저녁에도
때없이 시작되는 장군님 이야기
야전차의 동음에 마음 따라세우며
그리움의 이야기는 날마다 이어지네
아 장군님 이야기로 우리 생활 흐르네

고난의 나날에도 운명의 어버이로
한마음 하늘처럼 받들며 살았네
전설로 수놓아진 그 이야기 나누며

그 무엇도 우리를 놀래올수는 없을것입니다.
나는 그밤 젊은이들의 모습에서 나의 전우들의 모습을 그리고 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희생된 지 오랜 전우들도 그리고 나도 모두 이 청년들의 가슴속에 살아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두고 영생이라고 하겠지요...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가슴아팠던것은 그 제도를 위해 흘린 피가 헛되어버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렸습니까. 피는 물이 아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다.

허나 물로 되고말았습니다. 설사 전승기념비들이 아직 남아있고 무명전사묘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그냥 타오르고있다고 해도 그들은 죽은것입니다.

사람은 두번 죽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처음엔 육체가 죽고 다음은 그의 존재자체가 죽습니다. 그들은 두번째로 죽었습니다... 죽었지요. 영생을 믿으며 떠나갔을 그들이... 죽었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밤 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나는 우리가 채 쏘지 못한 총탄, 수시로 안정을 깨뜨리고 목은 상처와 함께 심장을 아프게 하는 그 채 쏘지 못한 총탄들이 그 젊은이들의 심장속에도 채워져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천만리 먼길을 웃으며 헤쳐왔네
아 장군님 이야기로 우리 삶이 꽃피네

민족의 영광을 떨쳐가는 이야기
조선의 행복을 가꿔가는 이야기
부강한 래일의 승리를 불러오며
태양의 노래로 끝없이 이어지네
아 장군님 이야기로 우리 세월 빛나네



한성호

1

선희는 전자도서관과 연결된 컴퓨터 화면에 침취되어있었다. 화면에는 지구의 만틀층가까이까지 굴을 뚫은 다음 거기에 물을 쏟아넣음으로써 뿜어나오는 증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지열발전소전망설계가 현시되어있었다.

누구나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대담하면서도 첨단공학기술성과들을 용의주도하게 도입한 현실성있는 설계였다. 경탄과 함께 부러움이라고 할지 시샘이라고 할지 야릇한 기분이 선희의 가슴을 조였다. 그 역시 화면의 설계못지 않는 착안으로 세상을 놀래우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는 때에 알지 못할 경쟁자가 한발 앞선것이다.

어떤 사람일까? ... 호기심에 싸여 급히 설계자의 이름을 현시해본 선희는 저도 모르게 긴 속눈썹을 지켜올렸다.

전력설계연구소 연구사 강철혁?!

설계자가 자기와 한 연구소 연구사라는 점이 그를 더욱 의아하게 만들었다.

선희가 연구소에 배치되어온지도 1년가까이 된다. 그동안 그는 거의 모든 연구소사람들과 교제를 맺기 위해 애써왔었다. 선배연구사들의 지식과 경험을 깡그리 자기의것으로 만들려는 욕심때문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더듬어봐도 강철혁이라는 사람을 만나본 기억이 전혀 없었다.

고개를 기웃거리는 선희를 훑쳐보았는지 전자설계도판에 마주앉아있던 조수 승남이가 히죽 웃으며 시까슬렀다.

《연구사동문 눈을 감고 지낸게 아닙니까? 아, 연구소적으로 <시추기>로 소문난 철혁동지를 모르다니. 과학의 암반을 집요하게 뚫고들어가는

시추기! ... 아마 지금도 철혁동진 만틀행지하로 케트를 만드느라고 로봇트제작공장에서 밤을 패고있을겁니다.》

《그가... 어때?》

선희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승남이는 다시 능청스럽게 웃었다.

《총각입니다. 잘 생긴 미남총각.》

《아이, 그걸 묻는게 아니라...》

《압니다. 찾아가 보십시오. 박식하고 열정적이고 또 남을 위해서는 헌신적인 사람이니까 많은 도움을 받을겁니다.》

선희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껏 타는듯 한 초조감과 흥분속에서도 시간을 쪼개며 사는 그였다.

그에게 규모에서나 그 형식과 운영방식에서 아직까지 볼수 없는 가장 크고도 독특한 해상도시에 전력을 보장할 설계과제가 맡겨졌던것이다.

《우린 동무를 믿고 대담하게 맡기기로 했소. 대학때부터 기발한 착상으로 소문난 동무니까 해낼수 있다고 보오. 아니 무조건 해내야 하오.》

한달전 선희를 불러왔히고 연구소 소장인 박학민원사가 한 말이였다.

그때 선희는 잠을 자다가 무엇에 놀라 깬것처럼 화닥닥 놀라기까지 했었다.

갓 대학을 나와 연구경험이 별로 없는 자기에게 조국의 존엄을 만천하에 시위할 대규모 해상도시의 동력, 즉 《심장》을 맡겼던것이다. 성공하면 그것은 그대로 선희를 명성의 봉우리에 우뚝 올려세워줄것이다. 선희는 흥분의 조수가 일시에 가슴가득히 차올라 그만에야 무아경에 빠졌었다.

그때부터 선희는 침식도 다 잊고 설계연구에 달라붙었다. 물론 간단히 해결할 방도도 있었다.

나라의 도처에 세워진 원자력발전소의 동력을 끌어들이는것이 그 한가지였다. 그러나 선희는 여러가지 일련의 난문제로 해서 어느때든 부득불 가동을 멈추게 될지 모를 원자력발전소를 리용하는 땀배기식방법을 자기로서는 도저히 허용할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지향과 목표는 뚜렷했다. 남들이 지금껏 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우면서도 비상한 실리를 얻을수 있는 창조적방식을!

그러자면 조수력을 리용한 발전소? 아니면 풍력이나 태양전지?... 미래의 발전소모델을 탐구하나라고 선희는 콤퓨터에서 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느라니 한달사이에 눈이 캥해지고 볼이 폭 꺼져내렸다.

그 모습이 몹시 딱해보였던지 박학민소장은 이틀전에 슬그머니 조언을 주기까지 했었다.

《자기 힘으로 해낸다는 각오는 과학자의 필수 불가결한 자세요. 하지만 동지들과 집단의 방조를 허심히 청하는것 또한 아름다운 장점이고 성공에로 가는 지름길이지.》

선희는 얼굴이 뜨거워났다. 박학민소장의 말에서 자기가 남의 도움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자기것》만을 노리는게 아닌가 하는 힐난을 감촉한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어 연구소에서 지금껏 이룩한 연구성과들을 분석검토하면서 좋은 조언을 줄수 있는 능력자를 찾기 시작한것이었는데 뜻밖에도 강철혁이라는 젊은 연구사가 눈에 걸려든것이였다.

강철혁?... 남을 위해 헌신적이란 말이지?!... 헌데 아무래도 이름이 귀익어.

《좋아요. 난 그를... 만나보겠어요.》

마침내 결심을 내린 선희는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선희를 태운 초매체승용차(태양열 및 수소 전지로 주행하면서 발전기를 돌려 2차 충전한 다음 이것으로 다시 전동기를 가동하여 달리는 무공해 혼성차)는 날듯이 연구소 정문을 빠져나와 눈썹리 아득하게 펼쳐진 과학도시의 중심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과학도시는 수백만평방미터의 건평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부지의 기슭을 따라 각종 연구소들이 빙 둘러자리잡았고 그 중심부에 연구성과들을 직접 실현하는 공장들이 집중되어있었다. 공장들은 어느것 하나 연기나 소음같은것이 전혀 없는 무공해밀폐식원격조종체제로 돌아가고있었다.

수족관형식의 초강도유리도로를 내달리는 승용차안에서 선희는 이제 만나게 될 청년의 모습을 상상해보다가 갑자기 이마를 쳤다. 도로 수족관속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팔뚝같은 진주고기들

이 불쑥 한 청년의 모습을 상기시킨것이다.

그날의 그 영큼하던 청년, 꽃다발과 함께 안겨졌던 가차없는 구탄!...

틀림없어.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강철혁이였어!

선희는 가슴이 후두둑 뛰었다. 이 얼마나 공교로운 일인가... 선희는 피나게 입술을 깨물었다.

상기하고싶지도 않은 운명적인 1년전 그날.

...그날 대학졸업을 앞두고 선희의 학술논문이 《과학통보》 잡지에 실렸었다. 그가 긴장한 학업과정을 최우등으로 마치면서도 짹짹이 착안연구한 《액체석탄발전소》의 공업화원리였다.

그 원리의 요점은 21세기의 초엽에 세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석탄가스화방식처럼 지하속의 석탄을 캐지 않으면서도 그보다 몇배의 효률을 낼수 있다는점이였다.

온 대학이 떠들썩하게 그를 축하해주었다. 동창생들은 그의 손을 부여잡고 찬사와 부러움을 숨기지 않았고 교수들 역시 선희가 기발한 착상을 한데 대하여 경탄하면서 촉망되는 장래의 빛나는 성공을 예언했다.

사방에서 전화가 걸려오고 기자들까지 달려왔다.

《저... 뭐라고 했으면 좋을지 전 다만 우리 대학생들이 이렇게 한가지씩 래일의 과학을 오늘로 당겨온다면 조국은 오늘에 벌써 래일의 눈부신 세계속을 날게 될것이라는것을 생각했을뿐입니다!》

성공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그가 한 말이였다. 그는 자신에 대한 긍지와 희열, 행복감으로 가슴이 풍선처럼 부풀어있었다.

저녁무렵이 되어서야 선희는 겨우 사람들의 선망의 눈길속에서 빠져 집으로 향했다.

그가 집앞의 공원 수족관앞을 지날 때였다. 웬키가 큰 청년이 불쑥 그의 앞을 막아섰다.

《저 지선희동무 아십니까?》

《?...》

《<액체석탄발전소>를 착안연구한...》

《예, 그런데?...》

청년은 그때까지 등뒤에 감추었던 한손을 쑥 내밀었다.

그의 손에서는 빨간 장미 한송이가 저녁노을빛에 불타며 흔들거렸다.

《받아주십시오. 같은 과학자로서 축하합니다...》

선희는 얼굴을 살짝 붉혔다. 이 하루동안 너무도 많이 받아온 꽃다발이였고 축하였다. 그럼에

도 이 순간에 이상한 생각이 뇌리에 갈마들을 어쩔수 없었다, 길거리를 오가는 대학생처녀들속에서 어떻게 자기를 알아보았을가? 초면인데 혹시 대학정문에서부터 나를 따라온건 아닐가?

미심쩍어하는 선희의 시선을 느꼈는지 청년은 어색하게 군기침을 깃었다.

《사실은... 제 이름은 강철혁인데... 동무와 조용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싶어서...》

(조용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선희는 대뜸 표정이 굳어졌다. 결국 청년은 어떤 은밀한 기도를 갖고 자기를 추적하여온것이 다.

지금껏 선희는 대학에서 수재라는 떠받들림과 함께 용모때문에 시끄러움을 당하곤 했었다. 자신은 제얼굴이 그저 쓸쓸해보였지만 많은 총각들이 별스레 각근히 굴면서 갖은 친절을 다 베풀었고 녀동무들까지도 찍하면 《아유 시샘나 죽겠네!》하며 그의 미모를 부러워했다.

그런 과정이 오래 반복되는 사이 선희의 의식 속에는 내가 정말 고운게지 하는 생각이 야금야금 자리잡았고 그로 하여 은근한 자부심과 함께 매사에 경계심도 품도록 만들었다.

분명히 이 청년도 축하의 명목밑에 학술적인 이야기와는 거리가 먼 시시껄렁한 《고백》따위나 하려 들겠지...

선희는 상대가 모욕을 느낄수 있다는것을 알았지만 깔끔하게 내쏘지 않을수 없었다.

《고맙지만 전 지금 몹시 피곤하답니다. 안됐어요. 그럼 안녕히!》

《아, 동무!...》

청년이 황황히 부르짖었지만 이미 선희는 구두 뒤축으로 툭툭 포석을 구르며 쩍쨍하게 그앞을 지나갔다. 그런데 허겁지겁 길을 막을줄 안 청년은 이윽도록 잠자코 있더니 선희가 공원밖을 거의 벗어날무렵 갑자기 격한 말마디를 툭 던졌다.

《새겨 두시오. 동무같은 사람이 근시안이라는걸!》

선희는 딱 굳어졌다. 뭐 근시안?!...

숨이 꺾 막힌 선희는 해쓱해진 얼굴을 책 돌렸다.

다음 청년을 쏘아보면서 오연하게 마주왔다. 모욕을 당하면 참지 못하는 그였다.

《예?!... 비겁하게 등뒤에서 해보지 말고 앞에서 말해보십시오. 자.》

자기의 당돌한 연습에 기가 질릴줄 알았던 청년은 뜻밖에도 히죽이 웃었다.

《그럴줄 알았습니다. 모욕을 느낄줄 모르면 그게 무슨 대학생이겠습니까?》

《아니...》

《가만!》

청년은 선희의 말을 밀막으며 손을 쳐들어보였다.

《난 축하와 함께 비판도 함께 해주려고 동무를 찾았더랬습니다. 동무가 낸 논문의 그 비상한 착상이며 정교한 공학적타산... 그건 꽃다발을 받을만한겁니다.

그러나 원유가 고갈되고 마지막화석연료인 석탄도 바닥이 드러나는 이때 동무의 액체석탄발전소가 몇년이나 가동할것 같습니까? 것처럼 방대한 규모의 투자를 해서 세운 발전소가 말입니다. 하물며 세계적으로 환경보호문제가 절정에 달했는데 석탄을 태운다?》

선희는 가슴이 싸늘하게 얼어들었다. 떠들썩한 찬사에 머리가 어지러운 지경인 그에게 있어 이러한 비난은 큰 타격이 아닐수 없었다.

저도 모르게 호흡이 가빠졌다.

《그럼 동문... 나라의 자원을 모조리 리용하는걸 반대한다는겁니까? 그리고 환경오염은 거의 령이나 갈단 말입니다.》

맴짜게 반박하느라고 했으나 선희는 자기의 목소리가 그닥 자신심없이 울리는데 약이 올랐고 그만큼 더 분해서 울고싶었다.

그러나 청년은 사정을 보지 않고 즉시 면박을 주었다.

《<저의>라는건 <완전히>란 말의 동의어는 아니지요. 그리고 화석연료를 석탄이나 원유로 리해하던 개념도 이제 낡았습니다. 오늘 시대는 규모나 알루미늄과 같은 무진장한 광석을 연료로 개발하는 단계에 들어섰단 말입니다. 머지 않아 이 땅의 모든 원소를 다 연료로 쓰게 될겁니다.》

선희는 자기가 여지없이 패했다는것을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수족관안에서 꼬리잡이를 하던 전광어들이 말뚱말뚱해서 자기를 쳐다보는것이 눈에 띄었다.

고기들까지도 《어때 졌지?!》하고 깨고소하게 놀려대는것만 같았다.

등뒤에서 한결 부드러워진 청년의 목소리가 울렸다.

《선희동무, 조국의 진보에 충실한 과학의 날개를 달아주지 못하는 연구는 개인적인 명예의 추구로 떨어지고 만다는걸 명심해두시오.》

청년이 사라진 다음에도 선회는 발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어떤 불순한 기도로 접근한다고 보았던 청년이 자기의 금지며 자부심이며를 이렇게 물거품처럼 깨버릴줄은 몰랐다. 정말 자기는 청맹과니 한가지였던 말인가?

뒤늦게야 청년이 자기를 두고 개인적인 명예를 추구했다고 내놓고 비난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한 생각에 불쑥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청년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 일은 가슴속에 빠져린 아픔으로 오래오래 남아 선회를 괴롭혔었다. 그런데 문제의 청년과 맞설 운명이 차례질줄이야.

《아니 차라리 만나지 말아야 해!》

선회는 승용차를 멈춰세우려고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난관에 부딪친 자기의 연구가 상기되면서 손을 움츠려들게 했다. 개인적인 감정에 포로되어 연구소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린다면?!

절로 한숨이 호-하고 새어나왔다.

제발 다른 사람이었으면, 같은 이름이 어디 한 둘만인가. 승남인 그가 잘 생긴 미남이라고 했지.

헌데 내가 만나본 그 청년은 볼품없이 껍두룩한 데다가 얼굴은 거무스레한게 지성인은커녕 남자로서도 전혀 호감이 가지 않았다.

불안스러운 가슴을 이렇게 자문자답하며 달래고나니 한결 마음이 편해져 승용차를 고속으로 내몰았다.

2

선회의 기대감은 청년을 만나는 순간에 허물어졌다. 로보트제작공장의 거대한 우주기구같은 중앙조종실에서 지하굴진용로케트조립과정을 컴퓨터로 조종하고있는 연구사는 다름아닌 그 강철혁이었던것이다.

돌아서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구차하게 머리를 숙이며 지난 일을 꺼들고싶지도 않았다. 하여 선회는 오히려 고개를 꼿꼿이 들고 또박또박 자기소개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같은 연구소의 지선회입니다.》

《절 찾아오셨습니까?》

강철혁은 긴장하게 더듬던 사색에서 미처 깨어나지 못한듯 눈을 슴벅거렸다.

《예. 지난해...》

《아, 알만합니다.》

비로소 강철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병글씨 웃었다.

《지선회... 그러니 지난해에 우리 연구소에 배치되어 왔겠습니까. 지금은 해상도시전력설계를

맡았고 옹습니까?》

《예.》

《알게 되어 반갑습니다.》

철혁이 깎듯이 고개숙며 인사했다. 선회는 그만 어리둥절해지고말았다. 상대가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인사했기때문이었다.

정말 몰라보는것일가?... 미심쩍기는 했지만 딱한 경우에 물리지 않게 된것이 우선 다행스러웠다.

한편 강철혁이 1년전 그날 자기의 미모에 혹하여 따라온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쑥스럽고 허전하기도 했다. 사내들은 한번 반한 녀자의 얼굴은 쉽게 잊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큰 연구성과를 거두셨습니다.》

애써 마음을 다잡은 선회가 화제를 돌리자 철혁은 어쭈게 웃으며 머리를 썩썩 긁었다.

《누구나 하는겁니다. 오히려 현실의 절박한 요구에 비해볼 때에는 좀 늦은셈입니다. 선회동무 쪽이 더 비약할만 한 과제를 맡았으니 난 부럽습니다.》

《아이, 전 시작도 못했습니다.》

《뭐 기초연구엔 들어섰단데.》

너무 겸손한 말에 선회가 뭔가 조롱하는게 아닐가하고 여겨보았으나 철혁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것이 다행스러웠다. 그럴수록 기어이 사람들을 놀래울 독특한 착상을 해야 하겠다는 각오를 선회로 하여금 새롭게 다지게 했다.

《경험이 어리다나니 욕망뿐이지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혁연구사동지한테서 방조를...》

《허 방조라!...》

선배로 여기고 도움을 청하는것이 철혁은 싫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길이 가닿은 곳을 여겨본 선회는 기분이 언짢아졌다.

철혁은 자기와 혼연히 말을 주고받으면서도 지하로케트가 현시되어있는 컴퓨터화면을 줄곧 더듬고있는것이 아닌가.

남을 위해 헌신적이라더니...

그런데 이때 철혁이 던진 말은 선회를 어지간히 놀라게까지 했다.

《선회 동무는 해상도시건설장에 나가보았습니까?》

《아니 저...》

선회는 아래입술을 깨물었다. 전혀 예견치 못했던 질문이었다. 철혁이 언뜻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알릴듯 말듯 고개를 저었다.

《현실에 나가보아야 할걸 그랬습니다. 현실은 무궁무진한 창조의 원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

까?》

철혁은 약간 미간을 찌프린채 컴퓨터화면에 눈길을 돌렸다. 선희는 얼굴이 뜨거워났다. 어쨌든 철혁의 말이 자기에 대한 은근한 비난이라는것을 깨달은 선희는 황황히 변명했다.

《꼭 가보아야 한다는 법은 없지요. 컴퓨터엔 해상도시의 전모와 그 설계가 눈으로 보는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입력되어있습니다.》

비로소 철혁은 컴퓨터화면에서 완전히 눈을 떼었다. 그의 표정이 엄하게 굳어졌다.

《훌륭한 연구과제를 말인데 대해서는 축하해야겠지만 현실을 외면하는데 대해서는 비판해야겠습니다. 동무에게 구태여 방조를 준다면 건설자들의 지향과 요구를 알고 그것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는겁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실패를 면할수 없습니다.》

철혁은 더이상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듯 컴퓨터쪽으로 돌아앉았다.

《?...》

선희는 얼굴이 해쓱하니 질렸다. 이것은 명백한 무시였다.

1년전에도 그는 축하와 비판이라는 똑같은 수법으로 내 가슴에 아픈 못을 박았었지.

그땐 분해서 울었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할 정도로 분한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것이였다. 그저 범상히 여겼던 물건이 뜻밖에 자기가치이상을 나타낼 때의 호기심이라고 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철혁을 바라볼뿐이였다.

선희는 그를 더이상 방해하고싶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조종실에서 나오고말았다.

《만나봤습니까? 그래 어떻습니까?》

연구소로 돌아온 선희에게 승남이가 빙글거리며 물었다.

선희는 긴 속눈썹을 치며올렸다.

《됐어. 그 애긴 그만하자. 승남동문 이제 당장 해상도시건설장으로 떠날 준비를 해줘.》

승남이의 의아쩍은 눈길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선희는 얼른 고개를 돌려버렸다. 자기 얼굴이 새빨강게 달아올라서였다. 이 순간에 자기가 현지로 나갈 결심을 가지게 해준것이 다름아닌 강철혁이때문이라는것을 알았을 때 선희는 흠칫 놀라기까지 했다.

선희는 밖으로 나가는 승남이를 보며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나 창가에 가섰다.

밖은 이미 어둑속에 잠겨있었다. 밤하늘에는 제나름의 이름을 가진 별들이 강변의 자갈돌처럼 널려져 빛을 뿜고있었다. 어디선가 긴 꼬리를

그으며 별찌가 떨어졌다.

별찌를 보며 선희는 웬일인지 원인모를 긴 숨을 창유리에 불어땀다. 그러자 창유리에 부딪쳤다 사라지는 입김과 함께 뜻밖에도 강철혁의 모습이 우렁이 떠올랐다. 그 강철혁이가 지금 선희를 동정하듯 바라보며 말하고있었다.

《동무에게 구태여 방조를 준다면 건설자들의 지향과 요구를 알고 그것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는겁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실패를 면할수 없습니다.》

강철혁,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가?!...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도 선희는 생각에서 좀처럼 깨어날줄 몰랐다.

3

수십키로메터나 바다를 밀어내고 일망무제한 간석지 새 논벌을 안아온 서해안제방우에는 《해상도시건설지휘부》라는 간판을 크게 내건 3층짜리 변색수지벽체건물이 화려한 자태를 드러내며 우뚝 솟아있었다. 눈부신 해빛과 바다바람의 온도와 습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벽체는 순간마다 풀색과 하늘색으로 색을 바꾸어가며 보는 사람들의 눈을 시원하게 해주고있었다.

안내를 맡은 건설지휘부의 책임기사는 선희네 일행을 곧추 《해상도시건설전경도》앞으로 이끌어갔다.

《이건 현재 세계적으로 제일 크고 형식이 새로운 부유식수직형해상도시입니다.》

책임기사의 자랑스러운 설명이였다. 선희와 승남이의 입에서는 대뜸 《야!》하는 감탄이 흘러나왔다. 선희로서는 이미 컴퓨터화면으로 충분히 료해하였으나 직접 전경도의 실물을 보니 감상이 새로왔다.

해상도시는 바다물면우에 80메터 높이로 총 4층으로 구성된 100만평방메터의 넓은 건평을 가진 리상적인 도시였다.

1층에는 무역중심과 도시전력공급계통, 폐기물처리시설 등 주로 외부와의 거래업무와 도시운영보장시설들이 자리잡았고 2층은 산업구역으로서 해양과학연구기지며 각종 첨단공장기업소들이 들어있게 되어있었다.

3층은 살림집과 봉사망들이 차지하고있었고 해상도시 지붕이라고 할수 있는 4층에는 현대적인 초음속비행기들이 리착륙할수 있는 비행장과 두줄기로 된 비행기활주로와 체육중심이 있었다. 그리고 도시 우측면에 위성지상송수신국과 위성통신계통이 설치되어 기상예보를 비롯하여 세계

각지와 위성통신을 할수 있게 되어있었다.

이런 거창한 대 해상도시가 바다물깊이 100~200미터되는 심해 중심에 1만여개의 강철기둥과 부유탱크들우에 세워진다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바로 이런 세계적인 인공해상도시에 전력을 생산 보장할 연구과제를 맡았다는 자부심과 격동, 책

무수한 얼음알갱이가 되어 다시 바다에 떨어져내리었다. 떨어진 이 얼음알갱이와 바다물사이의 온도차가 바로 전기생산의 기본요소로 되고있었다.

《썩-》

물보라가 선회의 온몸을 들썩웠다. 그제서야 선회는 정신을 차렸다. 전류의 흐름소리처럼 《붕-》 하고 들리던 소리도 사라졌다. 눈을 치뜨고 앞을 보니 방금전까지 하늘을 떠받들듯 서있던 거대한 탑신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대신 무지개가 걸린 하늘에서 햇빛이 부서져내리고있었다.

선회의 얼굴색이 점차 밝아지기 시작했다. 강우기에서 쏘아올린 대줄기같은 물이 하늘꼭대기로 포물선을 긋는 모습을 보며 선회는 환성을 질렀다. 그의 머리속에서는 벌써 자기가 일떠세울 발전소의 웅장한 자태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선회는 길게 심호흡을 했다.

저 자연계의 물순환과정을 방금전에 안개속에서 피곳 보았던 탑신안에서 진행되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준다면?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선회는 벌써 제 정신이 아니었다. 끝모를 미궁속에서 헤매이다가 출로를 찾았을 때 찾아드는 안도감과 그뒤를 따르는 환희와 흥분으로 선회는 머리가 핑 돌았다. 아니, 성공의 예감으로 숨이 껍 막혔다.

선회는 두팔을 한껏 벌리고 강우기에서 떨어지는 물벼락을 달게 받아들였다.

《아니 연구사동무, 뭐가 좀 잘못된게 아닙니까?》

강냉이술을 해치고 승남이가 혈떡거리며 나타났다. 그는 쏟아져내리는 물보라를 뒤집어쓰며 두팔을 벌린채 빙빙 돌아가는 선회가 제 정신인가 하고 두눈을 슴뻑거리며 바라보았다.

선회는 무작정 그앞으로 달려가 손을 덥석 부여잡았다.

《그래, 난 미쳤어. 호호... 어서 가자. 연구소로!》

선회의 방 지능컴퓨터화면에는 거대한 해양에네르기발전소가 가상적인 형태를 갖추며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대규모 해상도시의 웅자와 기묘하게 융합되면서 그 외적미를 더 한층 돋구는 독특한 형태였다. 마치 해상도시가 발전소탑신을 따라 우주으로 높이 치달아 오르는듯 해서 경쾌함까지 느끼게 했다.

미지의 대우주를 정복하며 줄기차게 전진하는 내 조국의 축도이자 상징이었다.

피아노연주가처럼 짹째 건반을 누르는 선회

의 손가락놀림에 따라 발전소의 기술제원들도 속속 산출되어나왔다. 초보적인 계산에 의하더라도

물의 증발과 하강과정을 자연계에서처럼 보장하자면 발전소탑신의 높이를 적어도 5천여메터이상으로 되게 하며 탑신의 구조도 안쪽과 바깥쪽으로 이루어진 2중으로 해야 했다. 그래야 바깥층은 물대신 암모니아가스를 (물을 5천여메터높이까지 쏘아올리기 힘들므로) 끌어올리는데 쓰고 가운데층은 고공에서 응결된 액체암모니아를 떨구는데 리용함으로써 바다물과 액체암모니아가스의 온도차이에 의해 전기를 생산할수 있었다. 전기를 생산하고난 액체암모니아를 다시 기체로 만들어주면 이 암모니아가스는 백수십키로메터의 시속으로 관을 통하여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게 된다. 결국 이런 방법의 연속으로 발전기를 돌려 생산할수 있는 전기량은 수백만키로와트!...

선회의 심장은 튀어나올듯 거세차게 고동쳤다. 자기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결과가 눈앞에서 어룡거리는것이였다. ... 거대한 대형탑신에서 반짝이는 노랑고 빨강고 파란 표식신호등들, 그 탑신안에서 전류의 흐름소리마냥 썩- 하는 소리가 가슴들먹이게 한다.

선회는 눈을 치뜨고 앞을 바라보았다. 컴퓨터화면에서는 방금전에 선회가 가상한 해양에네르기발전소가 비쳐지고있었다.

착상의 결과는 확실히 현지를 밟아본 결과에 얻어진 소중한것이였다.

선회의 얼굴에 고운 미소가 그려졌다.

그는 중얼거리듯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4

드디어 선회의 에네르기발전소설계가 연구소과 학평의회에 제출되였다.

넒직한 강당엔 평의회성원들이 빼곡이 들어앉아 정면벽을 반경화처럼 가득 채운 레이자현시장치의 해양에네르기설계도를 호기심과 경탄, 진지한 맹렬성을 가지고 주시하고있었다.

전자지시봉을 들고 나선 선회는 벌써 한시간 가까이 설계의 원리와 기술적제원 등 해양에네르기발전소설계에 대하여 변론하고있었다.

혹시 의혹과 부정을 당하면 어찌나 하고 가슴조였던 처음의 위구도 시간이 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자신심과 확신으로 바뀌면서 목소리는 맑고 청아하게 울리였다.

《...이렇게 저는 발전소가 서게 될 우리 나라의

지리적위치와 기상관측이래 현재까지 있었던 가장 특이한 기류상태와 최대폭풍, 최대해일과 지진까지도 다 계산하여 직경 30센치미터나 되는 세계의 초강도쇠바줄로 탐신을 받쳐줌으로써 그 안정성이 과학적으로 담보되게 하였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땀뻘한 긴장이 서렸던 장내에서 요란한 박수소리가 울려나왔다. 연구소 소장과 실장들, 머리 흰 로박사들, 재능있는 연구사들모두가 따뜻한 눈길을 보내며 열렬히 축하해주는 것이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호리호리한 몸매에 얼굴이 우유빛같이 맑은 아릿다운 처녀가 이런 세계적인 착안을 내놓은것을 대견하게 여기는 감정과 함께 희한해하는 놀라움마저 비껴있었다.

박학민소장이 먼저 발언하였다.

《바다결면에 많은 태양열이 축적되어있는것을 넓은 부지를 차지하는 평면식포집방법이 아니라 극히 작은 면적의 바다물온도차를 리용하여 전기를 생산할수있는 이러한 착상은 담이 큰 인간들, 그런 심장만이 내놓을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선희동무의 강우식발전소원리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현재 건설하고있는 해양에네르기발전소와 형태적으로뿐아니라 공학원리적으로 전혀 새로운 세계적특허에 속한다고 당당히 말할수 있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다. 박학민소장이 만족하여 손을 쳐들었다.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없지만 난 이 <강우식발전소>를 적극 지지합니다.》

모든 평의회성원의들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침묵으로써 동감을 표시했다.

선희는 눈곱이 뜨거워났다. 밤낮이 없는 긴장한 탐구와 주도세밀한 공학력학적수치계산의 나날 얼마나 혼신의 열정과 지혜, 창조력을 쏟아부었던가. 바로 그 열정, 그 창조가 지금 값높이 평가되고있는 것이었다,

이때였다. 맨 뒤자리에서 누군가 불쑥 일어섰다.

선희는 머리를 다소곳이 하고있었지만 강철혁이라는것을 대뜸 감각했다. 그 순간에 무엇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지 자신도 몰랐다. 다만 언제나 문제의 본질을 파고드는 그의 성격이 오늘같은 장소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리라는데 대해서는 은근히 경계하게 되던 그 불안스러운 마음의 귀퉁이 《그 동무다!》 하고 속삭인 것이었다.

아닐세라 피곤했던 결눈질해보니 이미 말을 떼기 시작한 사람은 키가 쑥쑥한 강철혁이가 틀림없었다.

《저도 원리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뿐만아니라 지선희동무의 비상한 환상력에 경탄했습니다.》

선희는 놀라 눈을 둥그렇게 떴다. 너무나도 의외의 칭찬이었다. 하지만 뒤이어 흘러나온 강철혁의 말은 선희를 아연케 하였다.

《그러나 난 선희동무에게 조국의 재부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불타고있는가 하는 의혹이 들었습니다.》

장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발언은 사실상 당자인 선희에게 너무나 뜻밖이었고 가혹한 매질이었다. 그는 온몸의 피가 발밑으로 다 새여버리는듯 하여 무중력공간에 들어선것처럼 몸을 휘청거리기까지 했었다. 그러건말건 강철혁은 침중하나 또박또박 그루를 박아 이야기를 계속 떠나갔다.

《저 설계엔 탐신제작을 위하여 방대한 량의 값비싼 <스금속>을 소모할것을 예견하고있습니다. 물론 조국은 그쯤한 <스금속>량은 어렵지 않게 보장해줄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우에 부강조국을 일떠세우는 길에 앞장선 우리 과학자들이 자기의 창조물 하나하나에 조국의 재부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를 위해 자신의 있는 지혜와 힘을 깡그리 바친 피타는 노력이 옛모이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을 과학자의 성실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

《에-에, 그럼 내가 성실치 못하다는겁니까?》

선희는 너무나 뜻밖이어서 절로 격하게 부르짖었다. 무서운 모욕감과 반발이 가슴속에서 태질하듯 끓어올랐다.

어제는 이 땅의 재부인 석탄을 남김없이 리용하려는 시도를 근시안으로 비웃더니 오늘은 반대로 성실치 못한 연구자세라고? ...

선희는 숨이 막혀 간신히 떠듬거렸다. ,

《그럼... 철혁연구사동진... 5천미터 탐신을 유지할 강도를... 무엇으로 어떻게... 보장할수 있다는겁니까? 바다물에 의한... 부식방지는 또?...》

《그걸 바로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과학자들이 아닙니까. 자기의 착안에 스스로 매혹되어 서둘러 공개할것이 아니라 완전무결한 창조물을 조국앞에 바쳐야 하는, 그래서 진실로 조국에 기여해야 하는 자각된 과학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설계안은 해양계류의 안정도와 고공에서의 탐신유지 등 치명적인 허점들을 가지고있습니다....》

강철혁은 계속하여 5천미터의 탐신이 바다물속에 1.5미터밖에 잠기지 않는 상태에서 떠있어야 하므로 막대한 부유기재를 덧붙이는 《랑비》가

또 있다는것 그리고 탑싹대기가 최대풍속때 좌우로 000미터나 흔들리게 되는데 높이가 하도 크므로 큰 흔들림이 아니라고 위안하는 점도 완전 무결이라는 요구에서 보면 위험을 안고있다는것 등 정교한 수술집도의사의 수술칼처럼 결점들을 날카롭게 파헤쳤다.

평의회심의원들도 모두 심각한 낯빛이 되었다.

애어린 처녀가 희한한 착상을 하였다는 점만을 높이 사서 이런저런 결함들을 제때에 찾아내지 못한 자기들의 관점을 새롭게 돌이켜보는데 하였다.

방안의 무거운 침묵이 선희의 가슴을 더욱 압박했다. 부글부글 끓어번지던 가슴속의 반발은 차거운 얼음덩이가 들어앉은듯 싸늘히 식고 절망과 수치만이 앙금처럼 가라앉아 내장을 허비였다.

(내가 정말 개인의 명예만을 추구하는 너절한 인간이란 말인가?... 아니, 아니야. 그럴수 없어! 아니야!...)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선희를 측은하게 바라보던 박학민소장이 우선우선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물론 세계적으로 처음 해보는 고도의 과학적 문제인것만큼 이런저런 문제점이 없을수 없습니다. 또 이자리에서 그것을 다 해결할수도 없고...

중요한것은 강철혁동무가 말한것처럼 우리모두 조국앞에 책임적인 과학자가 되어야 한다는것입니다. 나도 충격이 컸습니다. 조국의 진보에 억센 날개를 달아주는것, 달아주되 짐이 되지 않고 조국을 힘차게 떠미는 충실한 날개를 달아주는것, 그것이 바로 우리 과학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소장은 잠시 자기가 한 말을 되새겨보는듯 침묵했다가 선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선희동무, 오늘 평의회는 동무의 착안을 지지했소. 그러나 제기된 문제들을 가장 과학적으로 해결한 새로운 설계를 동무는 꼭 내놓아야 하오. 우리도 힘껏 돕겠소.》

선희는 언제 어떻게 강당을 벗어났는지 몰랐다.

기다린듯 초매체승용차가 자동적으로 미끄러져와 그의 발치에 멎으며 문이 열려졌으나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연구소구내 공원길을 걸었다. 그리고 생각해보았다. 박학민소장의 결론은 물론 옳았다. 선희는 자기가 너무 서둘렀다는것을 부끄럽게 의식하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연구경험이 어린 연구사가 세계적인 발명을 하기까지의 고심어린 탐구를, 그 비상한 지향과 노력을

응당하게 사주어야 하지 않는가.

뭘 성실성이 부족하다구? 그 동문 도대체 뭐야. 무엇때문에 나보고만 해볼까?...

(너무해, 너무해!...)

생각에 잠겨 걷던 선희는 깜짝 놀라며 멈춰섰다. 바로 자기의 발앞에 웬 사람의 구두가 떡 뿌리박고 서있었기때문이었다.

선희는 머리를 들었다. 앞에 서있는 사람은 방금까지 마음속으로 그리도 타매하던 바로 그 강철혁이었다.

강철혁은 야멸찬 선희의 눈길앞에 일순 당황해하는것 같더니 어쭈게 미소하며 말을 걸었다.

《미안하오, 선희동무. 실은 동무의 강우식발전소설계를 보고나니 피땀 뿜어오는 생각이 있어서... 내 보기엔 그 탑싹의...》

선희의 두눈이 번쩍했다. 그는 상대를 뚫어지게 보며 충알처럼 내쏘았다.

《아니, 그만하십시오! 난 동무의 조언을 더는 듣고싶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휙 돌려 오연히 공원길을 벗어났다.

자기 방에 들어서니 《빠-익》 하는 고성능대화기의 호출신호가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내키지 않았지만 선희는 대화응답기스위치를 눌렀다. 그러자 한쪽 벽체가 푸르스름한 색채로 변하며 밝아졌다. 플라즈마형광벽체였다.

벽체속에서 준수하게 생긴 박학민소장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선희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보였다.

《왜, 설계에 대한 의견에 너무 신경쓰는게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그래그래, 창조란 쉬운 법이 없지. 그러나 우리 동무를 믿소. 벌써 많은 연구사들이 좋은 착상을 안고 나를 찾아왔소. 강철혁동무가 제일 극성이더군.》

《철혁연구사동지가?!》

선희의 얼굴이 해쓱하게 변했다. 하지만 소장은 미처 가려보지 못한듯 열심히 손세를 써가며 말했다.

《그렇소. 머리도 비상할뿐아니라 정열적인 동무지. 그래 다들 <시추기> 라고 부르다오. 내 보기엔 철혁동무를 동무의 방조자로 붙이면 좋을것 같은데 어떻소?》

《예?...》

선희는 눈이 커져가지고 머리를 세관게 흔들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눈물이 나올것 같아 고개를

들었다. 그러면서도 항변하듯 새되게 반복했다.

《전 그렇게까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선희는 소장의 놀랜듯 한 그리고 측은한듯 한 시선이 자기의 옆얼굴을 찬찬히 더듬는것을 푹푹히 의식했다. 이윽고 박학민소장은 한숨을 내쉬며 은근히 권고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 쉬오. 휴식도 다음 전투를 위한 력학적에너지축적과정이니까. 알겠소?》

《고맙습니다.》

대화는 끝났다. 플라즈마형광막은 다시 산뜻한 흰 벽체로 변해버렸다.

선희는 머리가 지끈거리자 오존발생용탁상분수의 스위치를 눌렀다. 그러자 전광장식이 명멸하며 탁상분수가 분홍보라빛의 기묘한 물기둥을 뿜어올리기 시작했다. 방안주인의 무거운 기분을 자동적으로 수감하며 기분전환에 알맞는 오존을 방사하는 장치였다. 그러나 선희의 마음은 밝아지지 않았다. 자기를 그렇게 후려갈기고도 모자라 처녀의 생활속에 뛰어들려고 비위를 쓰는 강철혁의 모습이 그를 사뭇 불안하게 만드는것이였다.

(안돼. 내가 어떻게 그와 일한단 말이야!)

선희는 저도 모르게 입술을 아프게 감쳐물었다.

행성마다 자기 교유의 운동자리길이 있다. 두개의 행성이 한궤도상에 나란히 놓인다면 그것은 피치못할 재난을 불러오기마련이다.

선희는 길게 숨을 몰아 내쉬었다.

5

며칠후였다.

선희는 그동안 탐신재료에 대한 새로운 발견으로 하여 흥분속에서 컴퓨터를 마주하고있었다.

강철혁이가 《조국의 재부》를 운운한것이 마음에 아프게 걸려 전자도서관의 창문이란 창문을 다 열어 자료탐색작업을 밤낮으로 하던 끝에 《스금속》을 대신할수 있는 《르금속》과 수지재료를 탐구해냈던것이다. 《르금속》결과 안쪽면에 《X》재료로 착색을 하면 부식을 완전히 막을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탐신의 무게를 대폭 줄이는것은 물론 방대한 부유장치를 십분의 하나로 축소할수 있게 한다. 결국 해상도시의 미에 손상을 줄수 있는 부대시설건물이 대폭 줄어들게 된 것이였다. 돌 하나를 던져 세마리의 참새를 잡는 격이였다.

그런데 오늘따라 뒤늦게야 나타난 승남이가 하는 말은 선희에게 충격적이였다.

《우린 철혁연구사동지를 따르자면 멀었습니다.》

《?!》

《철혁 연구사동진 만들행지하로케트를 성공시켰지만 그에 만족할수 없다면서 또 새로운 연구과제를 스스로 말아나셨답니다.》

《뭐?!》

선희는 처음 보는 사람처럼 승남이를 바라보았다.

《이걸 좀 보십시오.》 하며 승남이는 들고있던 신문을 선희앞에 놓고 썩-하니 나가버렸다.

선희가 신문을 집어들었다.

《조국의 진보를 위한 헌신의 길에서》라는 표제 아래 강철혁이의 사진이 나붙어있었다.

선희는 눈을 홑뜨고 읽어내려갔다.

지열발전소를 연구완성하는 과정에 심부중심에 미치는 중력법에 대한 새로운 공법을 연구함으로써 다른 기술분야에도 적용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을뿐아니라 발전소 로동자, 기술자들을 도와주어 그들속에서 수십건의 가치있는 발명 및 창의고안들이 제기되어 국가발명권을 받게 해준 강철혁이의 애국적소행자료였다.

선희는 자기도 모르게 눈곱이 젖어들을 어쩔수 없었다.

강철혁이 그렇게도 성실한 인간이었던 말인가?

내가 정말 그에 대해 너무도 모르는게 아닐가?

그렇다면 그의 호의적인 방조를 단번에 거절한 나를 그가 어떻게 볼가? 도대체... 도대체...

저녁어스름이 비길 때까지 괴로운 의혹과 타매, 반신반의로 모대기다가 지칠대로 지쳐서 퇴근길에 오른 선희는 몇걸음 못가서 오펝 굳어져버렸다. 어둠이 서서히 기여드는 연구소의 어느 한 창문에 푸른 불빛이 쏟아져나오는것을 본것이다.

그것은 강철혁이의 방이였다. 전자설계도판을 마주앉은 별스레 꺾두룩해보이는 그림자가 창문에 우렷이 비껴있었다.

(새로운 연구과제를 맡았다더니...)

온종일 그를 사로잡았던 의혹이 다시금 온몸을 휘감는듯 해서 선희는 눈을 꼭 감았다.

그때 빠르게 열려진 창문으로부터 전자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선희도 잘 아는 노래였다.

얼마나 준엄한 날이 이 땅에 흘렀던가

얼마나 험난한 길을 우리가 걸었던가

수십여년전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세대가 나
라앞에 닥쳐왔던 엄혹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을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헤치며 신념으로 부르
던 노래였다

그래서 저 노래엔 참말로 눈물어린 사연도 많
다고 했다.

조국의 준엄하고도 영광에 찼던 력사로 오늘의
세대까지 애창되는 그 선률앞에 선희는 그만 가
슴이 몽클해지면서 눈앞이 뿌옇해져 옆에 놓인
정원결상에 주그리고앉았다

그날밤, 잠자리에 누웠던 선희는 때아닌 호출
대화기의 신호에 벌떡 일어났다. 옷매무시를 바
로하고 대화응답기를 동작시키니 뜻밖에도 싱글
거리는 승남이의 모습이 플라즈마형광벽체를 가
득 채우며 나타났다.

《내 연구사동무가 잠못이룰줄 알았습니다.》

승남이의 얼굴은 낮에 지어보였던 인상과는 달
리 능청스럽고도 흥분된 기색이었다.

《내 머리에 방금 떠오른것인데 말입니다.…》
하며 승남이는 자기 방의 컴퓨터를 가동시켰다.

그러자 화면에는 선희가 설계한 발전소탑신의
전모가 또렷이 살아났다. 승남이는 컴퓨터건반을
번개같이 눌러 탑신중간부에 비행기구같은것을
가져다 덧붙이면서 말했다.

《에- 이 물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하나
약속할게 있습니다. 즉 나를 이 시간에는 연구사
동무의 조수가 아니라 상급연구사로 인정해야 한
다는것, 어떻습니까?》

승남이가 무엇인가 기발한것을 착상하고 저렇
게 희뻘게 노는게 아닐가 하는 생각에 미치자 선
희는 제격 동의했다. 머리를 끄덕이는것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럼 잘 들어주시오. 연구사동
무 지금 탑신의 뜰힘을 크게 하고 그 류동움직임
을 줄여 안전하게 고정시킬수 없겠는가 하고 방
도를 모색하고있겠는데… 맞습니까?》

《그래. 그래!》

선희는 승남이가 자기가 고심하는것을 딱 짚어
말하는 바람에 너무 놀랐고도 반가와 얼른 말을
되받았던것이다. 승남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럼 이 상급연구사의 조언을 주의깊게 들어
보시오. 이렇게… (승남은 문제의 이상한 <비행
기구>를 전자지시봉으로 가리켜보였다.) 탑신중
간부와 꼭대기에 수천기압으로 압축시킨 수소탄
크를 매단다 이거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날것
갈소?》

승남이는 《상급연구사》홍내를 내느라고 짐짓

엄숙한 표정을 짓고있었지만 선희는 그런것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환성을 터쳤다. 그리고 어
린애처럼 딱 손뼉을 마주쳤다.

《어마나. 해양계류!… 멋있어, 정말 대단해!》

선희는 너무도 기뻐 플라즈마형광체라는 생각
도 잊고 와락 승남이의 앞으로 달려가다가 형광
벽체에 콕 부딪쳤다.

그러나 선희는 아픔을 느낄 사이도 없이 승남
이의 손을 잡으려고 화면을 막 더듬었다.

《동무가 어찌면. 어찌면… 이젠 됐어. 우린 성
공했어.》

어린애처럼 기뻐 발을 동동 구르는 선희의 모
습을 능청스럽게 여겨보던 승남이가 이번엔 시무
룩해서 두덜거렸다.

《그것 보십시오. 연구사동무 늘 자기 혼자만이
다 알구 다 하는것처럼. 나같은 결의 사람들의
도움도 받을줄 알란 말입니다.》

평의회에서 제기되었던 중요결함들의 해결방안
이 다 풀린 지금에 와서 선희는 승남이의 비판이
조금도 노엽지 않았다. 오히려 즐거웠고 기꺼이
받아들일 기분뿐이었다.

《그래그래. 난 정말 장님 한가지였어.》

줄음은 깡그리 달아났다. 그밤으로 선희는 새
로운 발전소설계의 모형을 완성하려고 컴퓨터건
반을 정신없이 두드리기 시작했다. 선희의 두눈
이 반짝하고 빛났다.

이것 보지, 탑신자체의 무게가 오분의 일로 줄
어들고 해양계류의 안정도가 수십배로 높아진,
그래서 해양에네르기발전소의 전체 모습이 더 날
씬하고 미끈해진 이 《미남자》를! 아니, 이건 정
말 아릿다운 선녀의 모습이야…

새날이 푸름푸름 밝기 시작해서야 폭신한 침대
에 몸을 던진 선희는 탁상등을 끄려고 스위치를
더듬다가 흠칫 손을 움츠렸다. 책상우에 놓인 자
동어항속에서 귀여운 진주고기들이 꼬리를 흔들
흔들거리며 말끄러미 자기를 굽어보는것을 띄어
본것이였다.

《선희아씨, 정말 잘해. 우린 이 탐스러운 꼬리
로 균형을 유지하지만 선희아씨의 수천미터짜리
탑신은 000미터나 시계추처럼 흔들리면서 발전소
전체의 균형을 야금야금 파괴할게 안예요.

선희는 그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딱 감았
다. 그럼에도 진주고기기의 꼬리지느러미는 여전히
눈앞에서 흔들거리며 그의 귀에 대고 못살게 속
살거리는것이였다.

(아니, 난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어, 않았
어.… 하지만… 하지만 그 흔들림이 어느때에 가

서는 기필코 발전소의 균형을 파괴할지도 몰라!...)

느닷없이 강철혁이의 열띤 부르짖음이 고막을 때렸다.

《자기의 착안에 스스로 매혹되어 서둘러 공개할것이 아니라 완전무결한 창조물을 조국앞에 바쳐야 한다는 자각된 과학자가 되시오!》

잇달아서 박학민소장의 무게있는 말마디도 떠올랐다.

《조국의 진보에 억센 날개를!... 달아주되 짐이 되지 않고 조국을 힘차게 떠미는 충실한 날개를...》

공명되는 소리에 엇갈려 선희의 눈앞에 불이 번쩍하고 일었다. 환영이었다.

바다 한복판을 가로 지르며 떨어지는 번개불에 확 드러나는 거대한 해양에네르기탑신을 위협하듯 검은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더니 미구하여 태풍이 불고 사나운 파도가 일어났다. 서서히 흔들거리는 탑신을 꺾어버릴듯이 이번엔 해일이 덮쳐들었다. 그리고는 부두에 견고하게 설치된 세멘콘크리트잔교까지 몽청 삼켜버린다.

갑자기 와지끈 탕탕! ...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다 한복판에 거연히 서있던 해양에네르기탑신이 몽청 허리가 잘리운채 무너져내린다.

선희는 그만 《아-》하는 비명소리를 지르며 끝내 자리를 차고 일어나고야말았다.

온몸이 땀에 화락하니 젖었다.

시름에 겨워 컴퓨터를 켜니 자기가 온밤 흥분과 격동속에 새로 설계한 해양발전소였건만 아직도 탑신안정도에서 완벽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망막을 아프게 찌르는것이였다.

선희는 전신의 맥이 아래로 쏙 빠지는것 같았다. 그만에야 책상에 어푸러져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선희는 자기 량심을 속이고 두번다시 과학평의회에 나설수 없다는것을,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 성급해하던 이전의 불성실한 립장으로 결코 돌아갈수 없다는것을 지금에 와서 똑똑히 깨달은것이였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변화는 언제 누구에 의해 이루어진것일까?...

느닷없이 강철혁이의 꺾두룩한 모습이 떠오르자 선희는 소스라쳤다.

(아이참, 내가 점점 왜 이럴까?...)

6

박학민소장이 자기 사무실로 불렀을 때 선희는

마음이 팽팽해졌다.

새로운 설계초안을 완성한지도 열흘이 지난 때였다. 해상도시건설장에서도 전력설계의 추진을 요구하는 독촉이 여러번이나 왔다는것을 선희는 알고있었다.

(모름지기 소장동진 나를 힐책하려고 할거야.)

마음을 도사려먹고 소장방에 들어선 선희는 놀랐다. 의외에도 방안에는 조수인 승남이가 한발 먼저 들어와 있었던것이다.

의아쩍어하는 선희의 눈길을 받으면서도 승남이는 짐짓 모르쇠를 하며 컴퓨터에 현시되는 전자도서관을 뒤적거리고있었다.

《?...》

《자, 이리 와 앉소.》

박학민소장은 선희가 자기옆에 앉기를 기다렸다가 벽체의 플라즈마형광막을 가동시켰다.

그러자 화면에는 뜻밖에도 선희의 강우식발전소설계도가 펼쳐졌다.

(아니, 이게 어떻게 여기에 벌써?...)

선희는 몸을 흠칫 떨었다.

아직은 미완성이라는 스스로의 요구성때문에 비밀에 붙이고있는 새로운 설계도였다. 짚이는것이 있어 피륙 승남이를 돌아보니 그는 심술궂게 웃을뿐 마주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있었다. 노여움이 북받쳤다. 지금껏 승남이더러 얼마나 부탁했던가. 아직은 공개할 자격이 없는 설계이니 미리 자랑하며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의 불쾌감을 깨뜨리며 박학민소장이 입을 열었다.

《자, 화면을 자세히 보시오. 이전의 설계와는 확실히 달라졌다는게 알리지 않소. 스텔금속대신에 초강도수지와 알루미늄이음관에 <X>착색채료를 리용했기때문에 탑신충증량은 십여만톤밖에 안되오. 또 수소탱크의 도움으로 해양계류안정도가 스물다섯배로 높아졌소. 말하자면 과학평의회가 우려가 이제는 다 가서졌다고 말할수 있소. 그런데... 그런데 무엇때문에 제출하지 않고있소?》

엄격한 물음이었다. 선희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다. 소장은 필경 설계완성기일을 질질 끄는데 대하여 노여워하고있다.

선희는 고개를 떨구고 힘겹게 대답했다.

《용서하십시오. 전... 전 차마 내놓을수 없었습니다.》

《무엇때문에?》

《그건... 과학자로서의 제 량심이 허락치 않았습시다.》

《그게 전부이겠소?》

소장은 왜서인지 여느때없이 지긋게 따지고들었다

선희는 그만 애써 자제하던 마음의 평형을 잃고말았다

《왜 그러십니까. 소장동지. 소장동지는 전번 과학평의회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조국의 진보를 떠미는 완전무결한 날개를 달아주는게 우리 과학자들과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설계에는 허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설계를 제가 내놓아야 한다는겁니까? 안됩니다, 안됩니다.》

다음순간 선희는 눈이 커졌다. 소장의 주름진 얼굴이 환한 웃음으로 가득차있는것이 아닌가?

소장은 무릎우에 다소곳이 놓여있는 선희의 손을 덥석 움켜잡으며 흥분해서 부르짖었다.

《고맙소, 고맙소. 선희동무, 난 바로 동무의 이 설계보다 진정으로 조국을 받들려는 티없는 그 마음이 더 기쁘오. 아무렴, 선희동무도 이 나라의 과학자지. 안그렇소, 하하...》

박학민소장의 치하에 얼굴을 붉히고있던 선희가 들고온 서류가방에서 씨디원판을 꺼내 컴퓨터에 집어넣었다. 그러자 화면에 거연히 솟은 강우식발전소탑신이 보이면서 언제인가 한밤중에 놀라 잠들수 없게 만들었던 그 무시무시한 장면이 3차원화면으로 재현되기 시작했다.

무서운 해일이 들이닥치고 강력한 태풍이 불어치는 장면이었다.

황포한 자연현상에 도전하듯 강우식발전소가 바다우에 우뚝 솟아 우주를 꿰뚫고있었다.

선희의 목소리가 떨리었다.

《제가 가장 안타까와하는건 탑신의 흔들림을 방지할 대책이 아직은 저에게 전혀 없는것입니다.》

《그 문제때문이라면 가만있소.》 하며 박학민소장이 제격 마우스를 잡아당겨 움직였다. 그러자 화면에 강우식발전소탑신이 확대되면서 탑신 맨 꼭대기우에 특수한 가락지모양의 랭각기가 틀지게 들어앉는것이였다.

《...》

박학민소장이 빙그레 웃었다.

《심부중심에 미치는 중력법을 도입했소.》

《예예?...》

선희의 두눈이 반짝하고 빛났다. 언제인가 승남이가 보여주었던 신문이 생각났다.

...강철혁연구사 지열발전소 연구완성하는 과정에 심부중심에 미치는 중력법에 대한 새로운 연구...

다음 선희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난 지금껏 왜 이 생각을 전혀 못했을까?!...

박학민소장이 다시 마우스를 움직였다. 그러자 화면에 선희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3차원화면으로 재현되기 시작했다. 무서운 해일이 들이닥치고 강력한 태풍이 불어치는 장면이었다. 황포한 자연현상에 도전하듯 강우식발전소가 바다우에 끄떡없이 서있었다.

《선희동무, 어떻소?》

박학민소장의 속삭임같은 물음이었다. 선희는 놀라운 기색을 감추지 않은채 《가만, 저...》 하며 화면에 눈길을 박고있었다. 지금 선희의 머리속에 전자계산기수자처럼 재빨리 스쳐가는 계산수치에 의하면 이 새로운 공법에 의해 선희가 그처럼 우려하던 탑신의 흔들림이 종전의 000메터로부터 수십메터라는 리상적인 수자로 류동직경을 대폭 줄일수 있었다. 이것은 완전한 성공을 의미한다.

선희는 눈곱이 쿡 쭈서났다. 바로 저런 형태의 안정방식을 찾지 못해 지금껏 얼마나 안타까이 머리를 쥐어짜며 모대졌던가?...

《소장동진 어떻게 이 공법을 여기에 도입할 생각까지 했습니까?... 이젠 됐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자신이 있단 말이지?》

《예, 소장동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방도를 찾아주셔서...》

너무 격동되어 말끝을 맺지 못하는 선희를 굽어보며 소장은 《허허...》 하고 웃었다.

《인사는 내게 할게 아니라 철혁동무에게 하라구.》

《예-예?》

《그렇소. 철혁동무는 심부중심에 미치는 중력법을 발견했을 때 이 방식을 지하뿐이 아니라 그 반대인 지상고공에서도 리용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오. 그래서 강우식발전소탑신에 도입해본건데 저 탑꼭대기에 올려놓은 무거운 가락지모양의 랭각기가 바로 그 문제의 기본 열쇠로 된다는걸 며칠 밤새우면서 밝혀낼수 있었소. 말하자면 탑신중심에 중력법을 적용한셈이지. 이 컴퓨터모의시험자료도 그 동무가 제공했소.》

선희는 자기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자제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럼 그 동무가 나를 위해...》

선희는 문득 불 밝은 창가에 우뚝이 비치던 그날의 강철혁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자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되는지 몰랐다.

그렇게 사심없고 성실한 한 인간에 대해서 나는 한때 얼마나 오해했던가. 그런데 그가 나를 위해... 승남이가 선희앞으로 다가왔다.

《연구사동문 다 모릅니다. 연구사동무가 철혁동지의 방조를 거절했을 때 그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압니까?... 오죽했으면 철혁동지가 나에게 승남이, 선희동무의 귀중한 착안을 성공시켜줘야겠는데 본인이 날 미워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가, 응? 승남이가 나대신 슬쩍 나서서 귀뜸해주라구까지 했겠습니까?》

철혁동무가 《선희동무의 귀중한 착안》이라고 했단 말이지. 결국 승남이의 수소탕크착상도, 탑신대용재질도 다 철혁동무가 내놓은것이였구

나...

선희의 눈앞에는 《지열발전소》연구과제가 바쁨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길에서 네일내일이 따로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강우식 발전소》설계완성을 위해 시간을 아낌없이 바쳐왔을 철혁이의 모습이 아름답게 안겨왔다. 그리고 그밤 그의 방 창가에서 울려나오던 노래소리도 귀에 쟁쟁히 되살아났다.

시련의 고비를 이겨나가며 부강조국의 래일을 앞당겨온 전 세대들처럼 오직 조국의 번영을 위해 한몸 불태우는 철혁동무, 따로 조국앞에 사심 없고 헌신적인 이런 인간이야말로 《조국의 충실한 날개》가 아니겠는가...

선희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가... 지금 어디 있어?》

《지열발전소를 완성하겠다고 어제 밤 현지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새로 연구한 중력법을 연구사동무가 받아들이면 고맙겠다고 몇 번이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고맙다는 인사야 내가 그에게 해야 할텐데. 그런데 그가 오히려 나에게... 아, 고마운 사람! 난 이제 어쩌면 좋아.)

뿐만 운무속에 가리워졌던 허상이 벗겨지고 대신 뚜렷이 드러난 아름답고 고결한 인간을 보게 된것으로 하여 선희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것이 뭉클 치솟아올랐다. 그러나 선희의 입에서는 의외에도 자기도 모를 날카로운 소리가 불쑥 튀어나갔다.

《미워요!》

다음순간 선희는 스스로 놀랐다. 어떻게 되어 그런 말이 불쑥 튀어나왔는지 믿어지지 않았다.

《예?!》

승남이의 눈이 접시같이 휘둥그레졌다. 선희에겐 그 모양이 왜서인지 우습게 여겨졌다. 그래서 고집스럽게 다시 뇌었다.

《철혁동무가 집단 말이야.》

《?...》

그다음 선희는 더는 승남이를 거들떠보지 않고 방을 나와 정신없이 현관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그래그래, 미운건 내가 아니야. 그 동무야. 그런 식으로 처녀를 골탕먹이는 그 동무를 난 절대 용서 할수 없어. 용서 안할테야!...)

입술을 꼭 물고 구내길을 내달리는 선희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강철혁이와 나란히 과학의 창공을 훨훨 날고있었다.

첫 씨앗

채 규

토지개혁의 그 봄날

베갯머이들이 너울너울 학초를 추며
흙내 푸수한 분여지에 첫 씨앗 뿌렸다
소작살이 땅이 든 나의 할아버지도
질신 한짝 변변히 못걸치고 자란 아버지도

그 씨앗들이 얼마나 탐스레 움터자라
가을에는 어찌나 탐나게 열매 맺었던지
현물세 바치고도 산처럼 남아
한가위 달밝은 밤
온 집안이 두리두리 뜨락에 모여앉아
햇떡을 빚으며 즐거웠는지

이 땅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품고 떠난 분여지 한줌 흙 피로 적시며
나의 할아버지 락동강모래불에 쓰러졌으랴
이 땅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나의 아버지 이랑마다 땀을 쏟아
한생토록 농사를 지어왔으랴

해마다 봄이 오면
새 종자 정히 골라 들에 뿌렸지

하나 내 지금도 별가에 나서면
그날의 첫 씨앗
흙속에 그냥 묻혀있는듯싶어...

긴긴 세월 버림받던 인생들을
땅위에 우뚝 주인으로 내세워준
토지개혁의 못잊을 첫 씨앗!
정녕 그 씨앗은
세월속에 묻혀 사라지지 않았다

한없이 소중한 그 씨앗에서
오늘도 천만곡식 움터자란다
나의 생활속에 길이 남아
이 몸을 선군조국의 참된 아들로 키우며
다함없는 추억을, 아름다운 꿈을 주거니

아, 토지개혁의 그 봄날
대지위에 뿌려진 첫 씨앗
농민들 가슴마다 뿌려진 행복의 씨앗이여
너의 한알한알 소중히 품어안고
조국은 세세년년 승리의 열매 거두리!

□평론□

선군시대인간들의 철학적형상

-장편소설 《이삭은 속삭인다》에 대하여-

오춘식

이삭은 설레이며 속삭인다. 쌀은 사회주의이며 우리의 운명이라고.

이것은 장편소설 《이삭은 속삭인다》가 형상으로 밝힌 철학적인 종자이다.

장편소설 《이삭은 속삭인다》(김명익작)는 쌀은 사회주의이며 우리의 운명이라는 철학적종자에 기초하여 땅과 낱알을 위해 청춘과 사랑, 가정과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쳐가는 아름답고 순결한 인간, 선군시대인간들의 참다운 형상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의 미학적요구를 충족시켜주며 그들이 올바른 혁명관과 인생관을 가지도록 하자면 철학적깊이가 있는 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

선군시대 인간들의 미학적리상과 요구에 맞는 작품을 창작하자면 철학적깊이가 있어야 한다.

작품의 철학적깊이는 작가가 새롭게 발견하고 형상으로 심화시킨 생활진리의 깊이에 의하여 보장된다. 철학적깊이가 있는 종자를 골라잡고 잘 가꾸어야 작품의 철학성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으며 선군시대 인간들의 철학적인 형상을 창조할수 있다.

장편소설 《이삭은 속삭인다》는 땅과 낱알에 사람들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인간의 운명문제, 사회주의의 승패가 걸려있다는 철학적깊이가 있는 종자를 잡아쥐고 우리 시대 인간들의 새로운 성격적특질을 전형화하여 무게있고 진실한 형상을 창조하였다.

철학적이며 깊이있는 종자에 의하여 형상된 작품의 주인공은 땅과 낱알에 운명을 걸고 사생결단으로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하는 순결의 인간, 강성대국건설의 중요부문의 농업전선에서 쌀로써 수령을 받들고 결사옹위하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이 투철한 실천가형의 일군이다.

꿈결에도 뵈고싶던 아버지수령님을 자기 농장 포전에 모시는 최상의 영광과 행운을 지닌 관리

위원장 현복화는 수령님의 높은 신임과 사랑에 의하여 한개군의 농사를 책임진 군농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하늘처럼 믿고 살던 아버지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은 소식을 듣고 쓰러졌던 현복화는 아버지수령님께서 험한 포전길을 걸으시면서 앞으로 동무들은 **김정일**장군만은 포전길을 걷게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하시며 두벌농사를 잘하면 먹는 문제를 풀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농사를 잘 지으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유훈을 심장에 새기고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길에서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올 불같은 욕망으로 가슴을 태우며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바쳐가는것이다.

수령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높은 충성심이 그의 온 넋을 지배하고있으며 그는 언제나 마음속에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살고있다.

분조장으로 일하다가 작업반장이 된 처녀시절 그는 한알의 낱알이라도 더 내기 위해 고심하는 농업과학원 연구사 김린학의 깨끗한 량심과 진심에 매혹되어 그가 아들에게 있는 홀아비라는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그와 한가정을 이룬다.

이것은 자기의 청춘도 사랑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실현하는 투쟁속에서만 꽃피울수 있다는 삶의 가치관으로부터 흘러나온 깨끗하고 참된 마음의 움직임이었다고 볼수 있다.

주인공 현복화는 자신의 사랑은 땅과 종자와 낱알을 떼어놓고는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바라시는 두벌농사 생각으로 늘 가슴을 태우던 그는 관리위원장시절 2모작연구실 시험포전의 앞그루작물을 보고 너무도 탐내고 반하여 포전에 뛰어들었다가 단속당하며 연구사로부터 그 종자를 구해가지고 남편 린학에게 농장에서 시험재배연구하도록 하는것이다.

남편이 시험생산한 앞그루작물 보리가 무르익어가니 갈아엎을수 없기때문에 모를 늦게 낸 포전이 가을에 무리피해를 입어 법기관에 불려가기

도 하지만 그는 앞그루작물종자와 뒤그루벼속성 재배방법을 연구완성하여 알곡 대 알곡 두벌농사를 기어이 실현하려고 남편의 연구사업을 적극 뒤받침해주는것이다.

대학을 졸업한 아들 학벌이가 박사원을 뒤로 미루고 내려와 아버지의 연구사업을 돕게 하는것도 낱알에 운명을 건 그의 소원때문이었다.

한 가정의 안해이며 어머니이면서도 그는 군의 농사를 책임진 일군으로서 어버이수령님의 유혼관철을 위해 깨끗하고 순결한 량심을 다 바치는 것이다.

농장의 메탄가스화실현을 위해 과학원에서 내려온 류미숙이 자기 남편의 첫 안해였으며 학벌이를 낳아준 어머니라는것을 알게 된 순간에도 그는 리성을 잃지 않고 굳센 의지로 메탄가스화실현을 위한 절박하고도 무거운 책임감, 남편에 대한 존경과 믿음, 아들 학벌이에 대한 무한히 깨끗한 사랑을 고이 간직하고있다.

때문에 류미숙은 주인공 현복화의 사심이 없고 순박하며 아름다운 정신세계에 감복되어 한 가정의 안해가 되고 주부로 엮매여있는 한 과학탐구의 뜻을 실현할수 없다고 남편과 아들을 버렸던 지난날의 자신은 인간생활의 패배자로 되었음을 패부로 느끼며 이런 사람의 마음으로 가꾸어진 낱알의 무게와 맛을 그 무엇으로도 짚수 없고 가늠할수 없다고 뼈저리게 자책하는것이다.

평범한 농민의 딸에 지나지 않는 자그마한 녀성이지만 사회주의를 지키는 한 초소를 맡은 지휘일군인 주인공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것인가.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불타는 선군시대 인간들의 성격적특징을 새로운 높이에서 진실하게 형상한 여기에 이 작품의 사상예술적감화력의 크기가 있다.

작품은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성격을 단순히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만 그린것이 아니라 철학적깊이가 있는 종자에 기초하여 인간의 운명, 사회주의의 운명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첨예한 정치사상적대결속에서 특징적으로 개성화, 전형화하고있다.

농사는 단순히 황포한 자연의 광란을 물리치며 인간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정복해가는 투쟁만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운명, 사회주의운명을 판가리하는 치렬한 결전이다.

따라서 소설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쌀이 사회주의의 운명과 직결되어있다는 절박성을 깨닫지 못

하고 난관앞에 무릎 꿇고 패배주의에 빠져 동면하며 좌왕우왕하는 인간들과 사상의지적대결전을 벌리게 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두벌농사를 해야 한다는 주인공 현복화의 견해에 맞서 월해리 관리위원장은 축산을 위한 2모작, 사료 대 알곡 2모작은 할수 있어도 알곡 대 알곡 2모작은 불가능한것으로 생각하고 신심을 가지지 못하며 경영위원회 기사장은 곡창지대에서 지난 기간 영농물자를 최우선적으로 공급받아온 특전, 특혜에 만족되여 비료 한덩어리 없이 어떻게 그 많은 면적에 두벌농사를 하겠는가고 나라사정이 풀릴 때까지 참고 견디며 주어진 조건에서 단벌농사만을 짓자고 주장한다.

농업위원회(당시) 부위원장은 현재의 기계화수준과 영농물자사정으로 두벌농사는 불가능하다는 립장과 견해를 가지고있다.

때문에 그는 가물이 들다가 장마가 시작될 때 앞그루작물수확은 관체치 않고 보리가을을 앞당길것을 강요하며 기사장은 자포자기에 빠져 그의 지시에 맹종맹동한다.

주인공 현복화는 자연에 의한 큰물피해보다 더 심각한 《피해》, 농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하고 내려먹이는 일부 일군들의 주관주의와 관료주의의 엄중한 후과를 현실적으로 체험하면서 완강한 의지력과 실천력으로 그들과의 투쟁을 단호하게 선포하는것이다.

그는 농장 포전에서 보리이삭모가지를 자른것을 보고 극도로 분노하여 관리위원장에게 어버이수령님의 령전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다진 당신의 맹세가 이것이 전부였는가, 이걸 배신이다, 쌀로써 사회주의를 지키고 쌀로써 당을 받들자고 했던 그 맹세를 저버린 너절한 인간이 되다니라고 하며 보리이삭을 잘라 맥주공장으로 실어나르는 프락뜨르를 세워놓고 주인공은 풍정리농장 관리위원장에게 맥주가 그렇게도 마시고싶었던가고, 남들은 때식을 에울 낱알 한톨이 없어 풀죽을 먹고 사는데 농장을 타고앉아 배똥는 고생을 모르니 맥주생각이 나던가고 날카롭게 다그어댄다.

그는 보리이삭모가지를 베어 맥주공장으로 실어가라고 지시한 기사장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준렬히 타매한다.

어린 나이에 소경어머니의 손을 이끌고 문전걸식도 하였으며 이삭주이로 주린 창자를 채워가며 굶주린 슬픔이란 슬픔은 다 겪으며 살아 한알한알의 낱알이 얼마나 귀한가를 뼈속깊이 체험하였

기에 밥상에 홀린 난알이 아까와 주어먹는 습성까지 생긴 주성훈, 그는 쌀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람들의 운명, 자신의 운명, 사회주의의 운명이 걸려있다는것을 느끼지 못하고 난관앞에 무릎 꿇고 자포자기에 빠져 《동면》하려 하였던 것이다.

작품은 주인공의 성격을 당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 부정인물들과의 첨예한 정치사상적대결속에서 예리하게 형상함으로써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님만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며 받드는 아름답고 순결한 인간들의 강한 성격, 불굴의 신념과 강毅한 의지, 완강한 실천력을 가진 우리 시대 인간들의 고결한 풍모를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시켜주고 있다. 주인공의 성격이 시대적높이에서 돋보이는 근거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장편소설 《이삭은 속삭인다》는 철학적무게가 있는 종자에 기초하여 특색있는 인간관계설정과 구성조직, 세부형상으로 작품의 사상미학적감화력을 더욱 높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인공 현복화와 그의 남편인 연구사 김린학, 아들 학별이, 연구사 류미숙과의 관계, 군경영위원회 기사장과 농업위원회 부위원장과의 관계를 인간학적으로 깊이있게 맺어주고 성격론리, 생활론리에 맞게 형상하고있다.

그 어떤 명예나 지위보다도 강성대국건설의 기본전선인 농업생산을 위해 한생 과학자의 량심을 깨우치 바쳐가는 김린학, 안해인 군경영위원장이 쌀을 더 많이 내기 위한 일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올 열망을 안고있다면 자신은 그 별을 따오는 사다리로 되는것을 행복으로 간주하는 참된 인생관, 행복관을 가진 순결한 인간 김린학의 형상은 주인공의 성격적미를 더욱 돋구어준다.

그리고 명예만을 생각하다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순결한 량심에 감화되어 진실한 과학자로 성장하는 아들 학별이의 형상도 개성적이다.

작품은 종자를 형상으로 꽃피우기 위해 주인공과 이어의 인물들과의 관계를 극적으로 맺어주고 감정선에 따라 구성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이와 함께 주인공이 폭우가 쏟아질 때 풍정리 관리위원장이 끌고온 말을 타고 흙탕물이 사뭇치

며 흐르는 개천을 건느는 이야기, 《소경못들》에 대한 생활세부를 비롯하여 종자를 꽃피우고 인물의 성격을 개성화하는 인상적인 생활세부들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작품의 사상미학적감화력을 높여주고있다.

이 소설을 재삼 음미하면서 선군시대 인간들의 미학적리상과 지향, 요구에 비해 볼 때 아쉬운 점이 있다.

작품은 무엇보다도 작가가 제기한 심각한 인간문제에 맞게 생활폭과 형상의 심도를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보장하지 못한 감을 주고있다.

작품에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 수십년래의 큰물피해와 같은 엄혹한 자연재해로 우리 인민이 겪게 된 어려운 생활을 투시해보이면서 농사가 사람들의 생사와 관련되는 운명적인 문제라는것을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이 자기의 실지 생활체험을 통해 깊이 느끼게 하지 못하였다. 간단한 설명이나 이야기로써가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로 보여주어야 농업전선이 사회주의를 지키고 빛내이는 기본전선으로 된다는 의미를 깊이있게 새겨줄수 있으며 쌀에 사람들의 운명, 사회주의의 승패를 걸고 투쟁하는 인간들의 성격적특질을 선명하게 보여줄수 있는것이다.

우리 시대 일군의 전형은 높은 실력과 실적으로 당을 받드는 실력가, 실천가이어야 한다.

작품에서는 주인공을 평범한 농촌녀성으로서 분조장, 작업반장, 관리위원장을 거쳐 군경영위원장으로 되었다는것을 전제로 하면서 현실그대로의 진실성을 보여주는데만 집중하다나니 혁신적안목을 가진 실력가로서의 풍모를 깊이있게 그려내지 못하였다.

작품은 또한 주인공의 심리세계를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속에서 예리하게 파헤쳐보이지 못함으로써 감정정서가 풍만하게 안겨오지 못하고있다.

우리 시대의 인간전형은 새 세기의 시대적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그려야 한다.

장편소설 《이삭은 속삭인다》는 이러한 부족점은 있어도 선군시대 인간들의 새로운 성격적특질을 철학적으로 무게있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독자들에게 커다란 사상미학적감화력을 주고있다.

천만번 옳았다

강현만

우리가 선군의 길 택하지 않았더라면
그 어이 지켜냈으랴 우리의 사회주의를
고마움에 목매여 누구나 말하네
천만번 옳았다 장군님의 선군령도 불멸의 천만리

고난의 행군길에서 총대를 앞세웠기에
허리띠를 졸라맸어도 마음만은 든든하였네

헤쳐온 길 굽어보며 인민은 노래하네
천만번 옳았다 장군님의 선군령도 불멸의 천만리

민족의 소원인 조국통일의 넓은 길 열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 누리에 떨치게 하네
선군조선 부러워 온 세상이 찬양하네
천만번 옳았다 장군님의 선군령도 불멸의 천만리

3.1의 피는 식지 않았다

-계급교양관의 사진앞에서-

신형길

더는 볼수가 없구나
백배 천배 복수를 당부하며
더운피 흘리며 쓰러진
저 사람들을

3.1의 기발을 추켜든이
어찌 젊은이들뿐이라
늙은이의 손에도 서슬푸른 낮이 들려있고
마음씨 고운 녀인의 손엔
보라! 돌, 돌이 쥐여져있지 않느냐

금시 들려올듯 싶구나
망국의 원한이 구천에 사무친
이 나라 이 민족의 그 웨침소리
《조선독립만세!》
《일제를 타도하자!》

어찌 용서할수 있으랴
피맺힌 원한을 풀자고
활화산같이 일떠선
그 죄없는 가슴들에
총탄을 마구 퍼부은
바다건너 섬오랑캐들의 잔인한 죄행을

한하늘아래서
순간도 함께 살수 없어라

기어이 그 원한 풀자고
이 땅에 태를 묻고 자란
나는 복수자
결산의 세대

그 원한 가슴에 사무쳐
출근길에 나서도
퇴근길에 오를 때도
복수자의 의무로 어깨는 무거웠고
밤이면 꿈에서조차
풀지 못한 원한을 두고 몸부림쳤나니

세월이 아득히 흘렀다고
우리 민족이 흘린 그날의 붉은 피
어찌 식었다 하랴
사진속에 굳어졌다하랴
나의 혈맥에
조선민족의 혈맥속에
세차게 맥박쳐 흐르나니

피는 맹물이 아니다
철천지 원수 일본제국주의와
천백배 결산을 하지 않고는
식울수도 식어서도 아니 되는
민족의 피다
오, 3.1의 피는 식지 않았다

명림답부

명림답부는 고구려 신대왕때의 첫 국상이었는데
군사전략기로도 력사에 전해오고있다.

뛰어난 충정과 전법

어느날이었다.

이날 한낮이 되어올무렵 고구려 도성으로 변경에서 급보가 날아왔다. 급보는 외적의 대부대가 고구려국경을 넘어 국내깊이로 공격해온다는 것이었다.

신대왕은 여러 관리들을 곧 궁궐로 불러들이었다.

국상 명림답부를 비롯한 여러 관리들이 궁궐에 들어오자 왕은 그들에게 물었다.

《외적이 대병력으로 불의에 침입해오고있다니 이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관리들은 서로 바라보면서 한동안 대답을 못하였다.

대병력이 침입해온다는것이 뜻밖의 소식이기도 하였거니와 그를 막을만한 군사들의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였던것이다.

적들에 대한 본격으로 얼굴이 붉어져 씨근거리던 관리들은 주먹을 쥐고 이를 갈며 서로 바라보다가 흥분을 참지 못하고 왕에게 한마디씩 제의하였다.

《외적들이 이렇게 불의로 우리 나라에 쳐들어온것은 저들의 군사가 많은것을 믿고 우리를 업신여기고있기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군사가 적고 싸울 준비가 안되었다고 주저하며 즉시 대응해나서지 않는다면 적들은 우리를 더 업신여기고 더욱 날칠것이니 있는 군사로 즉시 출전하여 맞받아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관리가 주먹을 부르짖고 제의하자 곁에 있던 한 관리가 호응해나섰다.

《그렇소이다. 적들은 많고 우리 군사는 적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에는 산이 험하고 길이 좁으니 지형을 잘 리용하여 싸운다면 두려울것이 없다고 보나이다.》

그러자 여러 신하들이 머리를 끄덕이며 모두 긍정하였다.

《옳은 제의라고 보나이다.》

《그러니 맞받아 출전하여 싸우자는데 다른 의견들은 없느고?》

왕이 묻자 모든 관리들은 의견이 없다는듯 서로 바라보며 잠잠했다.

이때 국상 명림답부가 왕의 앞으로 한걸음 나섰다.

《소신의 생각은 그렇지 않나이다.》

모든 관리들은 의아해하며 명림답부를 바라보았다.

《어째서?》

왕도 의아해하며 물었다.

《병법에 이르기를 적과 싸워이기자면 우선 자신을 알고 적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나이다. 앞의 의견들은 자신을 알고 취하는 대책으로는 되오나 적을 알고 취하는 대책으로는 되지 못하는줄로 생각하나이다.》

《적을 알고 취하는 대책이 아니라구?...》

《그렇소이다. 적들을 안다는것은 적들의 약점을 안다는 말이오니 지금 적들의 약점은 우리 나라를 깊이 침입하자면 천리길이나 되어 지고오는 군량으로 그 기간에 다 대일수 없고 가져오자면 거리가 멀어 애로가 아닐수 없는것이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약점을 리용하여 들관을 비워놓고 도성에까지 끌어들이고 성을 며칠만 지겨내면 놈들은 굶주려 더 싸우지 못하게 될것이니 그때 강한 군사로 공격하면 적들은 반항을 못하고 물러갈것입니다. 그 기회를 타서 험한 산과 좁은 길을 리용하여 적을 몰아치면 힘들지 않게 싸워이길수 있을것으로 보나이다.》

이 말을 듣고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왕은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다.

《국상의 의견에 다른 생각들은 없는가?》

명림답부의 의견을 되새겨보고난 여러 관리들은 모두 그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왕은 곧 전국에 령을 내려 놈들이 지나올 벌판들과 마을에 한알의 쌀과 한알의 소금도 없이 비우게 해놓고 놈들이 도성까지 오는 기간을 리용하여 위나암성둘레에 해자도 깊이 파고 성을 수축하면서 만단의 싸움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얼마뒤에 적들은 위나암성까지 공격하여왔으나 완강히 방어하는 성을 깨칠수 없어 여러날 성 주변을 포위하고 맴돌다가 군량이 떨어져 굶주리고

지치기 시작하여 싸움을 포기하고 돌아가려 하였다.

이때 명령담부가 수천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하여 좌원벌에서 죽치니 적들은 반항도 못해보고 돌아갔다. 살아 도망치려 하던 놈들도 사방에서 일떠선 고구려군사들과 인민들이 험한 산세와 좁은 길목을 리용하여 죽쳐대니 군사 한명은커녕 말 한마리도 살아 제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대병력을 적은 군사로 아군의 작은 손실도 없이 몰살시키고 큰 승리를 이룩하자 왕

은 대단히 기뻐하며 담부에게 그가 싸워 승리한 좌원벌을 상으로 주었다.

그러나 담부는 쉬이 받으려 하지 않았다.

《나라의 위기에 한몸바쳐 싸우는것은 신하의 본분이온대 어찌 이런 큰 상을 내리시나이까!》

《싸움에서 공로보다 그대의 나라 위한 충정이 뛰여남을 기특히 여겨 표창함인줄 알고 사양 말라.》

뛰여난 충정이 아니교야 어찌 뛰여난 전범이 나올수 있었겠는가!

○삼식○

오곡에는 어떤 곡식들이 들어가는가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해마다 정월대보름날이면 새해에도 곡식이 잘되고 또 온갖 복이 차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곡을 섞어 지은 밥을 별식으로 먹는것을 풍습으로 여겨왔다.

여기서 오곡이라고 할 때는 글자그대로 다섯가지의 곡식을 의미한다. 다섯가지의 곡식으로는 일반적으로 벼, 기장, 조, 보리, 콩을 꼽아왔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오곡으로 꼽는 곡식이 꼭 규정되어있는것은 아니었다.

지난시기 력사기록에 의하면 해당 시기에 따라 오곡에 포함되는 곡식종류는 서로 달랐다. 실례로 《세종실록지리지》(15세기)에서는 벼, 콩, 기장, 보리, 피, 《규합총서》(19세기초)에서는 찰벼, 조, 수수, 콩, 팥, 《림원십록지》(19세기)에서는 벼, 조, 수수, 기장, 팥을 오곡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지방에 따라서도 자기 고장에서 주로 심는 곡식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그밖의 곡식을 포함시켜 오곡으로 보아왔다. 이것은 오곡이란 어떤 곡식을 꼭 짚어말하는것이 아니라 해당 시기 그리고 매 지방에서 가장 많이 심어온 곡식을 오곡으로 일러왔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그런데 오곡에 포함되는 곡식가운데서 빠지지 않는 곡식은 벼, 콩, 팥이었다. 한것은 이 세가지 곡식들이 다른 곡식들에 비하여 우리 선조들이 매우 오래전부터 심어온 곡식이며 또 식생활에도 가장 많이 리용하여온 곡식이였기때문이다.

오곡은 이밖에 여러가지 곡식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왔다. 우리가 흔히 《오곡백과》라고 할 때의 《오곡》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씌여진 말이라고 볼수 있다.

장의 《3 형제》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간장은 음식물의 간을 맞추는데 썼고 된장은 그자체로 먹거나 혹은 부글부글 끓이거나 국을 끓여먹는데 써왔으며 고추장은 입맛을 당기게 하는 독특한 조미료로 리용하여왔다. 간장, 된장, 고추장은 쓰이는 재료나 만드는 방법에서 여러가지가 있지만 다같이 콩을 기본원료로 하고있고 콩을 삶아 적당하게 띄워서 만든다는 점에서 같은 콩식품이라고 할수있다. 그러므로 우리 선조들은 수십가지나 되는 간장, 된장, 고추장을 《장》이라는 말로 통털어 표현

해왔다. 고추장품종은 멧쌀고추장, 찰쌀고추장, 고기고추장, 약고추장 등 여러가지로 발전하였다.

이리하여 간장, 된장, 고추장은 조선민족음식가운데서도 가장 기초적인 식품으로 되었으며 조선고유의 민족음식과 식생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것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아무리 좋은 고기국이라도 몇끼만 련거퍼 먹으면 물리여 못먹지만 된장국은 평생 먹어도 물리지 않는것은 그만큼 장의 독특한 맛이 조선사람의 피와 살에 배여 있기때문이다.

봇나무에 비낀 열렬한 조국애

쏘도전쟁주제의 장편소설 《봇나무》(1, 2부)는 이전 소련시기에 창작된 성과적인 작품의 하나이다.

소설을 쓴 작가 미하일 세묘노비치 부벤노브(1909-1983)는 알타이변강의 농민가정에서 태어나 씨비리와 알타이지방에서 교원생활을 하다가 작가로 되었으며 1951년에 소련공산당에 입당하였다.

그는 대표작인 《봇나무》(1948~1952)외에도 처너지개간자들의 위훈에 대하여 그린 장편소설 《독수리의 초원》(1959)과 《급류》(1970), 중편소설 《불멸》(1940), 《붉은 여름의 섬광》(1977) 등 여러 작품들을 창작발표하였다.

장편소설 《봇나무》는 쏘도전쟁의 일시적후퇴시기에 소련군대가 발휘한 영웅적위훈과 적후에서 유격대를 조직하여 용감히 싸운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소련군대와 인민의 성장모습, 그들에게 간직된 열렬한 조국애의 감정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에서는 농민출신의 병사 안드레이 로뿌호브와 그가 속한련대의 운명선을 기본이야기줄거리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안드레이의 아버지 예로페이 꾸지미치와 안해 마리아까를 비롯한 인민들이 적후에서 원쑤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함께 펼쳐지고있다. 이 과정에 소설은 전쟁의 간고한 시련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단련되고 성장하며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새 인간들의 정신적아름다움이 발양되는가를 보여주면서 그들이 발휘한 용감성의 기초는 무엇인가를 밝히는데로 형상의 초점을 집중하고있다.

작품은 이러한 주제사상적과제를 주인공 안드레이의 형상을 통하여 해명하고있다.

그는 전쟁전에 꼴호즈에서 일하던 온순하고 근면하며 너무나도 소박하고 평범한 청년이었다.

전쟁이 일어나자 군대에 입대한 그에게는 초기에 적에 대한 적개심과 견결한 투지가 부족하였고 승리에 대한 신심이 확고하지 못하였기에 후퇴의 길에서 고향집에 들렀다가 가족과 작별할 때 마음속에는 의혹과 동요의 감정도 있었다.

그러나 간고한 후퇴과정에 적의 만행을 목격하고 피어린 전투를 거듭하는 과정에 그는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투철한 계급적신념, 무비의 용감성을 겸비한 믿음직한 군인으로 자라나며 전사로부터 분대장을 거쳐 특무상사로 성장한다.

소설에서 안드레이의 형상은 근로인민출신의 병사들이 전쟁의 간고한 시련속에서 단련되고 용감한 군인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체현하고있다.

소설은 또한 오제로브소좌를 비롯한 우수한 지휘관들의 형상을 통하여 전쟁에서 지휘관들의 위치와 역할에 대하여 밝히고있다.

단련되고 세련된 련대장인 오제로브는 련대의 사기가 지휘관인 자기의 일거일동에 달려있으며 포위속에 든 련대를 구원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정치위원과 함께 련대를 능숙하게 구원해낸다.

어려운 도하때에는 맨뒤에 서고 방향을 잡기 힘든 밀림속에서는 맨앞에 서서 믿음직하게 부대를 이끄는 그의 지휘밑에 련대는 포위를 돌파하고 주력부대와 합세한다.

모스크바방어전투임무를 수행할 때에도 오제로브는 적의 공격이 멎었을 때 방어로부터 공격에로의 전환이 일어난다는것을 재빨리 감촉하고 그 준비를 빈틈없이 갖춘다.

오제로브는 병사들을 진심으로 사랑할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교양하여 그의 련대는 상하가 단결되고 규율이 강하며 언제나 락천적기분에 넘쳐있다.

이를 통하여 소설에서는 지휘관들의 높은 지휘능력이 전투승리의 비결의 하나라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소설에서는 정치위원 야흐노와 당원 유르긴 등의 형상에도 힘을 기울이고있다.

련대가 적의 포위속에 빠진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을 때 대오의 앞장에서 자기희생적으로 돌파구를 열고 후퇴의 어려운 나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선두에서 헤쳐나가는 정치위원과 당원들의 투쟁모습은 군대내에서 당조직의 령도적역할과 당원들의 핵심적역할을 보여주는데서 뚜렷한 몫을 차지하고있다.

소설에서는 이와 함께 후퇴시기에 재산이 아까와 남아있다가 적들에 의해 손장으로까지 임명되었던 안드레이의 아버지 예로페이 꾸지미치가 자신의 체험과 유격대지휘관의 교양을 통하여 자신을 닦고 손장의 《지위》를 리용하여 투쟁을 벌리는 이야기와 유격대에 들어가 직접 손에 무기를 잡고 싸우는 안해 마리이까의 모습을 통해 적후인민들의 성장과정도 군대의 투쟁선과 유기적으로 련관시켜 잘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이와 같이 어려운 전쟁시기에 성장하는 군대와 인민의 모습과 그들이 발휘하는 용감성에 대하여 형상하면서 그 정신적바탕의 하나로 되고있는 열렬한 조국애의 감정을 붓나무와의 밀접한 련관속에 잘 보여주고있다.

작품에서 붓나무는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일떠서는 소련인민의 정신으로 상징되고있다.

주인공 안드레이와 그가 속한 련대의 장병들, 꾸지미치와 마리이까를 비롯한 적후인민들은 나

서 자란 고향땅과 조국의 곳곳에 뿌리박고있는 붓나무를 사랑하고 아끼며 언제나 그려보는것이다.

이것은 곧 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이었으며 그것은 소련군대와 인민이 후퇴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승리로 펼쳐나설 수 있게 한 정신적원천의 하나였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긍정인물들에 자기 조국도 인민도 모르는 부정인물 로즈네보이가 대치되고 있다.

초기에 안드레이의 대대장이었던 그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과 승리에 대한 신심이 부족하였기에 자기밖에 모르는 너절한 인간으로 되고마는것이다.

그는 자기 대대에 련대의 후퇴를 엄호할 명령이 내렸을 때 왜 남을 위해 자기가 희생되어야 하는가고 동요하며 나중에는 방어전에서 비겁하게 도망하여 적의 포로가 된다.

그는 자기를 구원해준 마리이까와 마을사람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파쑈앞잡이로, 면경찰서장으로 변절하여 갖은 만행을 일삼다가 처단된다.

소설은 이렇게 탈주병, 변절자의 추악한 물골을 그리면서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없고 신념이 없는자, 비겁분자는 조국이 시련을 겪는 시기에 반역의 길에 굴러떨어지게 된다는것을 교훈적으로 잘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붓나무》는 지난 쏘도전쟁시기 파쑈 침략자를 때려부시고 쏘베트조국을 지켜낸 소련군대와 인민들의 투쟁모습을 그리면서 그들의 승리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당과 조국에 대한 충실성, 열렬한 조국애의 감정을 보여준 작품으로서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도 일정한 경험과 교훈을 주고있다.

김철호

